



6

199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6. 5호

(루게 584)



## ◆◆◆◆◆◆◆◆◆◆ 차 례 ◆◆◆◆◆◆◆◆◆◆

사상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	4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신 내 나라.....	6
우리의 행복 .....	7
학소대 .....	8
언제나 그리는 마음 .....	9
은인 .....	10
만경대고향집 트랙에서 .....	21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광풍을 부시며 .....	22
고마운 당의 품이여 .....	23
위인과 총서 .....	24
어머니의 노래 .....	26
명언해설 .....	31
어머님 사랑하신 꽃 .....	31
사랑을 안고 이어가신 령도의 자욱 .....	32
수호자의 선언 .....	34
오늘도 기다리신다 .....	36

백두의 혁명정신을 문화작품에 구현하는것은 작가들의 성스런 임무 .....	37
우리 아버지 .....	40
우리가 가는 길 .....	42
모닥불 .....	43
승리의 메아리 .....	52
그 별에서 내가 사네.....	52
백두산 풍경 .....	53
당위원회의 문 .....	54
조국애 불타오른 기슭에서 .....	55
내 나라의 모습 .....	57
영랑호 기슭에서 .....	63
잘 있었나 비행사친구들!(외 1 편).....	64
달비 .....	64
처녀와 총(외 1 편).....	65
별들은 사라져도 .....	65
병사의 마음에도 샘물이 .....	66
나는 늙음을 모른다 .....	67
병기창의 정적을 두고.....	67
뼈꼭새 울면 .....	68
강철로는 무엇을 끓이는가.....	69
나는 좋더라 이 옷이.....	71
기다리는 안해 .....	72
숲속으로 사라진 병사.....	80

## 사상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1995년 6월 19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발표하신 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혁명적 인민들과 당들에 있어서 커다란 고무적기치로 된다.

이날을 맞는 우리 작가들은 그 어느때보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 3대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다지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 이바지할 작품창작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과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연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어 사상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주시었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뿐아니라 사회주의재생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선 온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서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건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로작에 일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상은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사회주의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완성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사회주의사상진지를 굳건히 다져야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사회주의를 꺾듯이 지켜나갈수 있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이것을 뚜렷이 증명하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사업이 없이는 사회주의제도가 태어날수 없고 존재할수도 발전할수도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주의사상에 의하여 향도되고 사회주의사상을 기본 추동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사회라는것을 밝히시면서 사상사업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사회주의의 공고발전과 그 운명이 달려있다

는것을 강조하시었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상이 생명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로작에는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이 어찌하여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로 제기되는가 하는것이 리론실천적으로 심오하게 분석되어있으며 사상사업의 기본임무와 내용,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사상사업의 원칙과 방법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로작은 바로 주체의 사상론을 틀어쥐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과학적인 방도를 밝혀줌으로써 거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받아안고 모든 사람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로작의 발표와 때를 같이하여 창작된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정일 동지》**와 불멸의 송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한 기념비적명작, 인민의 신념과 지향을 훌륭하게 형상한 시대의 명곡으로 만민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힘차게 울려 퍼지였다.

그뒤를 이어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가 주체문학의 화원우에 탐스러운 꽃으로 활짝 피어났으며 신념과 의지의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우리 시대의 **《적기가》**로 높이 울려 퍼졌다.

주체문학의 발전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솟아 빛나는 시대의 명작들을 비롯하여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맞으며 창작된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채로운 형식의 문학작품들은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혁명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비해볼 때 초기의 성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거나 자만할수 없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 3대 진지를 허물어보려고 날을 따라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주체문학은 혁명의 붉은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적들의 반동적부르조아 사상문화의 침투를 철저히 막는 동시에 사회주의 사상을 적극 옹호하는 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함으로써 사회주의정치사상적진지를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며 우리 작가들은 당사상전선의 영예로운 전초병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이 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전진시키는데 철저히 복무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의 모든 창작활동은 당과 수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과 밀접히 련결되어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그 어떤 작품을 쓰던 그것이 철두철미 우리의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작가들이 그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당의 사상사업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앞세워나갈데 대한 요구가 왜 정당한가 하는것을 깊이 인식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사상사업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사상을 심화발전시키는 사상리론사업이며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이다.

이것이 바로 로동계급의 당이 진행하여야 할 사상사업의 본질이다.

우리 작가들은 당사상사업의 본질을 깊이 체득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작품들을 사상예술적으로 품위있게 창작해내야 한다.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하여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킬수 있는 문학작품이라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으로 우리 작가들은 누구나 다 알고있다.

우리 인민들이 지녀야 할 혁명사상, 사회주의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해나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의 사상교양사업에서 기본은 주체사상교양이다.

우리 작가들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집단주의교양, 충실성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당정책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사회주의도덕교양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문학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해내야만 우리 문학이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으며 혁명앞에 지는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우선 수령의 위대성, 령도자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야 하며 창작되는 모든 작품들이 시대의 명작, 걸작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간고하고도 자랑찬 우리 혁명의 승리의 전로정을 통하여, 작가적성장의 나날에 수령의 위대성, 령도자의 위대성을 그 누구보다도 심장으로 뜨겁게 절감한 지식인들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수령형상작품 창작활동과정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새로운 발견이 없고 탐구가 결여된 구태의연한 작품을 창작한다는것은 당적랑심을 지닌 작가로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사색과 탐구를 깊이 하고 형상의 완벽성을 담보하여 불멸의 화폭들을 창조하여야 한다. 하여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한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새로운 형상세계를 펼쳐놓아야 한다.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주체문학의 일관한 과업이며 그 형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담보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나서는 절박한 요구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사회주의위업수행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주체형의 인간전형이야말로 사회주의사상을 드팀없는 신념으로 심장깊이 새겨안고 빛나는 삶을 개척해나가는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체형의 인간전형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작품마다에서 깊이있게 형상하여 공산주의혁명가의 본보기로 내세움으로써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그 형상을 따라배우게 하여야 한다.

우리가 창작하는 문학작품들이 혁명가의 전형을 따라배우는 참다운 교과서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 작품에 올바른 종자가 심어져야 한다.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담보하는 근본핵인 종자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인간들의 생활철학을 구현하지 못한것일 때 그 형상의 힘은 미미

하고 따라서 작품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상교양에서 위력을 나타낼수 없다.

우리 문학작품이 근로자들의 사상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자면 사회주의사상이 생활적으로 구현된 알속있는 종자를 심고 그것을 형상으로 활짝 꽃피운 시대의 명작, 걸작으로 되어야 한다.

철학적무게가 없는 작품, 문제성이 희박하고 뭉뚱하게 없이 지지하게 늘어놓은 작품, 문학화되지 못한 설익은 작품들은 대체로 종자가 없거나 부실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사상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으로서의 풍격을 원만히 갖추자면 철학적심도가 있어야 하며 그 철학적심도는 종자의 심오성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심오한 인간문제를 안고있는 무게있는 철학적인 종자를 잡아쥐고 그것을 특색있게 꽃피워나감으로써 창작되는 모든 작품들이 레외없이 시대의 명작, 걸작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우리 현실은 일시적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이러한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발맞춰나가는 우리 인민의 벽찬 투쟁속에 뛰어들어 그 생활속에서 참다운 인간문제를 찾아쥐고 시대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종자를 탐구하고 형상으로 무르익혀야 한다.

종자선택과 함께 사상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사회주의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 가사

#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신 내 나라

박두천

다심하고 살뜰한 친부모되어  
고아들을 키우는 가정도 많네  
아름답고 순결한 마음을 바쳐  
영예군인 안해된 처녀도 많네  
아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신 내 나라  
남이 없는 혈육의 한가정일세

자식없는 로인들 아들딸되어  
효성하는 청춘들 그 얼마인가  
자신보다 동지가 더욱 귀중해

종자에 기초하여 주제를 독창적으로 천명하고 사상적대를 튼튼히 세우는것을 창작의 선차적인 공정으로 삼고 여기에 빠심을 들여야 문학작품다운 문학작품, 사상사업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참다운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인민만이 아니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을수 있는 세계적인 명작을 창작하는데로 지향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높은 실력을 가지기 위하여 피라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작가들의 실력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인것만큼 높은 정치적안목을 갖추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며 창작적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작가들이 생활을 깊이 파고드는 철학가가 되어야 하고 박식가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는 숭고한 사명감에 맞게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 세계적인 과문을 일으키는 시대의 명작을 창작함으로써 당의 기대에 보답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사는 주체조선의 작가된 영예와 자랑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안겨주신 주체의 필봉을 높이 들고 사회주의사상에 도전하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면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혁명문학건설의 한길로 내달림으로써 사회주의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자신의 숭고한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한몸바친 병사들 그 얼마인가  
아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신 내 나라  
남이 없는 혈육의 한가정일세

남을 위해 사랑도 모두 바치고  
남을 위해 생명도 서슴지 않네  
이 땅우에 꽃피는 참다운 삶은  
이 세상 그 어디도 찾을수 없네  
아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신 내 나라  
남이 없는 혈육의 한가정일세

# 우리의 행복

권강일

걸어온 자욱자욱

우리의 추억은 승리의 추억

걸어갈 자욱자욱

우리의 래일은 번영의 래일

그 무엇이

이 땅에 흐르는 세월을

환희와 영광의 년륜으로 아로새겼거나

그 무엇이

래일을 위해 사는 우리의 가슴에

신심과 락관만을 가득 채워주느냐

생각하면

오늘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다 맡아안으시고

우리 당, 우리 국가, 군대의 수위에서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시는분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그 행운이 아니더냐

6 월의 하늘 류달리도 밝게 띄여오던

30 여년전 그날부터였던가

상상도 못할 자동화의 미래가

용해장에 별무리로 내려앉던 그날도

우리의 추억속에 환희로워라

우리 세포당원들

화광이 얼른대는 용광로곁에 둘러앉아도

후덥게 안겨오는 그이의 숨결

가슴에 젖어오는 그이의 가르치심

하루일을 앞둔 휴게실에

우리들 잠시 생각에 잠길 때도

그 생각에 나래를 달아주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이의 손길

그이는 우리의 심장이

가장 가까이 친근하게 부른분

세상 끝까지 의지하며 따르고싶어

부르며 우러르며 모셔온분

우리 인민은 이미 수십년을 두고

어버이수령님과 한모습으로

그이를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기에

내 조국은 7 월의 그 피눈물의 자욱도 디디고

붉은기 높이 들고 분연히 일떠섰고

사나운 광풍이 모질었어도

우리의 하늘은 한점 흐린적 없으라

이 땅에 흐르는 세월이여

우리의 긍지로 가득찬 세월이여

너는 이 땅의 력사에 아로새기지 않았더냐

그이가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 당과 조국이 위대하고

우리의 총대는 무적의 힘을 안고 강대하고

이 땅의 세월은 영원히 승리의 년륜만을

아로새기리니

세계는 똑똑히 보았으라

조선은 어제와 다름없이

장군님을 혁명의 수뇌부에 높이 모시여

영원히 무궁번영하리라라는것을

길이길이 수령복을 누리며 살아가리라라는것을

## 학소대

오래 살면서 죽지 않는다는 《십장생》의 하나인 학은 예로부터 《장생도》에 많이 그려지곤 하였다.

《십장생》은 해와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 등 열가지를 이르는 말인데 그가운데서도 학과 소나무는 《장생도》에서 빠지는 적이 없다.

오늘날에도 위인들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장생도에는 의례히 학과 소나무가 그려지고 노래로도 널리 불리우곤 한다.

천하제일명산인 묘향산에서도 제1등산로정으로 되어있는 상원동을 오르느라 1.5키로미터 되는 지점에 금강폭포가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명승지가 있다.

이 명승지를 지나 얼마간 산굽이를 오르느라 흘러내리는 물이 담소에서 감도는 상원천물가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바위가 층층 하늘을 치받으며 솟아있고 그우에는 푸른 소나무가 우거져있다.

여기에는 바로 옛날에는 그 소나무숲속에 학이 둥지를 틀곤하였다는 상원동 학소대이다.

지난날에는 상원암으로 오르던 사람들이 금강소에서 소풍을 하고는 학소대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곳 경치를 즐기었다고 한다.

금강폭포가 있는 이곳은 절묘한 경계를 이루고 있다.

꼭짜기 생김새와 금강폭포의 굽이침이 마치 룡이 누워있는 형상이어서 여기를 《와룡동》이라고도 부르는데 폭포밑 함지같은 넓다란 화강석 암반에는 금강소라는 푸른 담소가 있다.

옛날 서도관내 녀인들이 삼월삼짇날이면 화전놀이를 즐기곤하였다는 이 금강소에서 얼마 오르지 않아 있는 학소대는 살아있는 《장생도》로서 19세기에 쓴 책인 《묘향산지》에도 기록되어있는 명소이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학소대에는 《십장생》으로 일러오는것이 거의다 있는데 여기서 한번 즐기고 간 사람은 명이 길어져 오래 산다고 하였다 한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장생도》의 령험이 어리어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디보다도 여기 학소대를 즐겨 찾곤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일제에 의해 나라가 망한후 묘향산은

놈들의 략탈대상으로 되어 산림자원이 황폐화되고 말았다. 게다가 1915년 《을묘대탕수》의 무서운 참변까지 겪다보니 명승중의 명승인 학소대의 소나무숲은 없어지고 보금자리를 잃은 학들은 어디론가 떠나가버리었다.

그리하여 맨 바위만 남은 학소대는 명소로서의 제 모습을 완전히 잃고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영영 사라지고말았다.

해방후 우리 당의 옳바른 자연보호정책에 의하여 상원동에는 다시 소나무들이 옮겨져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고 학소대바위벼랑우에도 략락장송이 푸르청청하니 우거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너무도 오래동안 이고장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잊혀졌던 학소대라 다시 옛모습을 되찾았으나 누구도 그곳을 일부러 찾아와 즐기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 어느 사람도 그곳이 학소대라는것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저 범상히 지나치곤 하였다.

하긴 묘향산은 어딜 가도 아름다워서 웬만한 명소는 이름조차 없는곳이 많으니 그럴만도 한 일이었다.

더우기는 이 학소대에 소나무는 우거졌으나 학이 날아들지 않으니 거기가 학소대라는것을 알지 못했다.

한 연구사가 옛 문헌인 《묘향산지》에서 학소대에 대한 글을 읽고 그곳을 찾으려고 몇번 시도하였으나 어긋비슷한곳이 많아 종시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묘향산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상원동을 오르시다가 금강폭포밑에서 휴식을 하시고 등산을 계속하시여 상원천물가의 담소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시였다.

상원천물가에 다가가신 그이께서는 수정같이 맑은 물을 두손으로 한웅큼 떠보시며 정말 물이 맑다고 찬탄을 아끼지 않으시였다.

그이의 손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담소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며 잔주름을 일으켰다. 물결이 잦아드니 담소의 수면은 거울처럼 빛을 뿌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물속을 한참동안 들여다보시였다. 물안에는 그이의 거룩한 영상이 어리였다. 물밑 저끝 푸른 하늘에는 흰구름이 떠흐르고 그우에 푸른 소나무와 웅기중기 솟은 바위가 비껴있었다.



그이께서 쓰신 한응컴의 물이 조화를 일으킨듯 물안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비끼었다.

맑은 물위에 거꾸로 비낀 절경을 내려다보시던 그이께서는 눈길을 돌려 하늘높이 솟아오른 바위를 올려다보시었다.

수원들도 그이의 눈길을 따라 상원천물가에 솟아오른 바위를 바라보았다.

《야!-》

그들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찬탄의 목소리가 터졌다.

바로 이때 바위위에 솟은 푸른 소나무숲속에 난데없이 두마리의 학이 날아올랐다. 학들은 사람들의 머리위를 빙 날아돌더니 큰 날개를 접으며 소나무가지에 내려와앉았다.

순간 사람들은 황홀경에 사로잡혔다.

맑은 태양, 아름다운 산, 맑은 물, 거대한 바위, 바위위에 솟아오른 락락장송, 소나무숲에 깃들어 사는 학, 나무가지같은 뿔을 이고 달려오는 사슴무리...

말그대로 《십장생》이 모두 한데 모여있는 살아 있는 《장생도》였다.

그이를 안내하던 일군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웅크렸다.

《아, 여기가 우리가 그토록 찾던 학소대로구나.》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말씀드리었다.

《여기가 옛 문헌에는 기록되어있으나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던 학소대인것 같습니다.》

안내자는 그이께 학소대에 대한 자상한 내용을 말씀드리었다.

《학소대? 옳습니다. 여기가 옛날의 그 학소대가 맞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학소대는 옛날의 학소대보다 더 아름다운 명소로 되었습니  
가사

다.》

그이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갑자기 술술이 설레고 학들이 큰 날개를 펴고 날아왔다. 사슴들이 기뻐서 꺽충거렸고 유정한 물소리가 골안을 더 크게 울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학소대의 기이한 경치를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이런 명소를 인민들에게 찾아주신 기쁨이 크신듯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며 또다시 인호대를 향해 걸음을 옮기시었다.

락락장송이 우거진 숲속에 천년을 산다는 학이 깃들고 기묘한 바위짜므로 맑고 깨끗한 벽계수가 흘러내리는 여기 학소대는 우리 인민의 영생의 상징이요 위대한 향도의 태양을 우러르며 그이의 만년장수를 축수하는 우리모두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천연분경이다.

어느 한 미술가는 여기 학소대의 풍경을 그대로 그렸는데 그 그림이 풍경화가 아니라 훌륭한 《십장생도》로 평가를 받았다는 말도 있다.

학소대는 옛날의 신비로움도 다시 되찾았다고 한다. 그것은 이 학소대에 왔다간 사람은 누구나다 장수한다는것이다.

평안남도어 어느 한 장수자가 여든이 넘어 여기에 왔다간적이 있는데 그는 지금 백살이 넘었지만 아직 정정하다고 한다.

그가 말하기를 학소대에 가서 《십장생》을 한 자리에서 보았을뿐아니라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이 신령스런 조화를 부려 자기가 장수한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찾아주신 학소대이고 또 그이의 만년장수를 축원하여 십장생이 모두 모여든 학소대이니 그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있다.

## 언제나 그리는 마음

박련희

봄날에 오시였던 아버지대원수님  
교정에 꽃이 피니 더욱더 그리워라  
귀여운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던 그모습 그림습니다

못잊어 사적비를 더듬어 쓸어보면  
심장깊이 울려오는 수령님 그 말씀  
후대를 잘 키워야 미래가 밝아진다  
그 말씀 언제나 새기고 살아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변함없이  
마음속에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네  
장군님 받들고서 내나라 빛내라신  
그 유훈 가슴속에 울리어옵니다

아 그 언제나 그리운 마음 안고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내 나라 빛내렵니다

## 인 인

황정일

##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잠시 펜을 멈추시고 원고지에서 눈길을 드시었다. 벌써 새벽이 다가오고있었다. 집무실엔 고요가 깃들었다. 실새없이 울리던 전화종소리, 그이께 긴급보고와 문건들을 가지고 왔던 당과 국가, 인민군대의 책임일군들, 간단없이 여닫기던 대기실문… 보고, 담화, 결론들과 지시들… 어찌다 찾아든 고요였다.

그이께서는 의자등받이에 어깨를 기대시며 조용히 두눈을 감으셨다. 그러자 수령님 생각이 못 견디게 가슴에 사무쳐오시었다. 전화종이 울리면 금시라도 우렁우렁한 수령님의 음성이 울려나올 듯싶으시어 선듯 송수화기를 들지 못하곤하시는 그이이시었다. 사색을 이어가시는 이 순간에도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사회주의위업에 대하여 말씀하시던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도 우렁이 안겨와서 버쩍 두눈을 뜨곤 하시었다. 그리움은 나날이 더 그이의 가슴을 파고들어 때없이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곤 하시었다.

사색은 빛과도 같은것이다. 아니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것이다. 순간에도 인간의 사색은 수백년전의 과거에도 몇십년후의 미래에도 가닿곤 한다.

인류력사의 시초에까지 소급해보아도 언제, 어느 세기에 우리 수령님 같으신 위대한 령도자가 있었던가. 아니 몇세기후에도 다시 없을 인민의 수령, 행성우의 오직 한분! 그래서 우리 인민은 무심한 하늘도 땅도, 이 자연의 모든것이 스스로 상복을 입고 상제가 되어 7월이 비통한 슬픔을 띠고있는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집무탁앞에서 일어나시어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셨다. 잠들줄 모르는 평양의 야경이 창가림새로 흘러든다. 만수대 언덕엔 지금도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 없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멀리 하늘가에 잇닿은 탑의 글발들이 세상이 아직 모르는 삶의 영원한 의미를 이야기하며 첫가을밤의 못별들과 더불어 찬연하게 빛을 뿌리고 있다. 그이께서 전국 도처에 세워진 수많은 탑들을 다 보고계신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한달새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품도와 도덕의리심은 새로운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매일 수백통씩 보내오고있는 인민들의 소박한 편지들과 공산주의미풍자료들… 임의의 어느 한 편지라도 펼쳐보면 거기선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꾼 인민의 억센 기상과 충성의 마음들이 대하처럼 도도히 굽이치고있다. 우리 인민에 대한 믿음의 감정은 더 억세게 그이의 가슴속에 뿌리내리고있었다. 사람, 인민대중,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그이의 사색과 탐구는 새로운 력사적총화으로 지향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온몸에 굶주쳐오르는 창조의 정열을 실감하시면서 다시 펜을 드시었다.

저물어가는 20 세기,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과 세계의 동란, 민족과 종족 호상간의 끝없는 충돌과 전쟁의 불길… 과연 그들이 떠드는 《사회주의 종말》이 왔단말인가? 기나긴 동토대의 밤

이 행성을 뒤덮는단말인가? 사회주의에 대한 리상과 동경은 이제 인류의 가슴에서 떠나버렸단 말인가? 아니다. 그것은 천만부당한 꾀변이다.

천금같은 시간은 흐른다. 사색과 예지에 넘친 글발들에선 살아움직이는듯한 약동하는 힘이 느껴진다. 천금같은 시간은 흐른다. 사색과 예지에 넘친 글발들에선 살아움직이는듯한 약동하는 힘이 느껴진다. 전화종이 울렸다. 그이께서는 펜을 달리시며 왼손으로 송수화기를 드시었다. 순간 그이의 얼굴은 환히 빛났다.

《아 형순동무요? 수고했소. 방금 도착했다? 그럼 곧 여기로 오시오.》

얼마후 문가에 김형순이 나타났다. 해별에 탄 그의 얼굴은 거무스레했다. 년중 절반을 농촌들에 나가 살다싶이하는 그여서 많은 일군들중에서도 그의 모습은 늘 유표했다. 지금 역시 그이께서는 그가 안고 온 해별과 들바람과 몸에 밴 난알냄새를 감수하시면서 그에게 쏘파를 권하시고 자신께서도 옆에 앉으시었다.

《그래 연백벌을 돌아봤다지요?》

《예, 금나락이 물결치는 연백벌을 보니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랬을거요.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셨던 그들길을 따라 끝없이 걷고만싶소. 그런데…》

《!…》

김형순은 목이 껍 메여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얼마나 바쁘시면 저렇게 말씀하시랴. 우리 혁명은 물론 지금 세계 사회주의 운명이 그이 한분의 어깨우에 놓여있다. 그것이 어떤 중하인지 력사는 아직 모르고있다. 그이께서는 김형순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잠시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계셨다. 또 전화가 걸려왔

다.

그이께서 부탁하셨던 전화였다.

《원장동무니까? 수고했습니다. 세쌍둥이들의 몸무게가!... 그만하면 꽤 많은것 같습니다. 이름이 충일이, 폭일이, 탄일이... 허허 총폭탄이라!...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시켜야 합니다. 잘 돌봐주도록 하시오.》

김형순은 눈굽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 7 월 12 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사경에 처한 본계연선지구의 창도마을 세쌍둥이들을 위해 비행기까지 보내주시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는 온 나라가 너무도 큰 슬픔과 비애속에 잠겨있던 때였다. 친어버이 위대한 사랑이 있어 창도마을 세쌍둥이들은 구원되었던것이다.

송수화기를 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시 김형순에게 물으시였다.

《돌아오던 길에 하산농장에 들렀습니까?》

《예, 그 농장은 벌써 매년도에 쓸 자급비료를 거의 다 마련해놓았습니다.》

하산농장은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무척 관심을 가지고계시는 농장이였다. 하산벌에 찍혀진 수령님의 로고를 잊지 못해하시는 그이의 심려를 생각하여 김형순은 그쪽으로 에돌아왔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그들은 제일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던 자급비료문제를 푸는데 달라붙었습니다. 수령님의 교시대로 땅의 지력을 높이려고 온 마을이 떨쳐났던것입니다. 리당비서는 청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풀베기 전투를 벌리고 관리위원장은 달래천기슭에서 수백톤의 니탄을 파냈습니다. 열성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यो.》

그이의 눈빛은 부드럽게 빛났다.

《하산농장이 일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도농촌경리위원장들을 연백벌에 보냅니다. 하산농장도 참관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매년농사문제를 가지고 농민들과 담화도 하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게 합시다.》

《알았습니다.》

김형순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또 전화종이 울렸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전화를 받으셨다.

《아니, 그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입니다. 본인이 생일 여든돛상이 다 뭐가고 필적 된다는데 꼭 상을 차려주도록 하시오. 수령님은 언제나 사회주의조국을 찾아오는 해외교포들을 따듯이 맞아주곤 하셨습니다. 더우기 손선생은 수령님과 땀해야 땀수 없는 오랜 친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를 마친 그이께서는 잠시 무슨 생각엔가 잠기셨다가 김형순한테로 돌아서시였다.

《형순동무, 한가지 일이 더 있소. 매일 덕산군에 좀 나가봐야겠소. 제기된 자료를 보면 덕산군

에서 최근 몇해사이 많은 일을 해놓았소. 그곳은 동무도 인연이 깊은 교장이지. 시간이 있으면 서중리의 오보배어머니도 만나보오. 무척 기뻐할거요...》

일순 그이의 얼굴에 한가닥의 아름다운 추억의 미소가 떠올랐다. 김형순이 나들문으로 향하는데 다시 그이께서 부르시였다.

《형순동무, 가던 길에 원산에도 들러보시오. 송도원에 가면 시인 위로노브가 있을거요. 그는 태평양함대의 해병으로 조선해방전투에도 참가하였던 오랜 공산당원 작가요. 자기 수령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했던 그는 쓰팔린을 형상한 좋은 글도 많이 써냈소. 2 년전에는 수령님에 대한 장편실화를 써서 탄생 80 뉘에 올리였소. 며칠후면 그의 생일 65 뉘이 되는데 잘 돌봐주도록 하시오.》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현듯 목이 짝 메여오는것을 느끼시며 말씀을 끊으셨다. 그이께서 사회주의가 무너진후 락엽처럼 흩어진 로씨야작가들의 운명이 가슴아프시였다. 혁명의 지조를 지켜 자결한 파제예브로부터 오늘의 저 위로노브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벌써 50 년대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퍼그나 격하신 어조로 뇌이시였다.

《그는 오늘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자기의 로년을 바치고 있는 견결한 공산주의자요! 나의 인사를 전해주시요...》

## 2

김형순은 닷새만에 덕산군에서 돌아왔다. 저녁 차에 내린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사업보고를 드리기 위해 곧바로 집무실을 찾아왔다. 대기실에 들어선 그는 전에 없이 많은 일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있는것을 보았다. 김형순은 벽가에 주련이 놓인 상무대앞의 소파로 걸어갔다. 그는 자리에 앉아 이제 그이께 보고드리게 될 사업내용들을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기실 덕산군에 대한 실태료해는 반영된 자료보다 성과가 더 컸다. 그는 한시바삐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뵈고싶어 가슴이 초조해지는것을 느꼈다. 시간이 갈수록 대기실에는 그이를 찾아오는 일꾼들이 더 불어나는듯 싶었다.

드디어 김형순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자리에 서 일어나 옷매무시를 정중히 하고 서류가방을 들었다. 김형순이 앞서 집무실에 들어갔던 인민무력부의 장령이 나오자 그는 갑자기 심장에 콕 물려드는 환희의 진폭을 느끼면서 집무실에 들어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열심히 글을 쓰시다가 고개를 드시였다. 집무탁우엔 원고들이 쌓여있었다. 저 원고들은 필경 그 어느 시인이

또 그이께 올린 작품일것이다. 그이께선 아무리 바빠도 시인들이 올리는 작품들을 다 보아주시고 손수 가필까지 해주신다는것을 김형순은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내심 그는 불만스러운 생각을 털어버릴수 없었다. 도대체 제정신들인가, 저렇게 두터운 원고들까지 그이께 올리니 한순간이나 마음놓으시고 휴식인들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인지 이 며칠새 그이의 모습은 퍼그나 수척해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형순에게 쏘파를 권하시고 자신께서도 허물없이 그의 옆에 앉으시었다.

《수고했습니다. 어디 갔다온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놀라운것은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이 한달새 군안에는 영영 없다고만 생각했던 석탄을 찾아낸것입니다.》

《석탄을 찾아냈다... 그것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일을 주인답게 하는 그 군당책임비서도 석탄만은 내줘야 한다면 우에다 제의서를 내고 탄광 지배인들을 찾아다니군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무척 기쁘시였다.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눈에 띄인 변화들을 보게 된것이였다. 자신께서도 몇번 만나본 일이 있는 그 군당책임비서의 보위색작업복과 수수한 비닐보자기에 씌던 점심밥박이 눈앞에 떠오르시였다. 몇해전 가을 북부내륙지방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친 그이께선 벼가울이 한창인 서중천강변길을 지나시게 되였다.

때는 점심시간이어서 논머리엔 기발들만 펄럭이고있었다. 서중천기슭의 논밭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들국화가 다문다문 핀 논머리에서 두사람이 이마를 맞대고 앉아 점심을 먹고있는것을 발견하시였다. 그이께선 승용차를 조용히 멈춰세우게 하시였다. 그러자밤을 먹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황황히 그이한테로 달려왔다. 군당책임비서와 그의 운전사였다. 그이께선 그날 무척 감동을 받으시였다. 이 소박한 차림새의 군당책임비서는 늘 그렇게 아래단위에 내려갈 땐 점심밥박을 가지고다니며 농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것이였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것이다. 간부혁명화에 대한 그이의 관심과 요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였다.

지금 김형순의 보고를 들어보면 군당책임비서가 작업복을 벗을새 없이 모든 일을 앞장에서 서서 조직하고 직접 제일 힘든 일을 맡아 해제끼군했던것이다. 군의 주인답게 모든 군당책임비서들이 이렇게 당정책을 관철할 때 세상에 못해낼 일이 무엇이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시에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드시는것을 느끼시였다. 수령님의 유혼의 말씀들이 귀전을 뜨겁게 울렸던것이다. 수

령님의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 봉쇄를 하겠으면 하라, 우리는 봉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신념에 넘쳐하시면 준절한 말씀이 집무실에 울리는것만 같으셨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생각에 잠기시여 방안을 거니시였다.

《그래 오보배어머니한테는 들려보았습니까?》

그이께선 김형순앞에서 걸음을 멈추시며 이렇게 물으시였다.

《예, 오보배어머니 건강합니다. 너무도 옷자락을 붙들어서 할수 없이 하루밤 자고 왔습니다.》

《그저 참 잘했습니다. 혼자 적적해할거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오보배의 얼굴을 그려보시였다. 이젠 퍼그나 몰라보게 됐을것이다.

불현듯 오보배와 함께 서중천강변에서 논풀이를 하시던 일이 눈앞에 삼삼하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시기 위해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시기였다. 동유럽에선 농업의 집단경리를 허물기 위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있었다.

오보배...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무엇보다 새땅을 더 찾아내려고 삼복의 피약벌아래서 아글타글 애쓰던 녀성작업반! 얼마나 지혜로운 녀인이였던가. 덕산군은 돌이 하 많아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어있었다. 군의 책임일군들은 농사보다도 부차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았다. 식량을 다른 곳에서 가져다 먹는것을 그들은 응당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 이런 실패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부침땅면적을 찾아주시려 서중천강변에까지 이르시였다. 그곳에서 만나신 녀인이 바로 오보배였다. 오보배는 돌을 취내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모아다 평평하게 고누고 그우에 흙을 퍼는 방법으로 논풀이를 하는것이였다. 누구도 이 방법의 우월성을 선뜻 깨닫지 못하고있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오보배의 논풀이방법이 너무 기특하시여 그 논을 온돌식논이라 이름지여주시며 군의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보시오. 왜 덕산사람들이 이 강변에 수백정보의 하천부지를 두고서도 대대로 부침땅이 없어 고생했습니까? 그것은 논풀이 방법에 걸렸기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 강변에서 돌을 취내고 논을 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랑습피해를 막지 못했고 장마가 지면 지하수위가 높아 인차 물이 차서 논밭이 피해를 입군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무처럼 하면 일없습니다. 이 방법은 과학적입니다. 수백년 지속되던 기성관념을 뒤집어 놓은 이 녀성동무야말로 혁신자이며 우리의 선생입니다!》

그이께서 발견하시고 내세워주신 그 창조의 작은 돌밖에 없던 덕산땅에 해마다 금나락이 물결치게 하였다. 새싹을 발견하시며 그것을 귀중히

여겨주시는 그이의 비상한 통찰력과 인덕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덕산땅의 전변을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그 어머니가 이젠 칠순이 넘었을거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에 생일 일흔뎡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일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애로움과 육친의 정에 넘치신 그이의 물음에 김형순은 감동을 금치 못하며 대답을 올렸다.

《마을에선 오보배를 <목장지배인>이라고 부릅니다. 돼지, 염소, 토끼, 오리, 닭, 소까지 기릅니다.》

《아니, 소까지 기른단말이요?》

그이께선 의아한 눈빛으로 김형순을 바라보셨다.

《예, 그는 관리위원장시절부터 초급일꾼들이 술선 부림소를 맡아 관리해야 한다면 황소를 먹이곤 했는데 지금도 그 습관이 붙어 분조의 소를 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를 잃어버리고 애간장이나 태웠다고 합니다.》

《소를 잃어버리다니?》하고 반문하시는 그이의 음성엔 퍼그나 긴장감이 느껴지셨다.

《분조의 한 젊은이가 오보배가 관리하는 부림소를 몰고 읍에 갔다오다가 그만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읍이 몇십리 길이어서 도중에 소를 먹이느라 풀밭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까?》

《은 작업반이 펼쳐나서 이틀이나헤맸으나 끝내 못찾고 손땀들을 놓고 앉았는데 불쑥 주둔부대의 려단정치위원이 두 병사를 앞세우고 소를 끌고왔다고 합니다. 코루데도 다시 하고 소방울도 새것으로 달아가지고 백수십리 밤길을 임자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흥분하시어 가볍게 차탁을 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김형순은 그이께서 왜 갑자기 흥분하셨는지 몰라 두눈을 슬쩍거렸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빠른 걸음으로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시였다. 창문가까지 이르시였다가 다시 김형순의 앞에 다가오신 그이께서는 물으시였다.

《좀더 자세히 말해보오. 그 정치위원이 어떻게 그 마을에 나타났습니까. 소는 누가 어떻게 찾았습니까?》

김형순은 여담으로 꺼냈던 소이야기가 이렇게 번져지리라 미처 생각못했던지라 얼굴이 벌겍게 상기되어 떠들거렸다.

《저 사실은 그 려단정치위원이 중대에 내려갔다가 난데없이 병실마당에 황소 한마리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전사들의 말인즉 사흘전에 떠돌아다니는 임자없는 소를 붙잡아 맨것이라는것이였습니다. 려단정치위원은 병실로 소를 끌고 올것이 아니라 즉시 임자를 찾아왔어야 한다면 병사들을 꾸짖고나서 자신이 직접 두명의 전사를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로 헤매던끝에 오보배를 만나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를 빌었다?!...》 이렇게 뇌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음성은 갈리셨고 뜨거운 감동에 젖어있었다.

《형순동무,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에 이런 구절이 있소.

<가마속의 물은 끓다가도 없어진다...

원천이 없거니-

허나 내물은 대하를 이룬다.

동무들!

우리는 대하가 되련다 바다가 되련다...>

그래 어느 장면인지 기억납니까?...》

《네. 기억납니다.》

《우린 어린 시절에 그 서사시를 전부 외웠댔소!

지금도 내 귀전에는 식량공작을 나갔다가 왜놈 목재소의 소를 끌어온 유격대원들에게 이 굴레를 보라, 이 소는 조선농민의 소다... 임자에게 소를 돌려주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던 수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소. 우리의 군민일치는 바로 그런 깊은 력사적뿌리를 가지고 있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소임자를 찾느라고 수백리를 헤매다냈을 려단정치위원과 두전사의 모습을 그려보시였다. 불덩어리처럼 뜨거운것이 가슴을 짹채우는것을 느끼시였다. 기쁘시였다. 즐거우시였다.

《오보배랑 마을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이께서는 다시 물으시였다.

《은 마을이 펼쳐나 세상에 우리 군대가 제일이라며 그들을 저저마다 집으로 초청하며 법석들 끓었습니다...》

《그랬을거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거요!》

흥분하여 뇌이시는 그이의 안광엔 환한 미소가 흘러넘쳤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제일 무서워하고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위력한 무기는 일심단결입니다. 그 부림소 한마리를 찾아주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군대는 다시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앞가슴에 팔을 엮으신채 생각에 잠겨 방안을 거니시다가 번쩍 고개를 드시며 결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나는 농장의 소를 찾아준 그 려단정치위원과 전사들에게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군인들의 정신상태가 얼마나 좋습니까!》

김형순은 놀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특별감사라니?... 범상하게만 생각했던 그 하나의 미담이 경애하는 그이께 이렇듯 기쁨을 드리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김형순이였다. 놀라운 인차 격동된 감정으로 뒤바뀌었다. 그이의 심원

한 뜻이 한가슴에 안겨왔던 것이다. 아무리 사소하고 범상한 일인것 같아도 그이의 예지의 넘친 사색을 거치기만 하면 그것은 한순간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같은 일로 변모되기 일쑤였다. 김형순은 그것은 한두번만 체험하지 않았었다.

### 3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번에 만나본 위로노브도 우리의 일심단결이 제일 부럽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해 그 일심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위로노브말이요? 그래 그가 건강합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활기를 띠우시며 반문하셨다.

《위로노브는 놀라운 정력을 가지고 서사시를 창작하고있었습니다.》

《기쁜 일이요! 서사시라... 격동하는 시대는 언제나 영웅서사시를 요구했지요. 조기천이나 마야 콤포스끼같은 열혈시인들이 많이 출현하는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사색과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김형순의 눈앞에는 친애하는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여 이야기를 하던 위로노브의 모습이 떠올랐다. 뜨거운 모래볼... 가슴에 와 부서지던 흰 파도... 갈매기 날아에는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위로노브는 말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니신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나의 서사시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랑앞에서도 장검도 휘여든다고 했는데 이제 그이의 사랑은 사회주의의 좌절과 제국주의 마지막 광란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고야말것입니다.》

작별을 앞두고 다시 바다가에 나간 그들은 조개구이를 하면서 생활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당일군입니다! 나에게 당신과 같이 당일군이었던 고향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병신이 되어 모스크바거리를 방황하고있습니다...》

그 고향친구는 쎄몬이란 이름을 가진 주당농업비서였다. 어느날 위로노브가 거리를 지나가는데 《나쇼날식당》문이 와지끈 하더니 누군가 짐짝처럼 밖에 내동댕이쳐졌다. 그는 한쪽 다리가 없는 불구자인데 지팡이를 찾으려고 눈우를 기여갔다. 위로노브는 그에게 지팡이를 집어주었다. 《고맙소... 고맙소...》하며 중얼거리던 불구자의 두눈이 딱 굳어지고말았다. 입술은 경련이 인듯 푸들 푸들 떨렸다. 위로노브도 그를 알아보았다. 쎄몬 표즐로브... 그는 한때 제노라 하는 리론가이기도 했었다.

쎄몬은 50년대 하리코브종합대학시절부터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수정주의리론을 들고나온 일부

학자들의 리론을 추종했다. 그후 주당농업비서가 되자 그는 물질적자극이요 경제의 효률성이요 하면서 농촌에서 집단화를 포기하고 소유의 다양화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여러 신문들에는 《개편》의 물결에 편승하여 쓴 그의 론문들이 실렸다. 그는 농업생산의 장성은 소유관계와 경리형태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적소유, 주식, 임대 등 소유형태의 다양화를 주장하였다.

《쎄몬!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위로노브는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쎄몬의 눈귀에는 서글픈 눈물이 고였다.

《이건 말하면 자본주의복귀가 나에게 준 선물일세...》하며 그는 병신다리를 가리켜보였다.

《자본주의가 복귀되자 나 역시 일자리를 잃었네. 한때 당일군이였다는 딱지가 붙었네. 할수 없이 농촌으로 돌아다니며 장사를 시작했지. 하루는 개인농들한테서 감자와 도마도를 사서 자동차에 싣고 도시로 오다가 강도들의 습격을 당했네. 자동차는 도랑에 구겨박히고 나는 적재함에 깔려 다리가 부러지고말았네...》

친구는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다. 후회의 쓰디쓴 눈물이 량볼로 흐르고있었다...

김형순의 이야기를 들으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차탁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리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가슴이 답답하시고 그 무엇인가 배반당한듯한 분한 생각이 갈마드는것을 느끼시였다. 그이께선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그 주당농업비서는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진셈이요. 결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란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지기면 승리요 버리면 죽음 밖에 차례질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당농업비서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함정을 파는 일에 열을 올렸단말입니다.》

김형순은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한번은 위로노브가 어느 농촌마을로 갔는데 두 농민이 삽날을 휘두르며 미친듯이 싸우고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한작업반에서 이마를 맞대고 정당수확고를 론하던 그들이 남의 터밭에 계사니를 내놓았다고 류혈이 랑자하게 싸웠답니다.》

농민들과 담화해보니 그들은 자기들은 사유화를 요구한적이 꿈에도 없다고, 개편주의자들의 달콤한 약속에 속아 그 모양이 됐다고 통탄했다고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집무탁으로 가시더니 당보를 한장 집어드시였다.

《요즘 신문들에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리는데 교훈적인것들이 많습니다. 이것 보오. 여기에 흥미있는 기사가 실렸소.》

농촌들에서 집단경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소. 로씨야에선 수천개의 농장들이 이

전의 경영형태를 유지하고있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농장이 해체되면 우리는 또다시 한뼘기의 땅도 가지지 못한 노예로 될것이라고 항의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말씀을 끊으신채 한동안 창밖을 내다보셨다. 이윽고 그이께서 확신에 넘쳐 말씀을 이으시었다.

《집단주의, 사회주의 길만이 살길이며 인류가 나아갈 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사회주의재생은 불가피합니다!》

방안을 거니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득 커다란 지구의앞에서 절음을 멈추시었다. 한동안 위도와 경도를 더듬으시며 사식의 바다를 헤쳐가시던 그이께서 가볍게 지구의를 다쳐놓으셨다. 그러자 벗어섰던 지구의가 모로 비스듬히 기울어지며 동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갈색의 고원들과 녹색의 저지와 평원들, 푸른 물결 넘실거리는 태평양과 인디아양의 진주 가득한 섬나라들, 눈 덮인 빠미르고원과 중근동의 부유한 석유지대들이 펼쳐졌다.

동구의 광활한 흑토지대들과 향기질었던 장미계곡들이 천천히 흘러간다. 볼수록 아름다운 행성이었다. 무한대한 이 우주여서 이렇듯 아름다운 행성이 또 어데 있겠는가! 지구의앞에 서계시는 그이는 전세계를 한가슴에 안으신듯 거룩해보이신다. 김형순은 그이를 우러르며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미소어린 눈길로 김형순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행성이 무엇보다 아름다운것은 자주성을 위한 수천년에 걸치는 인간의 투쟁이 수놓아졌기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역시 그것으로 하여 아름다울것입니다.》

김형순은 그 순간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 행성을 지나간 수천년의 력사와 이야기를 나누시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지금 분명 그이께서 듣고계시리라. 저 고대로마의 화강석성벽들을 밀뿌리채 뒤흔들던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군의 웨침소리들과 중세기를 잠에서 깨우던 화상당하는 부르노의 진리의 목소리를, 유럽까지 깃몽개던 칭기스한의 말발굽밑에서 어떻게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일떠섰는가를... 사회주의의 첫 공성이 오르던 두툼한 책의 책갈피 번지지는 소리들이 빠리콤폴의 첫 로동계급정권이 탄생하던 소리며 10월의 《아브로라》의 장엄한 포성을!... 력사는 끊임없이 앞으로만 전진해왔다. 꺼꾸로 흐를수 없는것이 력사의 흐름일것이다. 고대의 어느 한 철학자는 지레대와 지지점을 달라, 그러면 나는 지구를 들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과연 과학적환상으로만 남았는가.

벌써 지구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끄시는 궤도를 따라 21세기를 들어서고있다.

이것이 지구를 들어올릴것이나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김형순은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안개가 푸근히 낀 밤의 검푸른 바다를 창문너머로 내다보며 김형순은 위로노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반혁명이 휩쓴 거리, 포석도를 적신 그 류혈을 씻어내듯 이해 여름의 첫 소나기가 쏟아졌다. 위로노브는 옛 주택구역골목의 어느 한 석조건물의 현관에 들어섰다. 그는 가슴을 만져보았다. 가슴속에 품은 소책자들은 다행히도 젖지 않았다.

그는 흥분된 가슴을 진정하려고 애쓰며 천천히 3층으로 올라갔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담배연기와 열기 띤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벌써 몇달째 이런 론쟁만 거듭하고있소. 우리에게 투쟁과 단결의 기초가 없단말이요... <무엇을 할것인가?> 우린 다시 론쟁의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위로노브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출로를 모색하고있는 이전 공산당원들인 기사들, 로동자들, 대학교수들인 자기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었던것이다.

《무엇을 할것인가구요? 그러니 이런 물음을 던지던 체르니썬스끼의 시대로 되돌아간단말입니까...》 비꼬듯하는 누군가의 목소리... 《허무주의요. 뿌리깊은 로씨야의 정통적인 허무주의요. 사상과 행동의 제약은 력사적으로 허무주의를 낳았지요. 사회주의좌절은 더 큰 허무주의를 낳고있소... 어디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까?》

안타까움과 신망에 찬 목소리가 방안으로 먼저 날아들었다.

《동무들! 길은 여기에 있소!》 위로노브는 방에 들어가며 가슴속에 소책자들을 꺼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인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이었다.

위로노브는 친구들에게 소책자들을 나눠주었다.

방안엔 숙연한 정적이 깃들었다. 책장번지는 소리들만 이따금 들렸다. 위로노브는 입을 열었다.

《나는 영광스럽게도 평양에 가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80돐 행사에도 참가하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도 받는 행복을 지니였습니다!》

순간 방안에는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졌다.

《동무들! 사회주의는 좌절되지 않았소. 다만 참과 거짓이 갈라졌을 따름이요. 그 력사적인 평가는 바로 **김정일**동지께서 내리엿소. 친애하는 그이의 명석한 두뇌와 해박한 지식, 심오한 철학적 사색앞에서 나는 그저 경탄할수밖에 없었소. 그이께서는 너무도 소박하고 다정하시었소. 나는 공산주의를 향해 70여년을 항행하던 우리의 <2

천2백만톤급배>의 침몰을 두고 너무도 분하여 울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배에 이런 혁명의 타수가 키를 잡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가슴을 찔던 것이요.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우리들이 탈선된 항로로 항행하고있다는것을 간파하시고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경종을 울리고 앞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사회주의의 일시적좌절의 교훈은 그것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더 큰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조해낼것이요. 빠리꿈툼은 70여일간 존재했지요. 빠리꿈툼의 교훈에서 출항한 10월혁명 70여년간 존재했습니다. 70여일보다 수백배의 긴 나날입니다. 70일... 70년... 이 기하급수적인 수자들은 역사의 그 매개 수레바퀴들의 반경과도 같습니다.

역사의 라선형적발전이란 바로 이런것이 아닐까요?

평양선언! 벌써 출항의 고동소리는 높이 울렸습니다. 혁명의 중심은 평양으로 옮겨졌습니다. 행성은 평양을 축으로 21세기를 향해 맹렬히 발전과 공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세계공산주의운동이라는 커다란 배는 승리적인 전진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혁명의 로숙한 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사령탑에서 키를 잡으시겠습니다!...

모스크바의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은 이렇게 태어났다. 류혈과 상처의 아픔들을 씻어낸 여름의 따뜻한 첫 소나기... 먼 우뢰... 김형순의 이야기는 끝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있는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을 눈앞에 그려보시었다. 다시한번 사상의 힘과 생명력을 두고 깊은 사색에 잠기시었다. 그렇다. 사상의 힘이란 거대한것이다. 진보적인 사상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며 우주에 빛나는 별빛이며 행성의 아침해빛이다. 사회주의사상! 이것이 더욱 고귀한것이다.

모든것은 사상으로 시작되고 사상의 승리로 결과를 맺을것이다. 사상을 죽이는자는 2중의 살인자라는 명언이 있다. 사회주의사상을 말살하려고 적들은 지금 별의별짓을 다하고있다. 사회주의 배신자들, 제국주의어용나팔수들의 그 비렬한 반사회주의책동을 역사는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오늘 적들과의 대결의 최첨단은 기실 이 사상리론 분야일것이다.

뒤집을 지신 두주먹을 그러쥐었다 폈다 하시며 **김정일** 동지께선 오래도록 집무실을 거니시었다.

## 4

금수산의사당을 가까이 하자 승용차는 속도를 늦추었다. 새벽이슬에 축축히 젖은 가로수들이 전조등에 드러났다가 뒤로 흘러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멀리 금수산의사당이 앞시창에 확 안겨들자 불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며 좌석등받이에서 몸을 일으키셨다.

며칠전에도 이곳을 다녀가셨지만 아버지수령님이 그리우시어 집필하던 원고를 집무탁에 퍼놓으신채 어뜩새벽 또다시 금수산의사당을 찾으신 그 이이시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발자국소리를 들으시고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시던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마주 나오실것 같은 예감이 느닷없이 갈마들어 가슴이 설레이시었다.

아, 수령님!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아버지수령님! 그 곁쌍인 피로를 풀어드리지 못하고 뜻밖에 수령님을 영결한것으로 하여 더욱 가슴이 아프신 **김정일** 동지이시었다. 그 마음은 이제 한생 경애하는 그이의 가슴을 아프게 할것이다.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걱정되시어 이제 금시라도 일을 보실듯 현지지도의 옷차림 그대로 잠간 눈을 붙이고 계시는듯한 수령님의 모습이 뵈고싶고 수령님과 끝없이 마음속이야기도 나누고싶으시어 그이께선 벌써 그 몇번을 이곳에 찾아오곤하셨던가!

승용차는 큰 길에서 벗어나 미끄러지듯 소리없이 금수산의사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접어들었다.

그이께서는 문득 저만치 앞 길옆에 화물자동차 한대가 서있는것을 발견하시었다. 승용차가 자동차옆을 스치는 순간 그이께서는 화물자동차가 발동을 끄고 멈춰선것이며 여기 건설에 동원된 군대들의 차가 아니란것을 알아보시었다. 뿐만아니라 컴컴한 운전칸에 두사람이 앉아있는것도 띄어보시었다. 무슨 자동차가 이 신새벽에 금수산의사당입구에 채 못미처 길옆에 멈춰서있는지 그 까닭을 알수 없으시었다.

승용차는 어느덧 야외등의 현란한 불빛아래 만수국과 불꽃들이 떨기떨기 피어있는 길가에서 멎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계시다가 좌석등받이에서 몸을 일으키시었다.

승용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잠시 호주머니에 두손을 깊숙이 찌르신채 밤의 정적에 귀기울이시며 말없이 서계셨다. 어데선가 기관총의 연발소리같은 돌을 쫓는 기계의 마찰음이 따따따- 밤의 고요를 뒤흔들다가 잠잠해지고말았다. 시험사격과도 같은 그 소리에 뒤이어 여기저기서 화강석을 때리는 마치소리들이 경쾌하게 들려왔다. 엇그제 이동해온 군부대들이 벌써 일에 착수한 모양이였다. 금수산지구를 주체의 대성지로 꾸려 위대한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려는 그이의 필생의 소원은 벌써 실천에 옮겨 지고있었다. 달은 없었으나 하늘에서 별들이 어찌나 여물어 빛을 뿌리는지 여기저기 무저놓은 화강석석재들이며 철근무지며 세멘



트야적장들, 건설자들이 전개한 야외천막들의 거뭇거뭇한 룡판들이 어둠속에 우뚝이 드러나보였다. 그리고 어텐가 멀지 않은 목란꽃나무들과 장미덩굴이 어우러진 관목덤불 저쪽에서 풀벌레들이 조용히 쓰르럭거렸다.

별안간 가냘픈 풀벌레소리들을 짓누르며 꺾-꺾거리는 계사니들의 울음소리와 푸드득거리는 날개짓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지나오셨던 길쪽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쪽으로 발끝을 옮겨놓으시었다. 밤의 소음이란 엄청난 공명을 일으키는것이어서 그곳까지는 퍼그나 멀었다. 그 계사니들의 울음소리는 바로 길옆에 멎어서있는 그 자동차적재함에서 들려오고있었다. 두사람의 거뭇거뭇한 형체가 적재함앞에서 서성거리고있다.

《그런데 왜 큰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가요》애된 청년의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 군대의 상관을 만나지 못한게다...》 답배를 빼금빼금 빨던 사나이가 느슨하게 대답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대뜸 그들이 군인 건설자들을 위해 원호물자들을 싣고온 인민들이라는것을 알아보시었다.

《아버진 왜 엇그제 큰어머니와 다뵈어요?》

《허허, 뭐 별일은 아니였다. 군부대가 이동했다는 바람에 내가 그만 돌아가자고 말했다구 노염을 타더구나...》

《그럼 어찌했니. 사료는 다 떨어졌지. 게다가 휘발유까지 바닥이 났으니 오도가도 못하구. 짐승들은 다 굶겨죽일것만 같더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가벼운 기척을 내시며 그들한테로 다가가시었다.

《수고들 합니다.》

《저 뉘신지...?》

어둠속이라 두사람은 경애하는 그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바람이나 쐬려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무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린 덕산군에서 왔습니다.》

석섬한 목소리가 점직해하며 대답을 올렸다.

《허, 덕산군이라니? 어떻게 그먼곳에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까?》

그이께선 순간 오보배를 생각하시며 그를 바로 여기서 만나볼것 같은 기쁜 예감에 이렇게 다루쳐 물으셨다.

《우린 벌써 사흘째나 저 돼지들과 염소, 계사니들을 싣고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닌게아니라 그이의 예감은 빗나가지 않으셨다.

《수고했습니다. 동무들은 서종리에서 왔구만!》

그들은 놀라움에 겨워 멍하니 서있었다. 이윽고 아버지가 한결음 그이께 다가서며 입을 열었

다.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알고계십니까?!》

《허허, 좀 알고있지요. 그래 군대들이 찾아준 소는 어떻습니까? 풀을 잘 먹습니까?》

그이께선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쾌활한 어조로 물으시었다. 아버지는 더 어쩔줄 몰라했다.

《예...예. 소는 기름이 번지르하게 살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큰집과 작은 집에서 기르던 돼지 일곱마리와 염소 세마리, 열마리의 계사니들을 싣고 뒤늦게나마 인사를 차리자고 군대들을 찾아갔는데 그만 부대가 평양으로 이동해왔다는 바람에 다시 이렇게... 저에는 표창휴가온 제 아들녀석인데 평양으로 간다니까 이곳 건설장에서 휴가를 보내겠다구 물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감동을 금치 못하시며 두사람의 손들을 어둠속에서 찾아내어 따뜻이 잡아주시었다. 아버지는 더욱더 당황하여 몸둘바를 몰라했다.

《아니 훌륭한건 우리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인민군대들입니다. 그 중성별을 네알씩 박은 고급군관이 저의 형수에게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모두 울었습니다. 온 마을이 장군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김정일** 장군님의 은덕으로 우리 덕산사람들도 흰쌀밥을 먹구 집집마다 짐승들도 많이 길러 옛날 산골지주 부럽잖게 배를 두드리며 잘 살고있습니다. 그까짓 소가 한마리 뵈니까. 설사 군대들이 잡아먹었대 두 우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놓고 일하며 살수 있게 나라를 철벽으로 지켜주는 그 은공을 생각하면 뭇이 아깝겠습니다. 이녀석두 집에 와서 우리 장군님군대가 제일 강하니 마음놓고 쌀이나 광광 생신하여 사회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력설합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점직해진 아들이 손을 뺄 내저었다. 그러더니 큰어머니를 찾아보겠다며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애, 얼른 갔다오너라...》 하고 아들의 뒤에 대고 소리치는 아버지의 목소린 흥분에 떨렸다.

그는 정비를 해보려는지 기관실덮개를 열어젖혔다. 거기선 아직 채 식지 않은 수증기냄새와 열기가 확 풍겨왔다. 어느덧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자동차의 룡판이 뚜렷이 드러났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천천히 자동차주위를 돌아보시었다. 이들이 얼마나 먼길을 달려왔는가를 말해주듯 자동차번호판이며 뿌영게 먼지가 앉은 전조등이며 바퀴가 말라붙은 한점의 붉은 진흙까지 그 모든것이 다 그이의 가슴을 몽클하게 만들고 눈시울을 뜨겁게 하시었다. 집에서 애지중지 기르던 집짐승들을 다 자동차에 싣고 먼 길을 떠난 이 소박하고 의리심이 깊은 사람들이야말로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 시간을 내

여 찾아가지고 내세워주시며 선생으로, 하늘처럼 떠받드시던 그 인민들이었다. 그 멀고 먼 길에서 고생인들 얼마나 했겠는가. 이들을 두고 돌아서자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시었다. 기관실쪽에서 울리는 달가닥소리가 밝아오는 새벽대기를 고요히 흔들고있었다. 어둠과의 마지막 작별인듯 풀벌레소리가 똑 그치자 어데선가 두런 두런 숨가쁜 말소리들이 들려왔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전사의 손에 부축되어 쟁 걸음을 놓고있는 키가 자그마한 늙고 섬약한 너인의 모습을 알아보시었다. 자동차로 다가오던 늙은 너인은 문득 걸음을 멈추며 그자리에서 주춤거렸다. 너인은 눈이 부신듯 두눈을 감았다 뜨며 손등으로 비비었다. 30여년세월 한시도 가슴속에서 떠나본적 없는 그이가 분명하시였다. 이런 경우 늙은이들의 특감이야말로 빗나가지 않는 법이다. 방금전 그 누구인가 자기들의 일을 손금보듯 알고계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예감이, 그분밖에 자기들의 일을 알 사람이 없다고 단정했을 때 가슴을 휩쓴 그 걱정이 다시금 과도처럼 심장을 쿵쿵 두드렸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나 현실로 믿기엔 너무도 엄청난 일이어서 오보배는 한손으로 심장을 부여잡으며 비칠거리었다.

《큰어머니, 왜 그래요?》

《명삼아, 너는… 너희들은 그렇게도 눈이…》

오보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제사 젊은 병사는 자기들한테로 다가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알아보았다. 병사는 얼른 오보배곁에서 물러서며 구두뒤축이 딱 소리나게 차렷자세를 하고 씩씩하게 웅했다. 애된 소리가 아니라 쇠소리가 났다.

《최고사령관동지! 상등병 최명삼, 표창휴가를 받고 여기 평양에…》

《상등병동무! 알고있소. 우린 벌써 구면이요. 허허…》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병사의 흥조어린 두볼을 일별하시며 오보배곁에 만면에 환한 미소를 보내시었다.

《어머니, 먼길을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리더단정치위원을 찾았습니까?》

오보배는 물기에 젖은 두눈을 연신 습벅거리며 오매에도 그림던 그이를 우러러보고 또 우러르고 있었다.

《장군님! 그 리더단정치위원의 부대는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건설장에…》

오보배는 목이 메어 말끝을 어물거지 못했다.

《제가 리더단정치위원을 대신하여 어머니의 그 성의를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장군님! 고맙습니다! 그러잖아도 우린 장군님을 찾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장군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싶었습니다.》

어데선가 쟁그랑 쇠불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운전수인 전사의 아버지가 나사틀개를 떨

군채 어리둥절해서 이쪽을 바라보고 서있었다.

오보배는 경애하는 그이의 두손을 마주잡은채 놓을줄 몰랐다. 손등에는 뜨거운 눈물방울이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도 한뼉 땅을 가꾸느라 거칠어진 오보배의 손을 어루만지시었다.

《건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기운이 납니다. 어머니가 구워주시던 서중천의 산천어생각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낮의 너럭바위, 농민들과 함께 나누셨던 쉼기밥이며 오보배가 구워온 산천어토막들… 하많은 세월의 추억이 순간에 그이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다.

《장군님, 그까짓 산천어가 무슨 별식이라고…》

오보배는 감동깊은 눈길로 장군님을 우러르며 말씀드렸다.

《장군님! 얼굴이 썩 추가셨습니다. 요즘 방송을 들어보니 저 동유럽에서 사회주의를 망쳐먹은 배신자들이 사회주의가 어찌구저찌구 한단데 제간놈들이 도대체 사회주의가 뭔지나 알고 그러는지 원… 걱정마십시오. 우린 오직 생활을 통해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제일이구 장군님의 인덕정치가 제일 좋다는것밖에 모릅니다.

수령님도 가시고 이젠 장군님 한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장군님께서 만년장수하셔야 우리 백성들이 기를 펴고 땃땃이 살아갈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이께서는 뜨거움에 젖으시여 말씀하시었다.

날은 이젠 활짝 밝았다. 꽃나무에 맺혔던 새벽이슬을 털어버리며 아름다운 새들이 이 뜻밖의 사연을 전하기라도 하려는듯 대동강쪽으로 날아갔다. 동녘하늘에 떠있는 목화송이같은 구름의 가장자리가 먼저 붉은 노을에 물들기 시작하더니 미구하여 하늘전체가 노을에 젖어 하나의 붉은 기폭처럼 타번지기 시작하였다.

《어머님! 우리 함께 군인건설자들을 찾아갑시다. 상등병동무, 아버지와 같이 발동을 거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노을이 타번지는 동녘하늘을 배경으로 거연히 솟아있는 금수산의 사당에 시선을 보내셨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뿌리시는 수령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보신 그이의 시선이 한순간 허공에서 굳어지고말았다. 그 미소는 력사와 그리고 우리 인민과 함께 영원한 태양이 미소였다. 영생의 모습이였다.

(수령님께서 내세워주신 이 좋은 인민을 앞세우고 **김정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신포향, 태성할머니… 장산리녀성들, 생활은 력사의 엄혹한 순간마다 이런 혁명적신념의 체현자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고있다는 생각이 드셨다.

그이께서 이름없는 소박한 산골녀인의 가슴속에서 고래치는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의 목소리와 장엄하고 도도한 력사의 흐름을 보고계시었다. 뜨겁고 숭고한것이 활화산처럼 끝없이 가슴속에

서 솟아오르고 분출하는것을 느끼시였다.

그이께서는 배심이 든든하시였다. 무엇이, 그 누가 우리 인민의 이 위대한 전진운동을 가로막는단 말인가? 영원한 없을것이다. 인민의 가슴속에서 숨쉬는 이 사회주의! 이것은 력사의 검증을 이긴 진리이며 과학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오보배와 젊은 휴가병사를 데리시고 활기찬 걸음으로 금수산의사당쪽으로 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대동강 건너 저쪽 문수거리쪽에서 거리를 행진해가는 소년단원들의 랑랑한 노래소리가 메아리쳐온다.

사회주의는 우리거야  
사회주의는 우리거야  
우리 당이 붉은기로 지키여주는  
사회주의는 우리거야

## 5

가슴을 저미는 비통한 슬픔속에서도 세월은 흐르고있었다. 가을은 깊어 밤이면 벌써 대기는 산산하였다. 집무탁앞에 마주앉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깊은 사색에 잠겨계셨다.

너무도 할일이 많으신 그이이시였다. 어제도 그이께서는 금수산지구에 나가시여 주체의 대성지로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고 돌아오셨다. 청류다리2단계와 금룡2동굴 건설도 시작하여야 한다. 당창건기념탑 건설은 이미 착공되였다...

어데서나 그이의 사색과 결론, 명령지시들을 기다리고있다. 누구나 그이를 뵈고싶어하고 그이의 조언을 듣고싶어하고있다. 시간을 분과 초로 쪼개가시며 하루를 열흘, 백날 맛잡이로 사업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이밤으로 문명의 추고작업도 마쳐 끝내야 하실 그이이시였다. 다시 펜을 잡으시고 그이께서는 저녁식사를 권유하던 일군이 아직 문가에 버티고 서있는것을 보시였다.

이번에는 아예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그 일군의 얼굴에 어려있다. 벌써 새벽 두시였다.

《내... 곧 가겠소... 이제 곧...》 하시면서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보시던 원고를 다섯매나 더 넘기시고 집무실을 나서시였다. 이윽고 승엄한 정적과 신비스러운 밤의 고요가 흐르는 넓은 복도를 따라 그이의 발걸음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밤의 온갖 음향은 사색을 불려일으키는 불동적인 그이의 발걸음소리에 잦아들었다. 문득 그이께서는 어느 한 방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열쇠구멍에 꽂힌 열쇠못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김형순의 방이였다. 그이께선 가볍게 손기척을 내시였다. 김형순은 무엇인가 열심히 쓰다가 의자를 뒤로 밀어젖히며 황급히 일

어섰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구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걱정어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자, 함께 가서 저녁식사나 합시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말고 어서 식사를 하러 갑시다.》

김형순은 가슴이 뭉클하여 더 어찌지 못하고 그이의 뒤를 따랐다. 검소한 식사가 끝나자 김형순을 데리시고 영사실로 가신 그이께서는 새로 편집한 몇편의 기록영화들을 지도해주시고 다시 집무실로 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있던 외교부책임일군과 인민군협주단에서 온 창작가 두사람을 함께 데리고 집무실에 들어서시였다. 김형순은 집무탁우에 전보다 더 많은 문건과 원고들이 쌓여있는것을 보았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실에 들어서기 바쁘게 창작가들에게 말씀하셨다. 록음기에 전원이 투입되자 방안에는 곧 《우리는 맹세한다》의 우렁찬 선율이 울려 퍼졌다. 우리 인민이 터뜨리는 신념과 의지에 찬 맹세의 웨침은 김형순의 가슴을 격정의 선풍속에 휘몰아넣었다. 외교부일군도 승엄한 자세로 서있다가 **김정일**동지께서 부르시자 그이의 앞으로 다가가 문건을 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건을 검토하기 시작하시자 몸집이 다부지고 이마가 벗어진 작곡가가 록음기의 전원을 껐다. 그이께선 손을 들어 그를 제지시키며 《듣고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문건에 수표를 하시려다 고개를 드시며 쾌활하신 어조로 보이시였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순간도 방임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 주패장은 우리에게 있다는것을 잊지 마시오...》

그이께서는 신념에 넘치는 빛나는 눈길로 외교부일군을 바라보셨다.

《우리에게 어떤 주패장이 있는것 같습니까? 일심단결입니다! 생각해보시오. 려단정치위원이 농장원의 소를 제때에 돌려주지 못한 전사들을 대신하여 농장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감동한 인민들은 또 어쨌는줄 압니까?... 이런 군대와 이런 인민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것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좋은 소식이 올것입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있는 제3차 조미회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였다. 외교부일군이 나가기 바쁘게 전화종이 울렸다.

《부부장동무니까?... 알겠소. 그럼 한시간후에 청류다리쪽으로 나오시오.》

인민무력부에서 걸어온 전화였다. 그이께서 전

화를 받으시자 창작가들은 록음기의 음향을 낮게 조절해놓았다. 노래는 3절을 마감하고있었다.

《왜 그렇게 낮춰놓았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노래의 2절이 반복되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이께서는 집무탁옆에 쌓여진 원고를 여러문장이나 넘기시며 때때로 가필을 하곤하시였다.

《노래가 좋아졌습니다. 2절가사에 <내 나라 내 조국>이란 말을 넣으니 노래의 사상이 살아났습니다. 창작집단이 수고했습니다!》

그 노래는 얼마전에 그이께서 지도해주신 노래였다. 창작가들은 기쁨과 활기에 넘쳐 집무실을 나갔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였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자면 무엇보다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주의사상은 그 진리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영원불멸한것입니다. 사회주의는 승리합니다!》

그이의 영채도는 안광엔 사색의 예지가 빛발치고 온몸에는 멈춰세울수 없는 힘과 끝없는 정력이 흘러넘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활발하신 걸음으로 집무탁으로 다가가시여 원고들을 집어드시였다. 그것은 언젠가 8월의 그밤부터 그이의 집무탁우에 겹쌓여지던 그 권고들이였다.

《내 짬짬이 쓴 론문인데 한번 읽어보시오.》

김형순의 눈앞에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고 쓴 그이의 활발한 필체가 살아움직이는듯 확 안겨왔다. 그의 입에선 《아!-》 하는 짝막한 탄성이 터졌다. 불현듯 20여년전, 친애하는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정식화하셨고 2월 19일 로작을 발표하기 전날밤의 일이 눈앞에 떠올랐던것이다. 그날밤에도 그이의 집무실에는 일군들의 발길이 그칠새 없었다. 김형순도 그날밤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몇가지 문건을 가지고 그이를 찾아갔었다. 대기실에 가득찼던 일군들... 김형순이 순번을 기다려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이의 집무탁우엔 원고들이 수북히 펼쳐져있었는데 첫눈에도 그이께서 한창 추고중에 계신다는것이 알렸다. 사실 그밤은 그이께서 분초의 여유가 없는 밤이였다. 이튿날 그이께서 하시는 연설을 들으면서야 김형순은 간밤이 어떤 밤이였는가 깨닫게 되었다. 그랬다. 그이께서는 언제 한번 고요한 서재나 정숙이 보장된 조건에서 로작은 집필하신적이 없으시였다. 맑스는 런던의 대영박물관에 다니면서 고요한 서재에서 자본주의를 해부하고 과학적사회주의리론을 정립했고 레닌은 씨비리류형지와 빠리를 비롯한 망명지들에서 때로는 홀로 정적에 귀를 기울이며 글을 쓰고 력사적인 레닌주의를 장식했었다.

그러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눈보라 혈전만리, 우등불곶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펼쳐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사상리론활동을 그대로 이으시여 밤과 낮이 따로 없는, 혁명과 건설의 거창한 소용돌이속에서 글을 쓰시고 론문들을 발표하고계신다. 인민들이 하는 소박한 말들과 평범한 일들에서 비상한것을 포착하시고 달리는 승용차와 렬차의 집무실에서 일군들과 나누신 생활적인 담화들이 그대로 주옥같은 명문장이 되여 세상을 격동시키는 로작들로 태어나고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조용히 록음기의 단추를 누르시였다. 그이께서 사랑하시는 노래들이 잇바퀴며 흘러갔다. 무슨 노래인가 고르고계셨다. 드디어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가》의 힘찬 선율이 울려나오자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두손을 가슴노리에 포개엿으시고 음악을 감상하시던 그이께서는 노래가 끝나자 사상리론활동의 30여년을 더듬어보시듯 한동안 사색에 잠기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린 60년대에 벌써 <조선인민군가>에 <사회주의 내 조국>이란 뜻깊은 사상을 새겨넣었습니다. 사회주의 내 조국! 그것은 수십년 세월 끝없이 자라올라 하나의 거목처럼 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의미심장한 눈길로 김형순을 바라보셨다. 그이께서는 벌써 60년대에 오늘을 내다보시고 인민의 마음속에 사회주의 내 조국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였으며 30여년세월 그것을 가꾸고 자래우시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큰 열매를 맺게 해주셨던것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사회주의란 말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있습니다. 이 행성이 아름답고 희망에 넘친것은 바로 사회주의사상이 살아있고 사회주의리념이 인류의 가슴속에 존재하고있기때문입니다. 사회주의는 우리 행성의 미래이며 사회주의사상은 그 무엇으로써도 없앨수 없는 인류의 영원한 재부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신념에 넘치시였다. 영채도는 안광에 열정의 불꽃이 번뜩이시였다.

《지난 세기 사회주의리념과 로동계급을 결합시킨것은 맑스의 위대한 발견이며 큰 공적이였습니다. 사회주의를 공상으로 보지 않고 그 실현의 담당자를 찾아냈던것입니다. 오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갈 담당자는 근로인민대중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믿어의심치 않으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위해 많은 피땀을 흘렸고 앞으로도 이 길을 따라 변함없이 싸워나갈것이다.

그이께서는 낮으나 결연하신 어조로 되뇌이시였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는것은 나

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모습은 실로 거룩하시고 숭엄하시였다. 김형순은 벽찬 환희의 숨결로 가슴이 뜨거워오름을 느끼며 그이의 모습을 우러렸다. 그의 가슴은 사상과 이론의 천재, 철학의 거장을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신 끝없는 긍지와 행복감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어느덧 집무실의 창가가 희뵌해오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창가로 걸어가시여 창가림을 들치시였다. 려명이 비낀 하늘이 창가에 비껴들었다. 무서리가 내린 가을아침이 밝아오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김형순한테로 돌아서시였다.

《올해 농사를 빨리 결속하고 새해농사차비를 다그쳐야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이제 곧 청류다리를 돌아보고 강동쪽으로 나가봅시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동평양과 서평양을 직접 련결하는 다리와 동굴을 건설하여야 한다시던 수령님의 유훈을 하루빨리 실현하고싶으셨고 단군릉도 돌아보시고 그 어느 농장벌에라도

찾아가시여 무서리를 밟으시며 이 아침의 사색을 계속하고싶으시였다.

그러나 두눈 가득히 눈물이 그렇게 서있는 김형순은 방안에 굳어진듯 움직일줄 몰랐다.

그 어떤 밤들이, 새벽들이 이 집무실에서 흘러갔던가! 애도의 전기간 그이께서는 때식을 건느시며 쪽잠마저 변변히 주무시지 못하시면서 불멸의 로작을 집필하신것이다.

잊지 못할 1994년의 여름과 가을밤들, 새벽까지 꺼질줄 모르는 집무실의 불빛들!... 이 나날에 결코 그이께서는 슬픔에만 잠기신것은 아니였으니 사회주의를 위한 그이의 사색과 탐구, 불면불휴의 노력은 순간의 멈춤도 모르고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세계여, 너는 이제 위대한 인간이신 그이의 심장이 어떻게 슬픔을 견디어냈으며 어떤 진리의 명구들이 인류의 래일을 위해 피눈물속에서 태여났는가를 보게 될것이다.

며칠후 《로동신문》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집필하신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가 발표되었다. 세계는 폭풍같은 환희가 뜨거운 열광에 휩싸였다.

## 만경대고향집 트랙에서

아이자이아 쿼오 모리손

만경대고향집 트랙에서  
저 너머 만경봉에서  
내가 본 모든것  
그처럼 깨끗하고 그처럼 정결하였어라

내 보았노라  
추운 겨울날은 지나가고  
화창한 봄날이 찾아와  
만발한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을

만경대여 네가 있어  
오만무례한 원썬놈들  
거만한 코대 꺾어 굴복시킬수 있었고  
자유를 빼앗겼던 인민들에게  
자주성을 찾아줄수 있었나니

만경대의 꽃향기는  
온 강산에 풍기고  
만경대의 노래는  
누리에 영광을 떨친다네

진보의 원썬놈들  
40여년 긴긴세월  
조선의 합법적권리를 짓밟고

조선의 참된 아들딸들 어깨우에  
식민지명에 씌워놓았던만  
그들은 용감히 싸웠다네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짓부시러 나섰다네  
조선의 하늘에 솟은 새별  
그들의 앞길 밝혔다네  
온 강산을 밝게밝게 비췄다네

만경대고향집 트랙에서  
저 너머 만경봉에서  
내가 본 모든것  
그처럼 깨끗하고 그처럼 정결하였어라

오 **김일성** 동지  
피압박인민들의 념원안고  
새별과도 같이  
여기서 탄생하시였다네  
나라의 운명 한몸에 지니시고  
불굴의 의지와 지략으로  
엄혹한 겨울을 몰아내고  
화창한 봄을 안아오셨다네

(필자는 가나시인임)



##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광풍을 부시며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오늘의 장엄한 진군길 위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내려친다.

1930년대의 준엄하였던 그 나날로부터 오늘의 1990년대의 진군길에 즐기치게 이어져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숨결로 뜨겁게 맥박치는 백두의 혁명정신.

그 불굴의 혁명정신을 새길 때마다 우리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제국주의광풍을 부시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혁명적령도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게 된다.

1991년 12월 평양에서는 전국혁명사적일군대회가 열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를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서한에서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옳게 계승하여야 수령이 밝혀준 곧바른 길을 따라 혁명을 승리에로 전진시킬수 있으며 전진도상의 풍파와 시련을 성과적으로 이겨낼수 있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역사적경험과 오늘의 국제적현실은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지 않고 계승발전시키지 않지 않을 때에는 혁명이 자기 궤도에서 탈선하게 되고 혁명의 대가 끊어지게 되며 선행세대와 혁명선열들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도 없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서한의 구절구절을 새겨가며 최근년간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엄중한 사태를 돌이켜보는 참가자들의 충격은 참으로 컸다.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위업이 전진해온 과정은 간고한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나날이었다. 하지만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 나설 때마다 우리 인민에게는 그것을 맞받아 뚫고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의 령도밑에 즐기치게 이어온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 백두의 혁명정신이었다.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지구에 력사적인 자욱을 새겨가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앞장에서 견결히 옹호고수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956년 6월 첫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를 이끄시고 보천보와 삼지연을 비롯한 혁명전적지를 찾으시여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가 내린 백두산일대로의 답사행군길을 열어주시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서 거대한 사변으로 되었으며 백두의 넘으로 원썬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도 되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을 튼튼히 무장시키시여 전후의 그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그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원썬들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셔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푸에블로》 호사건을 계기로 나라의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었던 1968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해 여름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또다시 찾으시여 백두산에 오르니 혁명을 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져가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다고 하시며 이제는 《푸에블로》 호사건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에 방대한 무력을 끌어다놓고 우리를 《보복》 하겠다고 하면서 전쟁소동을 벌리고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혁명과업이 어렵고 정세가 준엄할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도있게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견실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때로부터 몇해가 지난 1972년 5월 어느날 또다시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갈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날 백두의 혁명정신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백두의 혁명정신은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

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혁명정신이 라고 하시면서 이 정신은 꺾이면 꺾일지언정 신념을 버리지 않는 고결한 혁명정신이며 제힘으로 기어 이 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한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불굴의 의지를 안고 원수들을 반대하여 산악같이 일떠섰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대한 《보복초치》와 《군사행동》을 로골적으로 떠들어대면서 전쟁소동에 미쳐날뛰던 적들의 침략책동은 여지없이 부서지고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조국을 영예롭게 지켜낼수 있었다.

해마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으로 적들이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이끌어갔던 1980년대의 겹쌓인 그 어려운 시련도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파감히 헤쳐왔다.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제국주의연합세력이 《핵특별사찰》로 우리 조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려고 하던 1993년의 준전시기간에 진행된 왕재산회의 60돛 기념 중앙보고대회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70돛 기념 중앙보고회의 엄숙한 회의장들에 흘러넘친 뜨거운 숨결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슴깊이 느꼈던가.

그것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압력을 단호히 짓부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 고수하려는 불굴의 의지의 신념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심어주신 그 철의 신념과 의지, 백두의 혁명정신이

가사

있어 우리 인민은 적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백두밀림에서 메아리친 돌격의 나팔소리가 속도전으로 부르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로 높이 울리고 맨주먹으로 작탄을 만들어내던 유격구병기창의 풀무소리가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자력갱생의 마치소리로 힘차게 울려퍼지는 우리 나라.

일당백군인들의 어깨우에 번쩍이는 총창을 볼 때마다 한자루의 무장을 위하여 고귀한 청춘을 바치면서도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라고 웨친 투사들의 그 최후의 목소리를 생각하고 농사를 알심있게 해나가는 농장원들의 모습에서도 유격구를 지켜 싸운 처창초인민들의 불굴의 기개를 느껴가는 우리 인민.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참모습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근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의 한길로 더욱 억세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청년 그 어떤 사나운 광풍도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단합된 힘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

본사기자

## 고마운 당의 품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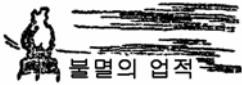
김창규

사랑의 한품에 천만자식 안고서  
영원히 운명을 지켜주는 우리 당  
그 사랑 있기에 우리 삶은 행복해  
아 한없이 고마운 당의 품이여

믿음의 손길로 천만자식 이끌어  
위훈의 언덕에 세워주는 우리 당

그 믿음 있기에 우리 삶은 빛나라  
아 한없이 고마운 당의 품이여

어제도 오늘도 붉은 기발 날리며  
영광의 한길로 향도하는 우리 당  
운명도 미래도 그대만이 책임져  
아 한없이 고마운 당의 품이여



## 위인과 총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생동하게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는 오늘 우리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속에서 널리 애독되면서 그들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이렇듯 고귀한 삶과 투쟁의 교과서가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지게 된데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가르치심이 가슴뜨겁게 깃들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학예술이 수령님의 사상을 구현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빛나는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혁명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자면 반드시 수령형상창조사업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학예술이 우리 혁명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자면 반드시 수령형상창조사업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문학예술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문제는 우리 혁명의 필수적요구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고 하시면서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새로운 혁명문학건설에서 핵으로, 첫째가는 중요한 과업으로 되므로 이 사업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이것은 사회주의문학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 문학건설과정을 돌이켜보면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한 작품이 일정하게 나오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수령형상창조사업을 문학의 핵으로,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간 나라는 없었다. 수령형상창조사업을 문학의 핵으로,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이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

조하는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은 당과 혁명앞에, 시대와 력사앞에 책임지는 중대하고도 성스러운 사업이며 만대에 길이 빛날 기념비적작품을 창작하는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령형상창조사업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전과정에 걸쳐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해나가야 할 장기적이고 전망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세대에 세대를 이어가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사람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양하여야 한다.

1970년 12월 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형상소설은 철저히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수령형상소설은 일반 소설과는 달리 수령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력사문헌이기때문에 작가들이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관련된 하나의 력사적사건과 인물을 취급하여도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료고증사업을 빈틈없이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투쟁사적을 잘 형상하여 훌륭한 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71년 8월 23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하는 장편소설을 총서형식으로 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인류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그 방대하고도 풍부한 내용을 어떻게 소설문학에 옮기는가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작품의 제목을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것은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창작방향과 관련되는 심중한 사상미학적문제이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수령의 혁명력사를 대규모의 문학작품형식



으로 형상한 경험이 없기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새롭게 개척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몇권의 장편소설로 형상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시고는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위대성으로 보나 그 방대한 내용의 폭으로 보나 총서형식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총서형식으로 하면 장편소설이 각기 자기의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면서도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다는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학에서 총서라고 할 때 그것은 일정한 하나의 체계에 의하여 씌여진 소설묶음을 말하는데 세계문학사의 견지에서 볼 때 이러한 총서로서는 발자끄의 총서 《인간희곡》과 에밀줄라의 총서 《루공-마까르 일가》를 실례로 들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은 사회력사적 및 세계관적 제한성으로 하여 부르조아사회의 부패성을 폭로비판하는데 그쳤기때문에 인민대중에게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참다운 길을 밝혀줄수 없었으며 그들의 이른바 《총서》는 규모가 크기는 하였으나 독자적인 소설형식으로서의 문예학적내용을 명확히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시었다.

사실 발자끄나 에밀줄라의 《총서》는 당대의 사회생활, 풍속, 세대의 이모저모를 해부한 장편소설들을 일관한 체계성도 갖추이 없이 묶어놓았기때문에 생활발전의 일관한 흐름을 타지 못하고 전일적인 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더구나 그들이 《총서》라고 이름지은 장편소설묶음은 로동계급의 수령과 같은 위대한 인간전형과 그의 혁명활동을 형상화할수 있는 소설형식이 아닌것이다.

그런것만큼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총서형식으로 담는 경우에도 창작실천상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오직 우리 식의 새로운 총서형식으로 집대성함으로써만 전면적으로 체계성있게 그리고 깊이있게 형상할수 있으며 총서체계안에서 매개 작품들이 소설로서의 자기 특색을 갖추고 문학적인 감화력을 높일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총서제목은 《불멸의 력사》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장편소설 《1932년》뿐아니라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다른 모든 장편소설들을 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체계에 포괄시킬수있을것이라고 하시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또한 《불멸의 력사》라는 이 제목은 개별적인 하나의 장편소설에만 해당하는 제목으로 될수 없다고 하시면서 《불멸의 력사》,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전반을 포괄하는 총괄적인 제목이며 종자라고 볼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체계에 속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장편소설은 철저히 어느 한 력사적사변을 중심으로 하여 시기별 혹은 단계별로 창작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관련한 중요한 력사적사변과 사건을 중심에 놓고 작품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런 력사적사변을 기본으로 하여 단계나 시기를 갈라서 창작하여야 한다. 그래야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정연한 체계속에서 전면적으로 반영할수 있고 매 작품의 사상예술성도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치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비범한 령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것이란 없다. 경애하는 그이의 그렇듯 세심한 지도와 자애로운 사랑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그토록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린 장편소설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도 총서작품의 성과작으로 완성될수 있었고 그후 총서 《불멸의 력사》에 포함된 항일혁명투쟁시기편 장편소설들이 련이어 완성될수 있었다. 그리고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 《조선의 봄》, 《50년 여름》, 《조선의 힘》, 《승리》 등 해방후편이 련속 나오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수령형상문학창작에서 세계가 경탄해마지 않는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 어머니의 노래

홍일화

(전호에서 계속)

## 3

등메동의 단층집들은 시교외의 동남쪽 야산비슷한 둔덕진곳에 비좁게 모여있었다. 아직 가로등이 없이 캄캄했지만 집집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으로 대충 길을 가려낼수 있었다.

차길에서 벗어진 눈덮인 골목길은 손밀차가 겨우 어길 정도로 비좁았다. 몇사람한테 묻고 여러집의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려서야 집을 찾아내었다.

남혁이네 집은 골목길이 끝나는데 있었다. 전쟁시기 폭격에 어떻게 요행 남아난 기와집 뒤벽을 의지하여 지은 부엌달린 한칸짜리 집이었다. 울안과 낮은 양철지붕에 눈이 두텁게 덮이 반토굴집 비슷하였다. 마당 한켠에는 도끼모태이와 패지 못한 등걸나무들이 눈을 들쓰고있었다. 그 옆에는 함석지붕이 멋없이 우뚝하게 높고 폭이 좁은 건물이 한채 있었다. 지붕의 서까래는 한귀통이가 꺾어져내렸고 유리 한장 없는 창문으로는 눈발이 휩쓸어들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마니를 덧댄 문을 열고 들어서서야 그것이 남혁이네 제분소라는걸 아시였다. 전기가 많이 먹는 구식제분기 한대는 다 마사져 파철처럼 무져있었고 나머지 한대도 파대를 벗긴 전동기가 해체되어있었다. 아마 누구한테가 수리해보다가 아주 못쓰겠으니 걷어치운 모양이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더욱 령락된 개인상공업자들에게 국영기업소와 생산협동조합의 밝은 길을 열어준 경애하는 수령님의 4월테제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실감으로 느끼시였다. 남혁이 어머니가 아무리 두부장사를 한다 해도 이처럼 파괴된 제분소를 다시 일으켜세우지는 못할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너갸래로 마당의 눈을 밀어생긴 울바자쪽에 무져놓으시였다.

집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다.

그이께서는 누렇게 뜬 참지를 바른 부엌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시였는데도 남혁이 어머니는 노전간구들에 이불을 들쓰고 누워 일어나지 못하였다.

촉수낮은 전등이 내리비치는 방안에는 자그마한 농작이 있었고 그우엔 색이 바랜 이불 한채가 땡그렇게 놓였다. 큰 양철버치안에는 콩물이 허

영게 흘러내린 망이 그대로 안쳐있었다. 작은 함지에는 채 갈지 못한 불큰 콩이 퍼그나 되였다. 남혁이 어머니는 아픈 몸으로 또 두부를 앓겠다고 망을 돌리다 그만 지쳐 누워버린 모양이었다. 집안은 바깥못지 않게 랭방이었다. 아래목을 만져보니 아침에 땀 불인지 온기가 있을가말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엌바닥에 널려있는 나무개비들을 주어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시였다. 바깥날이 저기압이여서인지 아궁이가 좀 내더니 불이 달리자 그래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장작 몇가치를 넣고나니 나무가 더 없었다.

그이께서는 귀날이 떨어진 무딘 도끼를 찾아들고 옆집의 창문불빛이 비치는 마당에 나서시였다. 땀만한 나무는 없고 웅이투성이의 등걸나무들만 한무지 있었다. 변변한 나무들은 어머니가 이미 다 꽤 땀 모양이었다.

등걸나무쪼개기란 수월한 일이 아니였다. 도끼로 굵은 등쪽의 웅이진데를 건주어 수십번을 내리쳐서야 겨우 빠개시였다.

그이께서는 잔등의 속내의가 축축해지도록 땀을 뿜고서야 마당의 등걸나무들을 다 썰수있으시였다. 등걸나무들은 패기는 힘들어도 볼때는데는 분한이 있었다. 처음 쪼개서 아궁이에 밀어넣은것은 아직도 타고있었다. 불담도 잘 사위지 않고 이글거리는게 좋았다. 방안은 훈훈해지고 아래목은 벌써 더워나기 시작했다. 가마에서는 김이 피여올랐다.

이불사락이 움직이더니 남혁이 어머니가 아픔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내밀었다. 녀인은 눈시울을 가늘게 뜨고 천정에 매달린 먼지낀 뿌잇한 전등빛에 부엌에 선 학생을 알아보느라 애썼다. 녀인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남…혁이냐?…》

《어머니… 좀 어떻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구들에 올라가 베개에서 고개를 들려는 어머니의 상반신을 부축하시였다.

《남혁이는 삼촌네 집이 비여 오지 못했습니다. 래일은 꼭 어머니한테 올겁니다.》

《음… 학생이구만, 피아노 타던… 나무도 학생이 뻬소?… 도끼질소리를 귀결에 들으면서두… 얼른 일어나질 못했구만…》

녀인의 열에 뜬 얼굴에는 감사의 정이 무뎠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끓는 가마의 물을 사발에 떠

오고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시었다.

《어머니, 남혁이한테 털모자를 전했습니다. 감기약을 드시고 땀을 푹 내십시오. 병이 나을겁니다.》

녀인은 감기약을 받아들고 한동안 들여다보다가 감동 어린 눈길을 **김정일** 동지께 옮겼다. 어느덧 그 눈에 맑은 이슬이 고였다. 녀인은 그이께서 물사발을 들고계시는것을 보고서야 약을 입에 넣었다. 더운 물을 불어가며 마시고나자 녀인의 흐릿한 눈에 금시 생기가 피어나는듯싶었다.

녀인은 긴숨을 토크고나서 꺼칠한 손으로 이마에 흘려져내린 머리칼을 쓸어올렸다.

《누우십시오.》

《고맙소. 학생의 지극한 정성에 늙지 않아두 벌써 병이 푹 떨어진것 같군.》

녀인은 아픔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우정 기운을 내어 말하면서 웃음을 지었으나 오래 가지는 못하고 서글픈 상념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한동안 그렇게 생각에 잠겨있더니 아궁옆에서 젖은 신을 말리고있는 **김정일** 동지를 내려다보며 미안쩍은듯 말을 꺼냈다.

《학생은… 날 위하느라 우리 애 삼촌네 집에까지 갔었구만.》

《어머니, 제가 전학온 남혁이를 잘 도와주어야 했는데… 저는 남혁이가 새 벽돌집에 이사했다기에 어머니랑 함께 있는줄만 알았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신의 이런 후회 어린 말이 녀인의 아픈 마음을 건드린다는걸 느끼시었지만 결렬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었다.

녀인은 피로이 기침을 짓고나서 먼구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니 학생은 우리 집안 일을 알겠구만.》

《어머니, 잘 모릅니다. 남혁이한테서 대충 들었을뿐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궁안의 불담을 조금 끌어내놓고 장작을 두어가지 밀어넣으시었다.

녀인은 귀밑머리를 쓸어올리고 부엌바닥에 나무개비를 깔고앉은 그이를 이윽히 내려다보았다. 그 어떤 강렬한 호소와 기대가 녀인의 얼굴에 비쳤다.

《우리 애가… 날 몹시 닳하지요?》

《남혁이는 어머니가 제분기를 수리하려고 애쓰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이요?》

《어머니, 남혁이가 결심에 집을 나가긴 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녀인의 두볼로 눈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우리 애가 예미고생을 알아준단 말이지요. 그러니 날 아주 저버리지 않았구만… 기쁘오. 정말 기쁘오… 사실말이지 남혁이 아버지 손때묻은

제분기여서… 엄청난 전동기값을 어떻게 좀 벌여볼가 하구 밀천을 다 들여 두부를 앗기 시작했지요. 내가 무슨 장사군이겠소. 난 장마당에 나가 앗는달뿐이지 남을 속이거나 내 리속만 채운적은 없었소. 수십리 주변촌에 다니며 콩을 사서 저다가는 밤을 새워 망질해서 두부를 앗지요. 두부물 끓이는데 나무가 작게 드는가요. 나무단 사대기 바빠서 목재공장에랑 다니며 녹은 등걸나무를 얻어온다오.

그렇게 뼈빠지게 고생을 해서 앗은 두부를 장마당에 가지고 나가 팔자면 추위에 얼마나 떨어야 하는지 모른다오. 그래서 리난 돈이란게 고생한 품값도 안되는 때가 허다하지요. 남혁이 털모자는 그렇게 모은 푼돈에서 산거라오. 전동기값을 벌자면 아직 멀구두 멀었소.》

녀인의 쇠약한 얼굴엔 병색이 짙고 눈에는 하소할길 없는 원망의 슬픈 눈물이 그렁히 고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장작을 아궁이에 더 집어넣고서 구들에 올라와 녀인이 만류하는것도 마다하지고 망을 돌리시었다.

《불군 콩인데 쉬면 두부발이 안서지 않습니다.》

녀인은 하는수 없이 숟가락으로 콩을 천천히 망에 떠넣었다.

고요한 방안에 콩을 가는 망돌소리가 스르륵 울리고 부엌아궁이에서는 등걸나무 장작이 기세 좋게 불씨를 탁탁 튀기며 열을 내었다.

《어머니, 제 아까 마당 건너편에 있는 제분소에 들어가보았습니다. 그렇게 마사진 제분기를 어머니 혼자 힘으로 어떻게 고쳐내겠습니까. 이렇게 고생하다나면 큰 병이 나서 아주 자리에 누울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등메동 부근에도 공장들과 생산협동조합이 있겠는데 거기에 다니십시오. 그러면 쌀걱정도 땀나무걱정도 안하게 되고 이 양철집도 직장사람들이 고쳐지어줄것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 차근차근 말씀하시자 녀인은 잠차코 있더니 한숨을 지었다.

《사실 직장다니는 사람들이 활개쳐구 마음껏 살아가는걸 보면 여간 부럽지 않았소. 그러면서 두 제분기가 아까왔소. 남혁이 아버지 손때가 묻은건데… 그걸 내놓고 직장생활을 할수 있겠는지… 제분소집 아낙이 이제야 직장에 나왔다고 팔시라두 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지우.》

**김정일** 동지께서는 망질을 멈추시었다.

《어머니의 그런 심정이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두들 전쟁을 함께 이긴 그 기세로 힘을 합쳐 큰 산림을 꾸려나가고있습니다. 이런 보람있는 일터에 뛰어들지 못하고 초라한 자기 집 올라리만 높이 쌓게 되면 궁색한 살림도 털어버리지 못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어머니네처럼 전쟁에서 가산이 다 파피되고 평락된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근로자로 재생활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었습니다. 작은 철공소나 제분소 같은걸 차려놓았던 사람들은 다 자기 노력과 재간으로 살아가려는 근로정신이 있기때문에 직장에 들어가면 성실히 일할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생산협동조합에서는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화목한 사회성원으로 들어온 그들을 진심으로 환대하고있습니다. 고생으로 벌써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남자들보다 손이 거칠어진 어머니를 누가 팔시하겠습니까?》

《!...》

녀인은 아무말 없이 그이께서 돌리는 땅에 콩을 떠넣기만 하였다. 깊은 생각에 골몰하다나니 콩담은 손가락이 자주 망손잡이에 부딪쳐 콩알들이 사방 흩어지군하였다. 방안은 오래도록 침묵이 서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콩망질을 다 끝내고서야 몸을 일으키시었다.

《아니, 가려오?》

녀인이 급히 물었다.

《예, 너무 늦어서... 돌아가겠습니다.》

그이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녀인은 팔소매를 걷어올리며 서둘렀다.

《기왕지사 늦었는데 잠깐 기다려주오. 가마도 끓는데 내 제격 맛있는 초두부를 맛아주겠소.》

《어머니, 전 일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밤은 몸조리를 꼭 하십시오.》

**김정일** 동지께서는 녀인을 이부자리에 편히 기대게 하고서야 부엌 아궁앞에서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신을 신으시었다.

그이를 물끄러미 지켜보는 녀인의 얼굴에는 진정할길 없는 애수가 어렸다. 자기의 병약한 처지와 슬픔을 털어버리지 못하는 아픔에서 오는 애수였고, 아들과 비슷한 나이면서도 어른도 미치지 못할 크나큰 도량과 자애와 온정이 흘러넘치는 학생에 대한 존경심에 찬 감사의 마음이었다.

《이보라구. 학생, 난 여태껏 우리 남혁이와 날 위해 이렇게 마음써준 사람을 보지 못했소. 그런 학생에게 집안 사연을 숨긴다는게 죄될 일이지... 남혁이는 집을 나설 사연이 있다우. 내 이야길 좀 들어주오.》

녀인은 잔기침 뒤끝에 무거이 한숨을 토했다.

《아마 남혁이는 말을 못했을게요. 자기가 내 친아들이 아닌란걸...》

《?!...》

**김정일** 동지께서는 저으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녀인의 추억의 그늘이 짙은 얼굴을 지켜보시었다.

《남혁이 친어머닌 그애를 낳은지 두달만에 산후탈로 세상을 떠났다우. 온순하고 말이 적은 녀

성이었소. 해방되기 몇해전의 일이라우. 난 뒤집에서 살았는데... 그 불길한 날에 내게는 <징용>에 끌려갔던 남편이 죽었다는 기별이 왔소...

난 그날밤에 몇번이나 까무러치면서 애기를 낳았소. 하지만 애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고 덜컥 죽었소. 난 너무도 슬픔이 커서 정신을 잃었는데 사흘만에 혼몽에서 아이를 찾으며 깨보니 정말이지 내 품에는 그렇게 귀엽던 아기가 더는 없는 것이었소. 바로 그때 ... 앞집 애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허비었소. 젖은 그냥 불어나는데 난 죽은 애생각에 미칠것만 같았소. 그러자 앞집에서 젖을 못먹고 너무 울어 목소리마저 가늘어진 애가 점점 더 불쌍해져서 견딜수 없었소. 그래 하루는 애울음소리를 찾아 앞집에 갔소. 가보니 앞집 할머니가 파랗게 여윈 아이를 안고 안타까이 서성대고있었소. 애는 작은 주먹만 빨고있었소. 난 본능적으로 할머니의 품에서 어린것을 빼앗아 젖을 물렸지요. 이듬해 봄에 광산에 품팔이갔다 돌아온 남혁의 아버지는 나를 그지없이 고맙게 여겼소. 우린 함께 살기 시작했다우. 해방이 된 다음엔 작은 제분기도 차려놓고 아주 개가 쏘아지게 살았소. 전쟁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터인데... 미국놈들이 원쑤지요. 그놈들이 남혁이 아버지를 빼앗아갔구 제분소도 마사놓았지요.

그때부터 엘 데리구 홀로 살아왔지만... 생활이 어렵구 피로운 일들이 허다했지만서두 남혁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무렇지도 않았소. 그애한테 의지해서 속썩이는 일없이 여생을 살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글썽...》

녀인은 목이 메여 말을 못하고 한참이나 손으로 눈곱의 이슬을 찍었다.

《세상의 눈과 귀는 속일수 없는가보오. 그전날 살던 고장도 아닌데 누군지 그애한테다 내가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불어넣었다우... 제분소를 없애라구... 두부장사를 그만두지 않는다구 다투던 날 그애는 내게 바로 그걸 물었다우. 난 너무도 분하구 싫어서 눈물만 지었소. 그애가 삼촌네 집에서 학교를 다니겠다구 집을 나가니 난 세상이 무너진것만 같았소.》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궁이안에서 사위여가는 등걸나무의 별건 불담을 지켜보시었다. 채 타지 않은 나무개비에서 실연기가 피여올랐다. 녀인이 지난 일을 짚막히 이야기했지만 그이의 상상속에서는 말하지 않는 고충과 사연들까지 죄다 쓰러린 아픔속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남편과 갓난애를 한시에 잃고 세상이 무너지는것 같은 절망과 고통에 몸부림하면서도 앞집에서 우는 아기를 찾아나선 어머니, 그 어린것에게 젖을 먹일 때 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온몸에 넘치는 모성애가 찢겨진 가슴의 고통을 메꿔줬을것이고 마음의 안정과 그 어떤 행복감에 눈물을 흘렸을것이다. 그

불쌍한 젖먹이한테서 오늘과 같은 배척이 있으리라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런 눈물겨운 일을 당하고서도 남혁이를 위해 털모자를 사들고 학교에 찾아온 어머니, 자식의 경망과 어리석음을 나무라지 않으며 버림을 당하면서도 자식을 위하는 애끓는 마음은 더 사무치게 끓어오르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이다. 그 사랑은 마치 아궁안에서 타는 등결나무마냥 한생을 고생으로 거칠고 등이 굽어서도 재가 될 때까지 자기 몸을 깡그리 불태우는 것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가슴이 아파 떠나지 못하시였다. 묵묵히 서있는 그이의 길다란 그림자가 부엌문에 비쳤다. 그이께서는 너인에게 동정의 따뜻한 눈길을 보내시였다.

《어머니, 너무 걱정마십시오. 남혁이는 꼭 돌아올 겁니다. 아무런 자기를 젖을 먹여 애지중지 키워온 어머니를 저버릴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랜 결집에 일시적으로 집을 나온 겁니다. 그러길래 남혁이는 어머니가 보내준 털모자를 받았을 때 눈물이 글썽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랜 자기가 어머니를 박정스레 대하고 경망하게 집을 나왔다는 걸... 그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남혁이한테 어머니의 사랑을 타발하지 않고, 의리를 저버린 인간이 되지 않게 더 따듯이 충고하고 이끌어주겠습니다.》

《정말 고맙소. 사실... 잘못이야 내한테 있지요. 내가 에미구실을 바로 못했으니...》

**김정일** 동지께서는 너인의 진정 어린 가책을 듣는 것이 기쁘시였다.

《저는 남혁이한테 정말 좋은 어머니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남편을 잃은 가슴아픈 상처를 안고 남다른 고생을 해오신 분이지요. 남혁이를 키워오신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이지 뜨겁고 눈물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그 사랑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를 위한 크나큰 애정세계로 되리라는 걸 믿습니다.》

그이의 진지한 말씀에 너인은 몸가짐을 바로하고 손으로 귀밑머리를 쓸어올리었다. 병색으로 뿌옇하던 너인의 눈에 새벽빛같은 광채가 어렸다. 서글픈 낯색은 사라지고 안정을 찾은 온화한 낯빛이 얼굴을 밝게 만들었다. 너인은 깊은 꿈에서 깨어난 듯 자기 목소리를 가늠해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학생은... 보잘것 없는 이 아낙의 인생을 귀중히 여겨주는 구려. 내 오늘 학생한테서 참으로 좋은 노래를 들었구... 일생에 알지 못한 귀한 말도 들었소. 학생은 참 보통사람이 아니요. 옛날 말로 꼭 무슨 귀인이 우리 집에 와 날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만 같소. 래일 내 제분소를

여기 생산협동조합에 넘기고 직장에 받아달라고 청들겠소. 정말이지 아들의 사랑을 잃고야 무슨 어미 사랑이 있겠소. 이제부터는 우리 남혁이가 남부러워하지 않게 뗏뗏이 살겠소.》

아궁안에서는 등결나무의 불담이 이글거리며 불길을 솟구고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떠나려고 마당가에 나오시였으나 바래주러 따라나선 남혁이 어머니앞에서 쉬이 걸음을 옮길수 없으시였다.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등지고선 너인은 헤어지기 서러워 눈물짓고있었다. 흰옷입은 너인의 모습은 거리에서도 쉽사리 만날수 있고 눈덮인 여기 어느 집이나 살고있을 평범한 어머니들 모습그대로였다. 하지만 눈송이들이 흩날리는 마당가 어둠속에 서있는 너인의 평범한 모습은 그이의 마음속에 류달리 길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고생속에서도 아들을 애지중지 자라온 너인의 눈물겨운 지난날이 강렬한 메아리를 일으키고 선물로 되어 **김정일** 동지의 가슴을 두드리었다. 시내물소리같은 그 음악은 흐름이 점점 줄기차고 풍만해진다. 대자연의 적시는 거창한 강물의 흐름으로 변한 그 음악을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온 정신과 마음을 기울이고 생명까지도 바치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헌신적생애를 노래한다. 그 어느 어머니에게나 자식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다. 어머니들의 가슴속에는 자식들의 성장에 바쳐진 바다와 같은 애정이 차있고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환희와 절망과 같은 무수한 감정과 사연이 가지가지의 음절로 엮어진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심금을 울리는 그 노래를 마음속 오선지에 담아나갔다. 너인이 만류했지만 그이께서는 눈가래를 쉬고 아까 무쳐놓았던 눈무지를 울바자쪽에 쳐내시였다. 그리고 팬 장작을 한아름씩 들어다 부엌에 가려놓으시였다.

《어머니, 그럼 전 돌아가겠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 조용히 작별인사를 하시자 너인은 울먹이며 가까이 다가와 마디진 손으로 그이의 어깨에서 눈을 털어내었다.

《이보라구 학생, 물어보고싶은게 있소. 집에 어머니님이 계시겠지?... 무슨 일을 하시오?》

《...》

《그토록 인정미 넘치는 훌륭한 학생을 키워낸 어머니님은 어떤 분이시요?》

너인의 진지한 물음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쏟아지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으시였다.

《저의 어머니님은... 제가 일곱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너인과 헤어져 발목을 묻는 눈을 헤치며 어떻게 걸어나왔는지 의식하지 못하시였다. 상실의 아픔이 심장에 마쳐오고 슬픔은

폭풍처럼 뒤셀렌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것 같던 비통한 그날이 추억되시었다.

락엽이 떨어지는 초가을의 음산한 날, 비장한 추도곡은 거리를 눈물로 적시고 평양의 하늘가에 비를 뿌린다. 어머니 령구를 모신 삼두마차는 당중앙위원회 회의실 마당을 서서히 떠났다. 모란봉기슭까지 연도는 수십만 군중들로 꽉 메워져 있었다. **김일성** 장군님을 받들어 한생을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녀성해방을 위해 불멸의 공헌을 하신 어머니와 마지막 영결을 하러 나온것이다. 울음소리가 조기로 뒤덮인 도시를 진동하고 산천에 메아리친다. 온 민족이 어머니의 서거를 슬퍼하고있었다.

령구를 모신 마차가 해방산을 굽이돌아 저택정문앞에 멈춰섰을 때 어리신 그이께서는 달려가 어머니 령구를 쓰다듬으며 오열을 터뜨리시었다. 해는 먹장구름에 가리우고 단풍진 나무잎들이 바람에 흩날린다.

정녕 어머니께서 다시 오지 못할 길을 가신단 말인가. 백두밀림에서 그렇게 고생스레 키워온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남기고 이 나라 아들을 남기고 떠나가신단 말인가!...

꿈처럼 아름답고 행복스럽던 유년시절은 끝나고 크나큰 슬픔속에 이어진 소년시절이였건만 **김정일** 동지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멀어지지도 잊혀지지도 않는다.

그 사랑은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인간사랑의 불길이 되어 그이의 심장에서 활활 타오르는것이였다.

×

하얀 솜이불같은 눈이 소복이 덮인 저택의 정원에 피아노소리가 고요히 울리고있었다. 그 부드러운 음향에 맞추어 끝모를 깊이로 가진 감감한 하늘에서 무수한 눈송이들이 날아내려 정원의 마른 나무가지들에 쌓인다. 마당을 거닐으셨던 그이의 발자국도 어느덧 알아볼수 없이 눈에 두텁게 덮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오선지에서 춤추듯 달리던 펜을 놓고 다시금 건반을 두드리시었다.

창턱에는 함박눈이 쌓이고 겨울밤은 깊어가건만 악상의 광활한 세계를 헤쳐나가는 그이의 열정은 더욱 불타오르시었다.

어머니의 생애, 백두밀림의 하늘가에 노을처럼 펼쳐졌고 조국땅 들판에 꽃처럼 피어난 어머니의 사랑의 세계를 어떻게 한편의 노래에 다 담을

수 있으랴. 어머니의 투쟁의 생애는 대교향곡의 장중한 울림으로도 다 노래하지 못한것 같으시었다.

비와도 눈와도 먼길 떠나도  
손잡아 이끄신 나의 어머니  
...

**김정일** 동지께서는 피아노소리에 맞추어 입속으로, 심장으로 노래를 불러가시었다. 창밖의 하늘가 캄캄한 허공에서는 눈송이들이 세상에 탄생하는 아름다운 곡을 깨칠가 저어하듯 조심히 날려내리고있었다.

문득 피아노건반을 열정적으로 짚어가시는 그이의 귀전에 정다운 목소리가 들려오는것 같으시었다. 그것은 눈내리는 광막한 하늘가 저 멀리로 울려가는 피아노선율! 서정깊은 곡이 메아리에 실린 어머니의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아들아! 네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니 기쁘구나.》

《어머니, 어디에 계십니까! 어머니가 그림습니다.》

《너의 성장이 노래에 비꼈구나. 한 어머니의 사랑만이 아닌 이 나라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 어머니들의 눈물과 의지가 있고 기쁨과 미래가 울리는구나.》

《어머니, 그래도 저는 노래가 미흡한것만 같습니다.》

《애야, 어머니의 노래는 이 세상의 수만가지 노래에 비할수 없이 고상하고 훌륭한 노래이다. 너의 한생을 바쳐 가장 위대한 어머니 노래를 지어라. 내 심장이 민족과 인류를 위해 불타고 불타갈 때 어머니 노래는 조선과 온 세상 하늘가에 울려퍼질게다.》

《어머니!...》

**김정일** 동지의 눈에선 수정같은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려 피아노건반에 떨어졌다.

기쁘나 힘드나 부르고싶은  
정답고 미더운 나의 어머니  
그 은혜 못잊어 세월의 끝까지  
수령님 받들어 한길을 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뜨거운 그 사랑 내 크며 알았네

깊은밤, 어둠속에서도 희디흰 빛을 잃지 않은 함박눈은 온 대지를 포근히 감싸고있었다.

끝



《수령이 없는 혁명의 승리를 생각한다는것은 태양이 없는 꽃을 바라는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은 혁명의 승리가 전적으로 탁월한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이룩될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있다.

하늘에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고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태양이 없고 태양의 빛발을 받지 못하면 꽃들이 자랄수도 피어날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혁명의 운명도 수령에 의하여 결정된다.

인민대중은 오직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만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의식화, 조직화되어 혁명투쟁에 떨쳐나설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탁월한 수령의 올바른 령도에 의해서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는것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실천에 의하여 검증된 진리이다.

남다른 수령복을 타고난 우리 인민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따라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역세계 싸워나가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혁명의 태양을 따르는 위성이 되어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조국도 없다는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가사

## 어머님 사랑하신 꽃

**문정숙**

세상엔 꽃들이 많고많아도  
어머님은 진달래를 사랑하셨네  
찬바람 이겨내며 피는 그 모습  
어머님 안고사신 조국이였네  
아 진달래 어머님 사랑하신 꽃  
언제나 봄을 먼저 불러오는 꽃

세상엔 꽃들이 많고많아도  
어머님은 진달래를 노래하시네  
광복된 조국에 넘친 그 향기

어머님의 미소에 실려흐르네  
아 진달래 어머님 사랑하신 꽃  
해빛넘친 내 나라에 피어웃는 꽃

세상엔 꽃들이 많고많아도  
어머님은 진달래꽃 안고계시네  
세월이 흘러도 붉게만 피여  
어머님의 높은 뜻 전하여주네  
아 진달래 어머님 사랑하신 꽃  
영원히 붉게 피는 조선의 꽃

## 사랑을 안고 이어가신 령도의 자욱

푸른 계절이다. 햇손을 피웠던 나무잎새들은 어느덧 제나름의 크기로 한껏 퍼져 신록을 머금었다. 울긋불긋 꽃망울로 아름답던 산천에도 수림이 우거져 숲의 세계가 펼쳐졌다.

초야의 부드러운 잔디밭에서 실컷 덩굴며 싱싱한 그 냄새에 취하고싶고 만발한 꽃향기를 맡으며 화원속에 놀러앉아있고싶은 계절.

눈부신 태양도 밝은 빛을 뿌려 그지없이 청청한 기운이 이 강산에 넘쳐난다.

부강하게 다져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기상이런가 열정을 안고 사는 인민의 마음이런가.

우리는 상쾌한 이 여름날 당창건기념탑앞에 서 있다.

정갈하게 다듬어간 탑둘레의 화강석포석우로 끊임없이 흘러오는 사람들의 물결속에는 늙은이도, 젊은이도, 어린 학생들도 있는가 하면 로동자, 농민, 지식인과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혁명의 참모부 우리 당중앙위원회에 령도의 첫자욱을 새기시던 30여년전의 오늘을 마음속에 안고 이곳을 찾아서인지 사람들은 깊은 감회에 잠겨있었다.

탑을 우러르며 다가가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억세인 손들에 받들리어 하늘을 치받고 선 마치고 낮과 붓.

바로 저기에서 우리 인민모두는 누구나 자기의 모습을 볼수 있다.

우리 당은 지난날 노예의 운명이었던 근로인민을 한품에 안아 세기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체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있다.

위대한 당의 창건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이 다시금 돌이켜지고 당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에 미쳐온다.

걸음걸음 시련에 찬 길을 걸으시며 억눌렀던 인민을 안아일으켜 자기 계급의 무기를 쥐여주시고 력사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되게 하시고 승리와 영광을 펼쳐나가는 혁명의 보루로 다져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지심깊이 뿌리를 박고 굳건히 서있는 저 하나 하나의 탑신들에는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다.

탑의 위용을 중심으로 《백전백승》의 글발이 뚜렷이 안겨온다.

우리 당의 성스러운 이름과 더불어 언제나 함

께 들어온 말이지만 탑의 응자를 마주하고 대하니 더욱더 크게 그 의미가 새겨지는것이였다.

백전백승-조선로동당.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존엄높은 우리 당의 부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이끄시던 그날부터 저 마치고 낮과 붓은 그 얼마나 튼튼해졌고 우리 조국은 또 얼마나 강력해졌던가.

어버이수령님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으셨던 《이민위천》의 사상이 그대로 당의 목적과 활동원칙으로 되게 하시고 언제나 자신께서 타신 인민행렬차에 수령님 안으셨던 모든것을 그대로 다 안고 가시며 인민을 위한 정치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 당이 혁명을 하는 궁극적목적도 인민을 잘살게 하자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에 령도의 첫자욱을 떼시던 그날부터 현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그 나날 순간의 휴식도 모르시고 인민을 찾아 걷고 걸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로고가 우리의 가슴속에 다시금 되새겨진다.

우리의 감회는 력사의 그날에도 흘러갔다.

1966년 5월 3일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날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시 황해제철소)를 찾으시였다.

오매에도 그림던 경애하는 그이를 맞이한 황철의 로동계급은 커다란 기쁨과 감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저마다 그이를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려 했고 일군들은 서둘러 사무실부터 안내하려 했다.

하지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의 합숙부터 들리시였다. 합숙복도를 따라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스스로없이 어느 한 방에 손기척을 하시고 들어가시는것이였다.

너무도 꿈만같아 몸둘바를 몰라하는 한 로동자의 두손을 따듯이 잡아주신 그이께서는 《그래 앓는 동무들은 없습니까?》라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모두 건강합니다.》

군대식으로 절도있게 일어서서 대답하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며 그이께서는 밝게 웃으시는것이였다.

《건강하다니 기쁩니다. 건강이 기본입니다. 건강해야 최물을 광광 뽑아낼것이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이 방의 주인들은 모두 체대군인들 같은데 군사복무를 몇년 했는가, 교향은 어디며 집에는 누가 있는가 등 차근차근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방안을 주의깊게 둘러보시다가 이불 장문을 여시고 그들이 베고자는 베개에도 관심을 돌려주시고 원탁위의 물주전자뚜껑까지 열어보시며 용해공들이 땀을 흘린뒤에는 찬물이 좋지 않으니 물을 꼭 끓여주라고 이르기도 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창문에 드리운 창가림의 천발을 만져보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불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잠이 귀중하기때문에 용해공들을 꼭 재우자면 두터운 천으로 창문을 가리워주어야 한다고 이르시면서 합숙방 하나를 꾸려도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깊이 생각하고 꾸려주어야 한다고 일군들을 타일려주시였다.

나라없던 그 세월에는 하늘이 보이는 《함바집》에서 문짝대신 거적을 드리우고 가는바람 오는바람 다 맞으며 추위에 떨던 용해공들이 층수높은 집의 훌륭한 방에서 창가림까지 치고 생활하고 있었으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토록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낮시간에 얹게 스며드는 빛을 두고도 마음을 쓰시는것이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합숙식당과 용해공들의 주택 지구까지 일일이 들리시여 노동자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서야 중형용광로직장으로 향하시였다. 용광로에서는 출선작업이 한창이였다.

황홀한 눈길로 출선구에서 사품치며 흘러내리는 주홍빛쇠물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업장의 여기저기를 살피시다가 그만 안색을 흐리시는것이였다.

《중형용광로 로체현장에 먼지가 많습니다.》

일군들은 쇠돌과 무연탄을 다루기때문에 아무래도 먼지가 나게 된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가스제진장치를 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나무라시듯 말씀하시였다.

《가스제진장치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용해공들이 고열속에서 먼지로 인한 유해까지 받으면서 일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스제진장치공사를 빨리 다그쳐 먼지를 말끔히 잡아야 하겠습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일군이 앞으로 보수할 때 꼭 가스제진장치를 완성하여 설치하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나직하나 엄한 음성으로 모든것을 제쳐놓고라도 그것부터 빨리 하여야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순간 용해장은 걱정으로 끓어번졌다.

일군들도 용해공들도 모두가 감격에 겨워있는데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강철도 귀중하지만 용해공들의 건강은 그보다 몇곱절 더 귀중하다고, 쇠물을 보기전에 용해공들을 먼저 보

라고 간곡히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되새길수록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사랑의 일화이다.

력사의 그날이 있어 그후 황철의 용해장에는 자동화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고 오늘은 우리로동계급이 일하는 일터마다에서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의 그 나날 우리인민들에게 더욱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삭주군과 초산군을 비롯한 산골마을로부터 황주의 긴등벌이며 동해의 어촌마을, 서해의 이름없는 섬에 이르기까지 조국땅 곳곳에 끝없는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시였다.

몸소 농장원이 되시고 농업과학자가 되시여 저택의 정원에 꾸려놓은 시험포전에서 호미를 드시고 한여름의 피약별을 다 맞으시며 일요일을 보내신 그런 날도 있으니...

불면불휴의 령도로 이어지던 어느날 겹쌓인 피로를 그대로 안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노을 비낀 언덕에서 휘날리는 당기발을 바라보시며 하시던 말씀은 그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뚫게 하는가.

- 저 당기발에 인민대중이 있다. 인민대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나는 근로하는 인민의 심부름꾼이다. 인민이 바라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것이 수령님의 좌우명이자 나의 좌우명이다. -

정녕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기에 우리 당을 이끌어오신 그 모든 나날을 인덕정치의 화원으로 그렇듯 아름답게 수놓으실수 있으것이다.

어머니당 - 조선로동당.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며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영예로운 구호를 높이 들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고있거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였기에 인민의 심장속에 뿌리박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은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혁명의 기관차가 되여 인민에게 안겨질 행복만을 싣고 달릴것이며 우리 조국은 신록의 이 계절처럼 언제나 활력에 넘쳐있으리라.

그래서 인민들은 행복과 번영의 기치인 우리 당을 그토록 격조높이 칭송하는것이다.

마치와 낮과 붓을 품에 안고있는 원형띠의 결면에서 인민이 터치는 그 웨침이 금빛 구호로 빛나고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본사기자 로창일

## 수호자의 선언

오영재

나에게는 집이 있어라  
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내가 사는 집이 있어라  
레사로이 어느때나 여닫는 문이 있고  
따사로운 햇빛이 흘러드는 창문가엔  
내가 사랑하는 화초들이 향기를 풍기고있는 집

이른새벽에도 한밤중에도  
때없이 행복이 문을 두드리며  
온 집안에 기쁨과 웃음을 퍼워주는 집  
이 나라 공민이 누릴수 있는 그 모든것을  
향유하는  
안정된 삶의 첫 보금자리  
내가 살고 나의 자식들이 살고  
손자들이 대를 이어 살아갈 집이어

추녀를 맞대인 이웃들과 정으로 이어지고  
벽에 걸린 한장의 달력  
수도관에 흐르는 한방울의 물에까지  
사회주의향취가 스며여있는 정다운 집  
그러나 오늘은 우리 집에 찬바람이 휘몰아오고  
화약내 풍기는 대포소리 울려오고있기에  
내 이 집의 주인된 권리로  
수호자의 신성한 권리로 붓을 들었노라  
세상을 향해!  
정의와 양심의 목소리를 터치노라

무엇때문에... 무엇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압력을 가하며  
우리를 압살하려 날뛰고있는것인가  
우리가 남의 땅을 노린적이 있었더냐  
남의 재부를 탐내어 누구를 위협해본적이  
있었더냐

우리에게는 스스로가 선택한 제도가 있고  
자기가 신봉하는 사상이 있노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자유가 있고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수 없는 삶의 신조가  
있노라

그것으로 하여 우리가 《적》이 되고  
압살의 대상으로 된다면  
하늘에 물어보자, 땅에 물어보자  
이 세상에 정의란 어디에 있느냐  
오만무례하고 파렴치한 강도의 론리가  
제국주의세계의 힘의 《론리》라면  
력사여,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있는것인가

단 한가지 굴복하지 않는다는 그것으로 하여  
힘으로 우리의 무릎을 꺾어보려는자들  
우리가 자기의 존엄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것으로  
하여  
미친 승냥이처럼 몸살이 일어 발악하는자들  
우리가 숨쉬는 공기마저 거두어 우리를  
질식시키려 한다  
우리가 마시는 물마저 없애어 우리를 말리우려  
한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우리를 얼쿠고 쓰러뜨리려  
한다

다해보라  
이 세상에서 할수 있는 그 모든것  
온갖 잔인하고 혹독하고 포악한것을  
할수 있는것 다해보라고 하라  
고난과 시련이 극한점에 이른자한들  
결코 물러설 그런 비겁한 인민이 아니노라

평온한 날에 여유있는 생활  
부유한 살림과 즐거운 휴식을  
인간이라면 바라지 않는 사람 세상에 있으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생활을 즐길줄도 알건만  
그 모든 락을 다 미루었노라

오늘에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을 빼앗기고 우리의 세상을 잃기에  
우리 그것 없이는 한순간도 못사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위해  
《고난의 행군》 그 정신으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길을 기꺼이 택했노라

숨기지 않노라  
우리에게는 부족한것도 있고  
나라는 어려움을 겪고있음을  
우리는 뜻하지 않게 밀려온  
큰물피해도 입었노라  
그것으로 하여 제국주의무리들  
패재를 부를수도 있으리  
우리가 사회주의를 더는 지켜내지 못하리라고  
어리석은 꿈을 꾸고있을수도 있으리

좋다, 10년이건 100년이건  
우리는 이렇게 견디며 끝장을 보리라  
남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다면  
순간에 피가 굳어져버리는 우리다  
남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면

순간에 숨이 막혀버리는 우리 인민이다  
 우리는 우리것에 체질화된 사람들  
 우리의 사회주의에 운명을 건 생명들  
 사회주의냐 아니면 죽음이나  
 이 길 아닌 다른 길을 가리라고는 누구도 바라지  
 말라

백번 죽는다해도 나의 집을 버리고  
 남의 처마밑으로는 들어서지 않으리라  
 그 어떤 고대광실도 우리는 바라지 않노라  
 우리의 집은 현란하지는 않아도  
 인민의 뜻으로 세워지고  
 인민의 온기로 덥혀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주체의 집!

오랜 나날 정이 들고  
 못잊을 추억이 깃든 집  
 위대한 수령님 세워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집  
 이 집을 위해 피흘려 싸운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과 의리로 뜨거운 집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덕아래  
 이 세상에 다시없는  
 위대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깃든 집  
 인민모두가 한가정이 되어 단란하게 웃으며  
 서로 돕고 위하는 화목하고 행복한 집

혁명의 붉은기 높이 띄우고  
 성스러운 전통을 자랑하며  
 우리의 공기를 마시고 우리 식으로 사는  
 우리 집의 이 깨끗한 트랙에  
 원수들은 한치도 발을 들여놓을수 없으리  
 백두의 만년초석위에 세운  
 이 집의 주춧돌을 그 어떤 힘도 뽑아낼수 없으리  
 수령님 달아주시고 장군님 빛내주시는  
 우리 집 이 문패를  
 그 누구도 떼지 못하고 또 바꾸지도 못하리니  
 우리 집의 문패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 이 집을 지켜주시기 위해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원수들의 흉계를 걸음마다 짓부시며  
 전선동부와 서부, 중부의 최전연고지우에  
 거룩한 자욱을 찍어가셨나니  
 인민은 그이의 걸음을 가슴으로 받들며  
 영웅의 고지 351고지대로 달렸노라  
 일당백의 대덕산과 오성산에 올라  
 적진을 향해 펼치신 그 작전지도우에  
 장군님을 옹위하여 총폭탄이 될  
 불같은 맹세를 새기었노라

무적의 령장이 지켜주시는 집  
 아버이를 받드는 뜨거운 충성과 의리로 일심이

된  
 이런 인민의 집을  
 그 어떤 손이 기와 한장 다칠수 있단말인가  
 그 어떤 힘이 봉쇄할수 있단말인가  
 그 어떤 원수가 굴복시킬수 있단말인가  
 총검이 산을 쌓은들 가시밭길이 천리에 놓인들  
 가는 앞길을 가로막을수 있단말인가

그렇다  
 힘과 힘의 치열하고 장기적인 대결에서  
 견디여내지 못할자는 우리가 아니다  
 그것은 제국주의 침략자들  
 원수들이 침략의 무한계도로  
 우리 땅 한치라도 물어뜯는다면  
 이 세상이 생겨 처음보는  
 그런 무서운 불을 맞으리라

죽음을 각오한 인민을 당할자 세상에 없으라  
 두렵지 않아 원수들이 열이여도 백이여도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이 판가리결전에서  
 승자는 누구이고 패자는 누구이라

오,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이여  
 오늘에 원수들이 패재를 부른다해도  
 지켜보라, 그 누가 력사의 새 장우에  
 붉은기 휘날리는 승리자의 장점을 꽃는가를  
 지켜보라, 누가 최후에 웃는가를

최후에 웃는 우리의 그 웃음은  
 정의가 웃는 웃음  
 진리와 량심이 웃는 웃음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이 나라 공산주의자의 가장 밝고 깨끗한 웃음

세계는 보리라  
 고난을 이겨낸 인민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아 그 웃음을  
 엄혹한 겨울을 이겨낸 따뜻한 봄의 웃음  
 겪어온 시련의 나날들을 돌이켜보는  
 소박하고 성실하고 강직한 사람들의 눈가에  
 환희의 이슬이 맺히는 웃음

주고싶은 그 모든것을  
 아이들에게 다 쥐여주지 못한 아픔을 지냈던  
 이 나라 마음어진 어머니들이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아이들을 높이 추켜올리며  
 푸른 하늘을 향해 날리는 웃음

그 웃음은  
 우리 그것을 위해 참고견디었던

래일과 손을 마주잡고 웃는 웃음  
 폭풍을 헤쳐온 붉은기의 웃음  
 어려울 때 힘을 주고 신심을 주시며  
 내 조국, 우리 인민을 강국, 강민으로 키워오신  
 우리의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웃음  
 내 조국의 무궁한 번영이 꽃피는 웃음

세계여 너는 보리라  
 21세기로 들어서는 승리의 개선문을

누가 이 행성의 한복판에 세우는가를  
 인민의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해온  
 강철같은 신념의 기둥으로 세운  
 이 개선문으로 들어서는 위대한 인민의 모습  
 영원한 조선의 모습을 세계는 보리니  
 그렇다  
 세기의 위인 **김정일** 동지를 모시여  
 우리는 최후에 웃는 승리자가 되리라

(1996. 4. 3)

## 오늘도 기다리신다

김남걸

노을이 비끼고  
 별빛이 비껴흐를때  
 잠시 하시던 일 멈추시고  
 창가로 생각깊이 다가서시는  
 우리의 장군님

그 누구를 기다리시는듯  
 그 무슨 보고를 기다리시는듯  
 멀리 하늘가에 시선을 보내시고  
 오래도록 서계시여라

온 나라 숨결을 한몸에 다 안으시고  
 멀리 산너머에서 울리는 발파소리 들으시는가  
 조국의 최북단 철도전기화 개통식  
 청년별동대원들의 보고를 기다리시는가

기다리신다  
 해쫄는 아침에도  
 해지는 저녁에도  
 자정이 넘은 한밤중에도  
 당의 예비부대 별동대의 보고를

영예군인에게 시집간 소행을 들으시면  
 기록하다고  
 우리 당은 좋은 청년들을 데리고있다고  
 손수 친필로 감사도 적어보내시며  
 친부모의 마음 되시는 그이

초급단체 비서처녀가  
 일시 나쁜길 들어섰던 청년을 교양하여

사랑을 언약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대단한 처녀라고 호탕히 웃으시고

군복입은 청년군인들이 적구에서  
 신념을 굽히지 않고 돌아왔다고  
 영웅으로 내세워주시는 장군님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동지들을 구원한 청년소대장의 희생을 두고  
 그리도 빛나시던 안팎에  
 뜨거운 이슬이 고이시며  
 손수 훈장내신서도 쓰시는 우리의 장군님

온 나라 온 세계의 크고작은 일  
 그이 스치시는것 없으시건만  
 그리도 큰 기쁨을 안으시는 때는  
 우리 청년들의 위훈의 보고를  
 기쁨중의 기쁨으로 안으시는 장군님

래일의 주인인 우리의 청년들이  
 오늘에 세우는 위훈이어서  
 래일을 위한 오늘의 진군길에서  
 언제나 앞장에 서있는 청년들이어서

오늘도 기다리신다  
 사회주의건설도 조국보위도 다 맡아  
 앞장에서 위훈많은 청년들이라고  
 그리도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 청년들의 보고를  
 장군님은 기다리신다

## 백두의 혁명정신을 문화작품에 구현하는것은 작가들의 성스런 임무

오승련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온갖 원수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백두산 일대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행군 개시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찌기 청년학생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나가기면서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답사를 통한 교양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답사를 통한 교양은 생동한 자료에 기초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게 하며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시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답사행군이 학생들에게 어려우며 그들에게는 명승지견학을 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혁명전적지답사를 음으로 양으로 막아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1956년 6월초에 량강도 일대의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행군대를 조직하시고 6월 5일 몸소 이 대오를 이끄시고 평양을 출발하시여 보천보와 삼지연, 리명수일대의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행군을 진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혁명의 대를 이을 새 세대들로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를 조직하시고 처음으로 백두산일대의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의 선행세대들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혁명의 대를 이어가는 후대들의 혁명적의무이며 숭고한 도덕의리입니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이다.

사회주의위업이 대를 이어 승리적으로 전진하는가 아니면 세대가 바뀌면서 중도반단되는가 하는것은 혁명전통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전통에 대한 태도와 립장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충실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혁명전통을 거부하는것은 혁명사상과 혁명정신을 버리고 혁명투쟁을 포기하는것이며 혁명을 좌절에로 이끄는 길이다.

력사적경험은 후대들이 혁명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지 못할 때 혁명의 대가 끊어지고 피로써 갱취한 사회주의전취물을 말아먹게 된다는것을 실증해준다.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고 혁명선렬들앞에 지는 우리 후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가 백두산일대 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의 개척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나가기려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과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의 빛나는 구현이었으며 혁명전통교양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가져오는 획기적사변이였다.

사람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혁명전통주체작품창작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혁명전통을 우리 혁명문학의 중요한 주제분야의 하나도 규정하시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천명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전면적해답을 주시으로써 우리 문학이 혁명전통교양에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혁명전통이 고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심각한 시기인 1950년대 중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백두산일대의 혁명전적지답사행군로를 처음으로 개척하신것은 우리 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때부터 우리 문학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전통주체의 많은 작품들을 다양하게 창작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역세게 이어주고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시 《해마다 오는 봄》(1958년), 《백양나무》(1958년), 서정시 《우리 당의 행군로》(1961년), 가사 《눈이 내린다》(1965년), 희곡 《불사조》(1959년), 《해바라기》(1960년), 장편소설 《청년전위》(1962년), 《아들딸》(1965년),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1972년)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쟁시기권의 장편소설들, 영화문학 《백두산》(1980년) 등 사상예술성

이 높은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은 혁명전통교양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작가들은 지난 기간의 창작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혁명전통교양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들을 더 활발하게,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작가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시원을 마련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형상창조와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형상창조에 모를 박는것이다.

작가들은 우선 지난 시기 이 주제작품창작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살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고난의 행군》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투쟁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더 깊이 있고 훌륭히 형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우리 혁명과 민족의 크나큰 사상정신적재부이며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으로 되고있다.

다음으로 작가들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가시려는 친애하는 그이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 우리 당에 주체의 혈통만이 차넘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형상에 마땅히 창작적관심을 두어야 한다.

오랜 공산주의운동력사와 인류력사는 자기 수령에게 충실하였던 혁명의 령도자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처럼 자기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그런 희세의 위인을 알지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수령님에 대한 지극한 충효심은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시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으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이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바치시는 주체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전통을 100% 계승하시고 100% 실현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의지이다.

하기에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혈통고 당의 혁명전통을 말살하려는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였다.

친애하는 그이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전국도처에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비롯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대기념비들이 일떠서고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이 훌륭히 꾸러지였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백두

산에 오르시여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우리 혁명의 간고한 로정을 돌이켜보시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현시기 우리 인민을 오늘의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말에 발표하신 력사적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이 숭고한 공산주의도덕의리심과 혁명선배를 존대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품모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이처럼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굴의 혁명적의지의 세계, 그이께서 새롭게 개척하신 높은 료리도덕의 세계를 문학작품에 훌륭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끝없는 영광이며 그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높이게 하는 근본요인의 하나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문학이 해결해야 할 창작실천성의 문제들은 많다.

지난 시기 창작된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들인 《예지》, 《불구름》, 《푸른 하늘》, 《동해천리》 등 많은 작품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에서 우리 문학이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이런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면서 이 분야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기 위해 높은 충성심과 창작적열정도 바쳐나가야 한다.

우리 문학이 혁명전통의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을 반영하여 작품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나래치게 하기 위하여 나서는 다른 하나의 문제는 수령님의 령도따라 혁명선렬들이 발휘한 붉은기정신, 《고난의 행군》정신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따르려는 혁명적신념은 《고난의 행군》정신의 근본핵이며 생활력의 원천이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닌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무엇보다도 혁명적인생관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으로 하여 그처럼 확고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 문학은 혁명가들의 인생관화된 신념의 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줄수록 인간학적풍격을 더욱 높일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은 혁명가들이 지닌 혁명적 신념과 의지의 세계를 상반되는 사상과 리념의 대결로, 인간의 힘과 아름다움에 대한 서로 대립되는 견해의 대결로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화력을 주고있다.

또한 혁명선렬들의 신념의 세계를 그들이 지닌 도덕의리심의 발현으로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자기 수령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인 믿음은 삶의 보람과 가치에 대한 투철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것과 동시에 그들이 지닌 숭고한 도덕의리심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가장 순결한 량

심의 발현이었다.

우리 작가들은 혁명가들의 성격을 정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상정신적, 도덕적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그려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그들이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수령의 위인상에 매혹되는 과정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체험과정, 매혹의 세계를 깊이있게 그럴수록 작품의 감화력과 견인력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

우리 작가들이 문학작품들에 붉은기철학, 《고난의 행군》정신을 구현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나래치게 하는 문제이다.

수령이 없는 혁명의 승리를 생각하는것은 태양이 없는 꽃을 바라보는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혁명의 수령,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지 못하면 혁명이 좌절되고 혁명이 좌절되면 인민들은 모든것을 잃게 된다.

승승장구하는 혁명에는 반드시 걸출한 수령과 함께 수령을 목숨바쳐 옹위해나가는 참다운 혁명가, 충신들이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가의 제일생명이며 그것은 수령을 결사옹위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문학은 항일의 나날 오중홍7련대가 보여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여 이 숭고한 정신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7련대의 결사옹위정신에서 핵을 이루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숭배심을 그리는 문제이다.

7련대전체성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떠나 자기들의 운명과 혁명의 승리에 대해 순간도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하기에 그들은 류레없이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사령부를 총폭탄되어 결사옹위할수 있었던것이다.

우리 작가들이 그려야 할 주인공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만만한 투지와 배짱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난관을 주동적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는 투쟁의 참다운 기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체질화한 인간들이다.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이런 인간들의 예술적형상을 다채롭게 창조할 때 우리 작품들에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맥박치게 되며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게 된다.

우리 혁명적문학작품들에 붉은기사상, 《고난의 행군》정신이 맥박치게 하는데서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예술적으로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문학작품에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

을 반영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적인생관을 높은 사상에예술적높이에서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에는 혁명가의 참된 삶의 보람과 가치, 아름다움이 깊이있게 밝혀져있다.

참다운 삶은 래일을 위한 삶, 보다 훌륭한 미래를 위한 삶이다.

가장 준엄했던 항일전의 나날 혁명선열들이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끼니를 에우고 풍찬로숙하면서 한목숨 바쳐 굴함없이 싸운것은 그 투쟁속에 아름다운 래일, 광복될 조국의 미래가 비껴있었기때문이었다.

우리 문학은 항일혁명선열들이 지녔던 이러한 사상정신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으로써 사회주의 위업완성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시기 백두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래일의 아름다운 꿈을 안고 그것을 위해 불사신처럼 싸우는 인간성격창조에 힘을 넣어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고립압살책동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사회주의 위업완성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있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힘찬 투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56년에 우리 나라에서 첫 답사행군대를 이끄시여 백두산일대 혁명전적지에서의 불멸의 첫자욱을 찍으신 력사의 그날이 있어 우리 혁명의 피줄기는 더욱 순결하고 역세게 이어졌고 오늘도 우리 혁명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동요없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사회주의위업완성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혁명적 문학작품창작에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라야 우리 문학작품들에 백두의 혁명정신, 《고난의 행군》정신이 더 힘차게 나래칠수 있고 우리 문학이 우리 인민의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사상정신적무기로 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그이께서 바라시는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다운 문필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 우리 아버지

김은희

사람이 철은 언제 어느때 드는가.  
은인을 알게 되는 때, 은인의 귀중함을 느끼게 되는 때가 곧 철이 드는 때라고 나는 생각한다.  
슬픔을 가셔준분, 정을 알게 해주신분, 희망을 꽃피우고 세상에 내세워주신분, 이 모든 은인의 표상이 나에겐 존귀하신 한분의 영상으로 안겨온다.

추억의 노래를 부를 때면  
흘러간 나날이 어려오네

...

우리 인민모두가 사랑하는 《그 품 떠나 못살아》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는 눈곱이 축축히 젖어들군한다.

고마움에 젖어 나도 추억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안겨온다. 잊을수 없는 날들이 하나, 둘 과거의 장막을 헤치고 다가온다.

아버지를 잃던 그때 나는 일곱살 철부지소녀였다.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신문강좌장이었던 나의 아버지를 영결하는 날 나는 동네아이들과 함께 자그마한 마을공지에서 놀고있었다. 한 가정의 기둥인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커다란 슬픔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이 철부지소녀의 천연스런 모습에 어른들은 더 울었다.

《이 철없는것아, 어찌면...》

나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툭툭 떨구는 어른들앞에 오히려 나는 어리둥절해졌을뿐이었다.

단지 아버지를 묻고 산에서 내려오다 실신하여 쓰러지는 어머니의 모습에 놀라 《엄마, 엄마》하고 불안고 울었을뿐이다.

그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어떤 슬픔을 안았는지 그리고 체소한 어깨에 네 아이의 운명을 걸머지게 된 어머니의 눈에 왜 빛이 없었는지...

내가 어린 심장에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무엇인지 어렵잖이나마 감득한것은 그로부터 며칠후, 학부형총회가 있는 날이었다.

《오늘은 꼭 아버지들이 참가해야 합니다.》

새삼스레 다짐을 두는 선생님의 말은 범상하게 울렸지만 나의 마음은 범상치 않았다. 열밤 자면 돌아온다며, 어머니 말 잘 들어야 한다며 모내기지원사업으로 떠나간 아버지는 열밤이 지났어도 돌아오지 않았던것이다.

그날 나는 어머니에게 학부형총회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누웠었다. 그런데 다음날

어머니가 나에게 학부형총회가 있었는가고 묻는 것이었다. 머리를 끄덕이는 나에게 어머니는 다우쳐물었다.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았니?》

나는 대답을 않고 고집스레 입을 다물고있었다.

몇번이나 대답을 재촉해도 꿈쩍않는 나의 태도에 어머니는 그만 성이 났다.

《이 땡공이같은것, 왜 대답을 안해? 왜 그렇게 엄마속을 태워?》

어머니의 설문에 그만에야 나도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곤 울먹울먹하며 소리쳤다.

《아버지들이 참가해야 한땡어. 일단 아버지가 아니잖아, 흑... 우리 아버지진 어디 갔어? 아버지 데려오라, 데려와...》

가슴을 찢어내는 내 말에 어머니는 그만에야 나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가슴 아픈 말을 어머니에게 왜 했을가 하는 후회가 크다.

그밤, 무척 서러웠던 그밤에 나의 유년시절은 끝장나버렸다. 때이르게 찾아든 슬픔으로 천진란만한 유년시절은 아득한 저 하늘가 구름너머 어딘가로 사라져버린것이다.

아버지를 잃은 나의 가정은 뜻밖의 그 커다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있었다. 웃음이란 개념을 아예 잃어버린 어머니의 처량한 표정에 놀리워 채 기를 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천진한 마음이 줄지에 소년과 유년기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이즈러지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는 대학당위원회에서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으로 가게 되었다.

당위원회의 어느 한 방문을 열고 들어선 어머니는 어리둥절하여 무춤하니 굳어졌다. 엄숙한 공기속에 아버지가 일하던 학부의 여러 선생님들과 대학의 책임일군들이 앉아있었던것이다.

기다렸던듯 한 책임일군이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아 자리에 앉혀주고 장내를 둘러보다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수룡동무의 사망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몹시 애석해하시면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순간 세찬 충격에 떠밀리운듯 자리에서 일어난 어머니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한다.

당과 국가사업에 바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게서 평범한 한 대학교원의 일까지 헤아려주시다니...

걱정에 싸여있는 어머니와 선생님들에게 책임 일군은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1975년 7월,

멀리 아프리카, 유럽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시기 위하여 전국의 모내기전투장들에서 들어 온 승리의 보고를 차례로 들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모내기를 끝내던 날 그들의 학습과 생활을 지도하던 한 교원이 현장에서 순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 이름없는 전사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한걸음 옮기시고는 걸음을 멈추시고 두걸음 옮기시고는 또다시 생각에 잠겨 계시던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혁명동지 한 사람의 생명을 무엇으로 대신할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아까운 동무가 희생되었다고 무엇을 더 해줄것이 없겠는가고 안타까와하시던 그이께서는 아들 삼형제에 딸이 한명 있다는 보고를 들으시고는 안색에 한줄기 밝은 빛을 띄우시며 말씀하시었다.

《당에서 아이들을 모두 키워줍니다. 우리 당이 그애들의 아버지를 대신해야 합니다.》

그러시고는 책상앞으로 다가가시여 펜을 드시고 한 이름없는 전사의 혁명과업수행정형과 당생활을 친히 료해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국가표창을 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혁명학원에 보내도록 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멈추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금 펜을 드시고 당중앙위원회와 정무원의 해당 부서에 주는 지시문을 써내려가시었다.

물론 나는 껍 후에 다 자란 다음에야 이 사랑과 배려를 구체적으로 전달받았지만 그때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그 눈물속에 번쩍이는 빛을 보고 우리 가정에 여느때와 다른 밝은 운명의 길이 펼쳐져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아직 젊었던 어머니의 눈에서 영영 사라지는가 싶었던 그 빛, 생에 대한 희열과 긍지, 행복의 빛은 다시금 비껴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려로 국기훈장 제1급과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을 수여하는 모임이 있은뒤 인차 두 오빠는 만경대혁명학원으로 떠났다.

그리고 이태후에는 내가 김정숙혁명학원(당시 남포혁명학원)에 입학하였다.

학원시절, 내 운명에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여운을 남긴 행복했던 학원시절.

여기서 나는 정을 알고 사랑을 알았다. 슬픔이란 말조차 잊어버리게 하는 인정의 큰 세계, 사랑의 크나큰 하늘이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해 펼쳐져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배웠다. 아버지들이 주지 못하고 간 사랑을 부여주는 그 품에 바치는 충성은 말과 글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계승에 있다는것을.

그리고 꽃피웠다. 품고있던 희망도.

작은 재능의 싹을 꽃피워 《새 희망》잡지에 나의 첫 동시가 발표되게끔 지도해준 국어선생님은 나에게 장차 나를 키워준 그 품을 노래하는 이름있는 작가가 되라고 고무해주었다.

어떻게 잊으랴. 그 사랑의 크나큰 화원을.

줄맞춰 노래부르며 오가던 학원의 넓은 구내길, 온갖 꽃 다투어 피는 아담한 정원속에 자리잡은 음악실창가에 울리던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노래선물, 모르고 마주앉았던 생일상위에 푹푹 눈물방울이 떨어지던 그밤.

정녕 내 자라난 혁명학원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로 정치를 떠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덕이 낳은 숭고한 사랑의 집이었다.

당은 내 희망을 헤아려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아버지가 교단에 섰던 잊지 못할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창작과에서 마음껏 공부하게끔 또다시 은정어린 사랑을 베풀어주었다.

세기를 주름잡을 큰 뜻을 가지라고, 그 넓은 희망의 날개 활짝 펼쳐라고 22층 휘황한 교사의 창가에 앉혀준 그 나날에 나는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사상을 심장속에 간직하였다. 정녕 그 배움의 나날은 나에게 많은것을 가져다주었다.

은혜로운 장군님의 자애깊은 손길이 있어 나는 대학과정을 마치고 3대혁명소조원생활을 거쳐 희망대로 오늘은 문학예술종합출판사에서 문필활동을 하고있는것이다.

나의 두 오빠들도 **김일성**종합대학과 건설건재대학을 졸업하고 말은 부문에서 자기의 재능과 희망을 꽃피가고있으며 남동생도 **김일성**정치대학에서 장군님의 군령도예술과 리론을 배워가고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고싶다. 나처럼 행복한 운명을 지닌 사람이 있는가고.

나의 아버지는 나의 운명이 시작되던 7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나에게 준것이란 생명과 이름자만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나에게 아버지를 대신하여 모든것을 다 주시었다.

천진한 어린 녀에 아버지 잃은 슬픔의 어두운 그늘이 깃들세라 나의 운명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분.

학원의 넓은 품에 안아 정을 알게 해주고 잃어버렸던 유년의 동요 다시금 가슴속에서 울리게 해주고 희망의 푸른 날개 활짝 펼쳐주신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당의 믿음직한 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 자라라 최고대학의 높은 층계에 올려 세워주시고 오늘은 기자로 세상에 내세워주신분.

나의 운명은 명실공히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사랑속에 시작되었고 그이의 보실핍속에 하루하루가 흘러간다고 말할수 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나의 아버지이다.

나의 성장의 자옥자옥마다에 장군님의 사랑과 손길이 어려있는데 어떻게 이 심장이 우리의 아버지인 **김정일** 원수님이라고 노래부르지 않을수 있으랴.

사랑의 한품속에 우린 모두 친형제  
아버이 모시고 내 나라는 한가정  
두려운것 없어라 부러운것 없어라  
우리의 아버지인 **김정일** 원수님

나는 이 노래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곱씹어하는 생각이 있다.

친아버지도 주지 못한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위하여 한생을 살리라.

장군님의 뜻과 의도를 내가 쓰는 글의 자자구구에 박아 내외에 널리 선전하는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리라.

이것이 내 운명의 친아버지이시며 은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 드리는 나의 자그마한 보은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철은 죽을 때까지도 다 들지 못한다고 한다.

은인의 귀중함을 느끼는 때가 철이 드는 때라고 말은 했지만 계속 알며 모르며 장군님의 사랑속에 하루하루를 사는 나는 영원토록 그 크나큰 사랑앞에 철부지가 될것 같다.

하지만 진심으로 맹세한다.

이제는 한분밖에 안계시는 위대한 우리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철부지로는 살지 않으리라고. 사랑에 응석은 부려도 그 뜻을 관철하는 길엔 목숨도 주저없이 바칠 진짜배기 효녀로 살리라고.

## 우리가 가는 길

### 성만실

여기여라  
걸음걸음 붉은기의 귀중함을 깨우치는 길  
여기여라  
자옥자옥 혁명의 운명과 숨결을 합칠수 있는 길

걸음걸음 노래로 샘솟는 길  
조국애의 뜻도 피에 새기며  
어깨에 멘 배낭에서  
혁명의 무게를 느낄수 있는 길

청봉, 무포-  
피로 열고  
목숨바쳐 이어준 길이건만  
이 길에 이끼를 덮고  
유홍의 길로만 인생을 부르던  
종파의 책동을 걸음걸음 짓차며  
우리 장군님 앞장에서 열어주신  
백두의 길이여

보아라  
무거운 장구류에 걸터신고 감발지고  
이 길우에 피흘리며 걸어간 자옥이 있어

내 나라의 운명을 안고  
붉은기를 추켜들고 나아간 길이여

우리의 장군님  
영원한 조선의 앞길에  
백두의 이 길을 놓아주셨어라  
오늘도 래일도 그날의 붉은기 높이 들고  
이 길을 가야 하기에

쉽게는 걷지 말라  
가장 깨끗이 생을 바친 넋이  
여기에 있어  
오, 여기에 오면  
걸어온 길을 숭엄히 돌이켜보게 되고  
혁명의 래일도 소중히 안게 되여라

다른 길은 모른다  
이 땅에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이 길로만 가리라  
죽어도 바꾸지 못할  
신념의 이 길로만  
조선은 영원히 가리라

# 모닥불

-잊지 못할 전우를 추억하여-

전창철

인생의 절반이라고도 할수 있는 마흔한살에 나-박형근은 총을 잡았다. 병사가 되기에는 너무도 때가 늦은 그 나이에 손설은 보총을 메고 전선 길에 나섰다.

행군중의 중대에 도착하였을 때 분대장은 《몇 살이요?》 하고 물으며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마흔한살이라는 대답에 한순간 놀라는 기색을 보였던 분대장은 이내 표정을 바꾸며 《걱정마오. 나이로 전쟁을 하는건 아니니까. 함께 싸워보시오.》 하더니 《어! 조동무!》 하고 누군가를 소리쳐 불렀다.

경중한 키에 솜털이 보르르한 전사가 달려왔다.

《우리 분대에 배치됐소. 잘 도와줘야겠소. 알겠소?》

분대장은 이 한마디로 전사에게 나를 넘겨주고는 대오앞으로 바빠 달려가는데 것이었다. 우리 두 사람도 종종걸음으로 행군대오에 들어섰다. 그렇게 시작된 행군이 밤낮 이틀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수군거리며 하는 말들이 이제 이 행군이 끝나게 되면 큰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였다.

가도가도 끝없는 행군길... 행군 첫날에 벌써 나의 발바닥은 물집투성으로 변해버렸다. 숨처럼 가볍게 느껴지던 훌쭉한 배낭이며 흥분과 두려움 속에 부력을 꼭 틀어쥐고가던 기다란 보총이 어깨를 파고들었다. 언제면 쉬려는가?...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난생 처음 알기 시작하였다.

아니, 나에게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온통 낮선 얼굴들... 그 속에서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있었다. 마치도 그들은 걷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인듯 소금밭이 허영계 내돈은 땅빛얼굴들을 짓속인 채 말없이 걷는데만 열중하고있었다.

《앞으로 전달 속도 빨리!》, 《3소대장은 대오앞으로!》 라는 구령들이 길게 늘어선 대오의 입과 입을 건너뛰면서 물결쳐가고 물결쳐올뿐...

내곁에서는 바로 그 솜털이 보르르한 꺾다리전사가 지씨 눈을 감은채 걷고있었다. 이따금씩 눈까풀을 스르르 벗기고 앞사람을 바라보다가는 다시 감아버린다. 눈을 감고서도 발을 헛짚는다가나 떨어진다거나 빠여지는 일은 거의나 없었다. 이를테면 그는 같은 시간에 나보다 한가지 일을 더하고있는셈이었다.

내가 그에 대해 알고있는것이란 이름 석자뿐이었다. 그나마도 나로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알아낸 이름이었다.

행군초기에 나는 힘들기도 하거니와 하도 갑갑하여 《말 좀 물읍시다.》 하며 전사를 건드렸다. 그런데 그는 눈을 감은채로 《뭘니까?》 하고 애원 목소리로 중얼거리는것이였다.

《저...아직 쉬려면...떨었는가요?》

나는 몹시 주저하며 물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역시 지씨 눈을 감은채 마치 못해 입을 열었다.

《한...이십분쯤 가면... 쉽습니다.》

20분씩이나? 아직도? ...눈앞이 캄캄해졌다. 차라리 묻지나 말걸...

《이름은 어떻게 부르시유?》

얘기나 나누며 걸으면 좀 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는 또 물었다. 그는 한동안이 지나서야 잠에 취한 목소리로 《조이철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몹시 피로해하는 그에게 더이상 말을 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입을 다 물어버렸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엔 조이철이쪽에서 《아바인 군대생활이 참이어서 모를수 있는데...》 하며 먼저 말꼬지를 떼는것이였다.

나는 그것이 너무도 반가와 《그러문요. 많이 가르쳐주시유.》 하고 서둘러 응수했다.

《...군대란건말입니다. ...행군을 할 땐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

왕창같은데로 나떨어지는 그의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쓸데없는 말이라니?...

내쪽에서 응대가 없자 전사는 눈을 번쩍 뜨며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알겠습니까?》

쌀쌀한 목소리, 날카로운 눈초리... 두려웠다. 기어코 대답을 받아낼 잡도리였다.

《예...》

집요한 그의 눈길을 피하면서 나는 마치 못해 어정쩡한 대답을 하였다.

《아바이, 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는 마치 엄한 스승이 불량한 제자를 꾸짖는 듯한 그런 음성, 그런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을 씌었다.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는 먼길을 못잡니다. 알겠습니까?》

《...》

《행군은 이제 시작이다. 아직 두 천리 가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크게 잡숫구 걸어야 힘이 덜 듭니다. 알겠습니까?》

《…》

분명 그는 이 박형군이를 잘 도와주라고 한 본대장의 지시를 집행하고있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꼭 다문채 앞을 바라보며 걷기만 하였다. 나의 머리속에는 그저 (꽤나 꽤로운 젊은이구나!)하는 그 생각뿐이었다. 우리 두사람사이에 더는 오가는 이야기가 없어지고 말았다.

바로 이러루한 이유로 하여 나의 행군길은 곱절이나 힘들었다. 나를 이해할수 없는 사람들… 나의 과거, 나의 습관, 나의 모든것을 알고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생면부지의 이 사람들속에서 나는 허허벌판 한밤중에 홀로 걷고있는듯한 외로움을 안고있었다.

하기야 남을 탓할 이유가 무엇이란말인가? 박형군이 너는 그래 남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생각해본적이 있었던가?

다이하줄 몇봉지와 소화제, 빨간약이며 고약따위들이 전부인 약방, 아버지가 물려준 서울교외의 자그마한 약방가게에 의지하여 연약한 처와 늙으신 어머니, 어린 두 자식의 생계를 간신히 유지해가고있던 나에게는 꿈결에도 잊어서는 안될 좌우명이 있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너 아니면 나, 둘중의 어느 하나만이 있을뿐이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과 나의 부모처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생활론리였고 나의 좌우명이었다. 동정, 이해, 양보, 인정…이러루한 고상한 인간감정을 소유한다는것은 곧 자신의 죽음과 파멸을 의미할뿐이었다.

하지만 기동처럼 의지하고있던 그 좌우명도 나와 나의 가족들의 운명을 지켜주지 못하였다.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날, 떨어져가는 약들을 구하러 시내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나의 눈앞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있었다. 나딩구는 문짝이며 간판, 부서져나간 매대,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안해…숨진 안해를 불안은채 어머니와 아이들이 끼이끼이 울고있었다. 트럭을 타고 달려든 피뢰군놈들이 막아서는 안해를 총탄으로 가습히고 약방을 털어간것이다.

이 원쑤를!…이 원쑤를!… 나는 온몸을 와들 와들 떨며 울지도 못했다. 바로 그래서 인민군대에 의하여 서울이 해방되자 주저없이 이 길에 나섰던것이다…

《앞으로 전달, 속도 빨리!》

묵묵히 흘러가는 대오에 다급한 구령이 걸음을 재촉한다.

그래, 빨리 가야지! 원쑤를 갇아야지!

걸고 또 걸었다. 빨긴 솟덩이를 밟는듯 밀바닥이 화끈거렸다. 그래도 입술을 사려몰며 걸었다.

했건만 나의 육체는 나의 마음에 질질 끌려만 갔다. 아무리 재게 다리를 눌러도 옆사람과의 거리는 자꾸만 멀어졌다. 땀물이 흘러든 눈알이 쓰러난다. 언제면 쉬려는가?…저도 모르게 조이철의 옆구리를 건드리려던 나는 와들 놀라며 손을 움츠렸다.

《아바이, 행군중에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묻기만 하면 튀어나올것만 같은 그 목소리가 두려웠다.

마치 내 마음속을 엿보기라도 한듯 조이철이쪽에서 나를 여겨본다. 걸음반을 늦추어 나와 나란히 걸으면서 그는 손을 뻗쳐 나의 배낭끈을 움켜쥔다.

《?…》

어찌라는건가?…

그는 배낭끈을 툭툭 채며 《벗으십시오.》하고 예상의 부드럽고도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배낭을 벗었다. 그러자 조이철은 자기의 배낭우에 나의 배낭을 훌쩍 올려메더니 멀어져간 앞사람을 쫓아 잔걸음을 놀리는것이였다.

나는 홀가분해진 몸으로 그를 쫓아갔다. 생각 같아서는 그대로 걷고싶었지만 땀으로 질린해진 그의 잔등이며 얼굴을 보고는 그럴수가 없었다.

《인주시유. 내 배낭이야 내가 메고 가야지요.》

하지만 조이철은 내 말을 들었는지 먹었는지 아무 대꾸없이 수격수격 걷기만 하였다. 또한번 간청하자 그는 피곤이 몰린 빨긴 눈동자로 나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군대란건 어려울 때 동무들의 방조를 받을줄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고 중얼거렸다.

《그래두…힘들기야 피차 매일반인데…》

바로 그때, 우리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기라도 한것처럼 뒤쪽에서부터 구령이 들려왔다.

《앞으로 전달, 대오속에서 말하지 말것!》

그 구령은 우리 두사람의 머리를 지나 메아리마냥 앞으로 앞으로 흘러갔다.

《…대오속에서 말하지 말것!》

…

《대오속에서 말하지 말것!》

행군을 시작한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중대는 자그마한 시내가 근처에서 숙영하게 되였다. 휴식구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나는 무너지듯 풀썩 주저앉아버렸다. 온몸이 땅속으로 녹아내리는듯싶었다. 담배생각도 났지만 꺼내기조차 싫어 단념해버렸다. 숲속 여기저기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탄세상에서 들려오는듯 아득해졌다.

《여기 계셨군요.》

조이철이가 싱글벙글 웃으며 다가왔다.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걸 보십시오.

동무들이 우릴 부릅니다.》

그가 가리킨쪽을 바라보았다. 둘러앉은 병사들이 이쪽을 향해 손짓한다.

나는 사양했다. 가고싶지 않았다. 이렇게 조용히 혼자 앉아 쉬는것이 나에게서는 훨씬 마음이 편하였다.

별수 없다고 생각했던지 조이철은 내곁에 앉아 버린다.

《행군이 힘들었지요?!》

측은한 눈매로 나를 바라본다.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눈길... 그 한마디가 눈물이라도 솟구칠만큼 고마왔다.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무서운 피곤이 덮쳐든다. 눈앞이 부에진다. 머리우에 벼락이 떨어진대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겠다. 이대로 드러누워 열흘이고 한달이고 내쳐졌으면...

그러나 그토록 간절한 나의 소원에는 아랑곳없이 중대는 다시 정렬하였다. 각 분대에서 두사람씩 밥지을 인원을 뽑아 놓더니 또 어디론가 달려간다. 탄약운반에 동원된다는것이였다. 우리 분대에서는 조이철이와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내가 떨어졌다.

어째서인지 조이철은 입술을 한발이나 내민채 박아놓은 말뚝마냥 우두커니 서있었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멀어져가는 중대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수림속으로 사라진 대오가 더는 보이지 않을적에야 죄없는 잔술포기를 걸어차며 《체, 이젠 아직 두 막내취급이야!》하고 두덜거리는데였다. 입대날자로 순서를 매긴다면 자기 조이철이가 아니라 이 박형근이가 막내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불평이었지만 나는 그때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다만 그저 녀자들이나 하는 《시시한》 일거리를 맡기가 싫어서 그러는줄로만 알았다. 어쨌든 그 뿌루통한 모양이 꼭 밥그릇이 닳다고 비쭈해서 돌아앉으려던 나의 철부지 아들녀석과 신통해서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조이철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어색한 낯빛을 지으며 이내 눈길을 돌려버렸다. 그래도 구대원이랍시고 나같은 《햇내기》앞에서 체면을 잃었다고 후회하는 모양이였다. 그는 맥폴린 거동으로 분대원들의 배낭을 주섬주섬 모아놓더니 밥통들을 풀어내기 시작하였다.

《아바이,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말이슈? 마흔한살이웨다.》

《마흔한살? 저-거! 나보다 두곱하구두 남누만요! 저-거-》

그 무슨 신비한 의미라도 발견한듯 눈알이 윙글거리고 입을 딱 벌리는 모양이 어쩌나 우습고 귀엽성스러웠던지 나는 군복을 입은후 처음으로

허허허 하고 소리내어 웃었다. 내가 웃자 그역시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였다. 그는 칼로 베듯 웃음을 딱 그치더니 《아바이.》하고 조용히 불렀다.

《?》

어째서인지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하였다. 물기를 머금은듯싶은 드맑은 눈동자...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진하고 정직한, 인간이 갖추어야 할 고상한 모든것들이 그 눈동자에 다 담겨져있는것만 같았다. 마침내 그는 발치로 시선을 떨구며 주눅이 든 어조로, 하지만 위협기가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저한테 엽을 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

《꼭 그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바인 우리 아버지와 동갑이거든요.》

《! ...》

조용히 울리는 그의 말에 나의 가슴은 뜨거운 불덩이에 닿기라도 한듯 몽클해졌다. 그 짧은 한순간에 두고온 모든것에 대한 그리움이, 더우기는 사랑스러운 아들의 류달리 길고 가느다란 목대며 옷을적마다 반짝이던 덧이, 때없이 쿵쿵거리는 코소리를 떼어주려고 주먹까지 쳐들군하던 그 모든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눈앞이 흐려왔다.

《밥지을줄 압니까?》

그가 묻는 말이였다.

나는 대답이 궁해졌다. 밥짓는 일에는 눈뜬 소경이나 마찬가지였다.

조이철은 알만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밥은 내가 짓겠습니다. 그대신 내 이제 쌀과 찬거리를 씻어올동안 나무를 해다가 불을 살구십시오. 알겠습니까? 불을 피울줄 알겠지요?》하고 따지는듯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예, 그야 뭐...》

나는 선선히 대답했다.

밥을 짓겠으니 불을 피우라! 결국은 이것이 총잡고 전선에 나선 어제날의 약방주인에게 차례진 첫 임무인셈이다.

그래, 원쑤와 싸우자면 밥도 먹어야 하고 밥을 먹자니 불을 피워야 하는거지! 기꺼운 마음으로 산기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땔나무를 해왔다. 조이철이 정해진 집채만한 떡바위밑에서 불피울 차비를 하였다. 청신한 새벽공기, 재잘거리는 새소리...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주머니를 뒤져 종이를 얻어냈다. 종이장에 불을 붙인 다음 잔가지 몇가지를 올려놓았다.

밤이슬에 젖은탓인지 나무가지에 붙달릴 사이없이 종이장만 훌쩍 타버렸다. 주머니를 뒤졌지

만 불을 붙일만한 종이가 더는 나지 않았다. 사방을 두루 살펴보다가 마른 풀잎을 한웅큼 뜯어왔다. 성냥불을 켜대자 제법 불길기 치솟는다. 하지만 웬걸, 잔가지들 올려놓기가 바쁘게 푸르르 불길기 사그라진다. 제기랄!

땅바닥에 배를 붙이고 입바람을 일구었다. 푸- 푸- 입바람을 불 때마다 불씨가 빨강게 살아난다. 하지만 눈물을 줄줄 흘리며 불어댔지만 연기만 실실 피어날뿐 야속하게도 불은 피어날줄을 모른다.

《아직두 못살렸습니까?》

머리우에서 조이철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

나는 화닥닥 놀라며 고개를 쳐들었다.

원 이런, 벌써 오디나? ... 불을 살구지 못한것이 마치도 그의 때이른 출현때문인것처럼 생각되었다. 하지만 생각이야 어땠든지간에 결국 나는 것처럼 단순하고도 험한 첫 임무조차도 수행하지 못한셈이었다.

미간을 찌프린 조이철은 나의 불피우는 궤라서이며 한줌만한 나무단을 번갈아 바라보고나서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도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어머니가 집안을 란장판으로 만들어놓은 어린 자식앞에서 손맥이 풀려 한숨을 짓는듯한 그런 표정이었다.

밥통들이며 고등어궤미를 내려놓은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숲속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나는 할바를 몰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가 사라진 쪽을 멍청히 바라보았다.

잠간새에 조이철은 아름이 벌게 땀나무를 해안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불피울 차비를 하였다. 마른 솔잎을 한웅큼 굵어다놓더니 그우에 잔가지들을 꺾어 차곡차곡 세워놓는다.

《아바이, 불이란것두말입니다.》 하고 그는 나무가지를 툭툭 꺾으며 중얼거렸다.

《동무가 많아야 잘 핀다구요. 알겠습니까? ... 아 고렇게 아이들 드꼬방살이하듯이... 서너가지만 난닥 올려놓았으니... 외로워서 필게 뭘니까?》

조이철은 성냥불을 켜더니 솔잎에 가져다댔다. 나는 툭툭히 망신을 당한지라 비뚤어진 눈으로 그의 불피우는 모양을 바라보고있었다. 아들벌에나 처야 할 새과판 녀석이 말끝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하며 가르치려드는것자체가 나의 비위를 몹시 상하게 하였다. 뭐? 동무가 많아야 잘 핀다구? 흥, 얼마나 잘 피우나 보자!

하지만 바르지 못한 나의 심보와는 달리 그 한줌의 솔잎이 타면서 처음엔 저가락같은 나무뿔가치에 살듯말듯 불이 달리더니 그다음엔 뭉쳐선 나무가지들 한복판에서 시뻘건 불길이 불끈 치솟는다.

거 참 신통한걸?!... 동무가 많아야 불이 잘 불

는다?! ... 아하, 그럴테지!

다른 때도 아닌 준엄한 전쟁마다에서 다른 일도 아닌 모닥불피우는 법을 배우며 이처럼 탄복하게 될줄이야 어찌 상상인들 했으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였다.

《자, 이제부터 밥을 짓겠으니 잘 보십시오. 밥들은 이렇게... 이만큼 잡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는 밥통뚜껑을 열어 내 눈앞에 가져다보이면서 《가마밥은 손잔등이나 적실만큼 물을 잡아야 하지만 밥통으로 지을 땐 좀더 많이... 이만큼... 알겠습니까?》하고 마치 어린 아이에게 손잡 쥐는 법을 배워주듯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해댄다.

《예...》

얼친 사람마냥 열떠름히 대답하자 그는 싱긋 웃으며 모닥불가에 짝지발들을 세웠다. 막대기에 밥통들을 주런히 꺾여 올려놓는다. 그리고는 고등어토막들을 꼬챙이에 꺾여 굽기 시작하였다. 그 모든 일들의 마디마디에 《알겠습니까?》, 《봤지요?》라는 식으로 나의 대답을 받아내는것만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가 묻는대로 나는 《예.》, 《했습니다.》 하고 철새없이 대답해야 하였다.

고등어가 구워지는 고사한 기름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하였다. 그제서야 나는 비로소 배고픔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조이철이 일하는 모양을 멀거니 바라보며 《예.》, 《예.》 하고 대답이나 하며 앉아있느라니 졸음이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어린 사람앞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감겨지는 눈가물을 막아낼수가 없다. 너울너울 타오르는 불길... 유령인양 불앞에서 얼른거리는 조이철... 《생각은 장하다만 네 나이에 총을 메고 젊은 사람들을 따라다니겠느냐》고 걱정하면서 문밖멀리까지 배려해주던 근심 많은 어머니의 작은 얼굴이 조이철의 모습을 밀어버린다. 마치 약이나 구하러 시내로 들어가는 아버지를 배려우듯 《빨리 와!》 하며 생글생글 웃던 굵디고운 팔애의 얼굴이 애모쁘게 안겨온다. 사내람시고 배낭을 메다주느라 마지막까지 따라나서던 아들...

《자, 등을 기대십시오.》

불앞에서 고등어를 굽는줄 알았던 조이철이가 어느새 내 잔등에 배낭들을 가져다 기대여준다. 나는 화닥닥 놀라며 뿔쳐일어났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허연 김을 칙칙 내뿜는 밥통들, 희벗한 새벽빛에 우중충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한 산발들... 어머니도 팔애도 아들도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대신 돈뎀마냥 동그래진 눈으로 놀랍게 바라보고있는 조이철의 얼굴이 마주서있다. 어찌면 저리도 맑은 눈동자인가?

《힘들지요?》

동정어린 목소리… 나는 조이철의 그 목소리를 두번째로 들었다.

《아-니…》

나는 황황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조이철이 나의 마음속 깊이까지도 꿰뚫어보는것만 같은 그 드맑은 눈동자로 한참동안이나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처음 하는 일엔 누구나 서툴구 힘이 들지요 뭐. 더구나 아바인 나이도 많은데…하지만 이제 차차 익숙이 되면 험해질겁니다.》

《…》

《자, 앉아서 기대십시오. 이제 뭐 할일두 없는 데.》

그는 막무가내로 나를 놀려앉혔다. 배낭에 기대라며 자꾸만 내 어깨를 떠민다. 정말 로인치부를 할 잡도리다.

《아 아…이거…아 이러지 마시우.》

《또 또…엎을 쓰지 말란데두…》

그는 마치 내앞에서 어리광이라도 부러보려는 듯이 눈을 딱 부릅떠보인다. 그레놓고는 이내 씩긋 웃어보이며 모닥불가로 물러났다. 그의 젊음이, 그의 밝음이 나의 육체에 감염되기라도 하는 듯 나의 마음은 흥그러워졌다. 피곤은 천리만리로 사라져버렸다.

밥이 다 될 때까지도 중대는 돌아오지 않았다. 구수한 밥냄새, 고소한 불고기구이냄새가 또다시 창자를 자극하기 시작하였다.

《시장하시지요?!》

나의 배속을 뻘히 들여다보는듯한 그 물음에 나는 또다시 당황해졌다.

《괜찮습니다.》

《아바인 거짓말쟁이군요. 나두 배가 고포네 아바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는 내앞으로 밥통 하나를 내밀었다. 먼저 먹으라는것이다.

《일없다니까.》

나는 굳이 사양했다. 그러자 그는 마치고 손아래사람의 기특한 소행에 감심하는듯한 그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하긴 밥이란것두 동무들과 같이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그렇지요?》

《아, 그야 물론…》

무릎을 세우고 모닥불가에 나란히 앉은 우리 두사람은 중대를 기다리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체로는 내가 묻고 그가 대답하는 식으로 번져졌다.

…가없이 펼쳐진 푸르른 바다, 정답게 울어예는 갈매기떼, 섬이며 조개며 갈매기알들로 가득찬 도래곶이,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출렁이는 파도소리, 바다를 향해 오בות 앉은 마을…이것이 내 눈앞에 펼쳐보인 그의 고향마을이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것처럼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장이 더는 없을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경치만 좋은줄 압니까? 사람들의 맘씨는 또 얼마나 곱다구요. 올해 봄에 제가 인민군대에 간다니 온 동네가 명절처럼 뫼었답니다. 저저마다 자기네 집에서 식사를 시키겠다며 나를 잡아끄는데 아 글썄… 온 마을이 한집안식구처럼 지내는 처지에 누구네 집엔 가고 누구네 집엔 안가겠습니까. 얼마나 딱하던지. 집에 붙어있을새 없이 이집 저집으로 끌려다니는 나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웃음절반 눈물절반 고마움에 젖은 목소리로 <이철아, 이러다간 이 에미가 떠나는 날까지 너한테 밥한끼 해먹일 짬도 못얻어내겠구나.>

하시겠지요. 좀해서는 집안일에 참견하지 않던 아버지까지도 <그게 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장군님 찾아주신 고마운 이 세상을 잘 지켜달라고 그러는게다. 알겠느냐? 어른들앞에서 홀라닥거리지 말구 처신을 잘해야 한다.> 하시겠지요.

백번 옳은 말씀이었지요. 우리 아버지 배군이여서 그런지 얼마나 엄한지 모른답니다. 난… 난…》

어느결엔가 그는 끄덕끄덕 즐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끄덕거리다가 턱을 가슴팍에 구겨박더니 다르릉다르릉 코까지 끌어대며 굳잠이 들어버렸다.

고요한 정적… 탁탁 나무라는 소리만이 이따금씩 들릴뿐이다. 경치도 좋고 인심도 좋은 바다마을, 조이철의 그 별나라같은 고장에 가보고싶다.

계딱지마냥 숨막히게 들어앉은 판자집들, 먼지, 악취, 싸움질…속이고 속히우고 내것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고장-이것이 바로 내 고향-서울바닥의 풍경이었고 인심이였다.

이제는 날이 다 밝았다. 멀지 않은 그 어디에선가 쿵 쿵 포소리가 들려온다. 잠든 조이철을 물끄러미 지켜보느라니 그에 대한 편민의 정이 꿈틀 뒤채인다. 그라고 힘들지 않을리 만무하고 배가 고포지 않을리 만무하건만 생면부지의 남을 위해 그토록 마음써주는 그가 더없이 돋보였고 사랑스러웠다. 그를 위해 나도 무엇인가를 위해 주고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배낭이라도 배워 편안히 눕혀주고싶었지만 그러다 공연히 모처럼 차례진 단잠만 깨워놓을것 같아 단념하였다. 아마도 내 인생에 순간이나마 진심을 담아 남을 생각해본것은 이때가 처음일지도 몰랐다.

어쨌든…두렵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한 나어린 이 전사는 전선길에서 내가 사귀고 정을 붙인 첫 동무였고 첫 전우였다. 그리고 《모닥불도 동무가 많아야 더 잘 된다.》는 《진리》와 군용밥통으로 밥짓는 법을 가르쳐준 전선의 첫 《스승》이었다.

×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충분한 휴식과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춘 중대는 어둠이 깃들자 또다시 행군길에 올랐다. 무엇때문에 어디로 가고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휴식도 없이 약 두시간가량 무서운 속도로 행군하여 어느 한 산기슭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있던 대위 (후날에야 그가 런대 정찰참모라는것을 알았다.)의 길안내를 받으며 산으로 올랐다. 조이철은 귀속말로 나에게 맞은편 산에 적이 있다는것을 알려주었다.

적진은 무시무시한 정적속에 잠겨있었다. 어둠속 어디에선가 밤고양이마냥 눈을 부릅뜬 적들이 이 박형근이만을 노려보는것만 같은 무시무시한 생각에 으시시 몸이 떨렸다. 무거운 짐이라도 지고있는듯 호흡이 가빠졌다.

중대장과 마주서서 무슨 말인가를 수군거리는 대위, 그 옆에 나란히 서있는 군관들, 나무밑등이며 바위너설에 등을 기댄채 말없이 앉아있는 병사

들...나의 바로 곁에서는 조이철이가 퍼더버리고앉아 밤하늘을 쳐다보며 명상에라도 잠겨있는듯싶다. 나의 눈에는 이들 모두가 죽음과는 인연이 없는 판세상 사람들처럼 여겨졌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첫 전투에 들어서는 나의 심리상태였다.

잠시후에 중대는 정렬했다.

적의 배후로 진출하여 퇴로를 차단할것!-이것이 중대가 받은 전투임무였다. 소대별 분담과 행동질서, 주의사항들을 지적하는 중대장의 목소리가 낮으나 엄숙하게 울렸다.

그다음 어둠을 뚫고 소리없이 산기슭으로 내려섰다. 또다시 멈춰선 중대는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숨가쁜 한초한초를 흘려보냈다. 그 어떤 무시무시한 위협이 당장 나의 온몸을 덮칠것만 같은 두려움으로 이발이 딱딱 마주쳤다.

바로 그때, 아주 가까이에서 붉은 신호탄이 불끈 솟아올랐다. 때를 같이하여 어마어마한 포성이 터져올랐다. 보총, 기관단총, 중기관총...예광탄 불소나기가 적진을 향해 쏟아져나갔다. 적진 쪽에서 아우성소리, 비명소리가 터져오른다. 꿈속과도 같은 정적속에 잠겨있던 산골짜기가 부르르 몸서리를 친다.

그것은 우리 중대를 적후어로 은밀히 들여보내기 위해 조직된 거짓전투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몰랐다. 아니, 총성이 터져오르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있었다. 그 누군가가 나의 잔등을 꼭 잡아채서야 별떡 일어섰

다.

《빨리!》

다급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쫓아 정신없이 달렸다. 다들 어디로 갔는가? 조이철은 어디에 있는가?...무엇엔가 발부리가 걸쳐어 사정없이 나뒹굴었다. 눈앞에서 붙쳐가 된다. 다시 벌떡 일어나 달렸다. 목소리임자에게서 떨어지면 끝장이라는 오직 그 한가지 생각뿐.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앞에는 아무도 없다! 우뚝 멈춰섰다.

다들 가버렸구나!...천길나락속에 홀로 떨어진듯한 무서움, 배반당한 아픔으로 하여 온몸은 돌처럼 굳어졌다. 나를 위해주던 다정한 그 목소리들, 따뜻한 그 눈빛들...그 모든것은 거짓이였는가? 위선이었던 말인가? 아!...

《아바이.》

나를 찾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뜻밖에도 등뒤에서 들렸다. 돌아섰다.

그 사람은 무엇을 잃었는지 허리를 잔뜩 구부린채 땅을 더듬고있었다. 왜 저럴까?

《아, 여기 있습니다.》

그가 바로 조이철이었다. 어둠속에서 찾아낸 길다란 그 무엇인가를 나의 손에 쥐여준다. 그제서야 나는 어푸러질 때 내 몸에서 보총이 떨어져나갔다는것을 깨달았다.

아 총! 총!...총을 잃다니?!...뜨거운 수치가감이나의 얼굴을 후려갈겼다.

《덤비지 마십시오. 아무일도 없으니깐요. 알겠습니까?》

숨막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휘파람소리같은 속삭임으로 나의 귀전에 소리친다. 그리고는 나의 손목을 꼭 틀어잡고 달려간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손을 거쳐 나의 온몸으로 굽이쳐온다!

나의 곁에 전우가 있다! 조이철이가 있다!...이런 사람들을 의심하다니?!...눈곱이 젖어들었다.

아무 일도 없단 말이지?! 그럴테지. 조이철의 말이니까. 공연히 덤뻐다니까.

조이철이와 함께 대오를 따라잡은 그 순간부터, 마치도 죽었던 자식이 다시 살아오기라도 한것처럼 말없이 나의 손도 억세게 잡아주고 잔등도 두드려주며 기뻐하는 분대장이며 소대장, 병사들속에 휩싸인 그 순간부터 아직은 이름조차 익히지 못한 초면의 이 사람들이 나를 낳아주고 품어주고 먹여주고 키워준 부모님들 이상으로 가깝고도 귀중하게 여겨졌다. 살얼음장과도 같이 아슬아슬한 적구의 밤길을 걸으면서 나는 오로지 한가지 생각만을, 묵묵히 걷는데만 열중하고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한발자국도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을 하고있었다. 숨을 돌리느라 잠시 쉴 때에조차 누가 오라고 찾는 사람이 없어도 그들과 어깨 나란히 앉아있곤하였다. 그



렇게 말없이 앉아만 있어도 무어라 감히 이름할 수 없는 친근감과 믿음, 뜨거운 정이 사뭇치며 오가는것을 느낄수가 있었다.

짧다고는 할수 없는 나의 인생에 이때처럼 사람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 친근감을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다.

물론 약방의 매대에서도 매일 매시각 사람을 기다리며 서있었다.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 때면 미친듯이 안타까와하곤하였다. 그러나 그때 내가 기다린것은 뜨거운 심장을 간직한 참사람들이 아니라 돈주머니가 볼록한 구매자들이었다.

×

한밤중에 중대는 자동차길이 허영게 내려다보이는 야산봉우리에 도착하였다. 대오가 멈춰서기 바쁘게 소대장들이 달려갔다.

잠시후에 중대는 다시 소대별로 갈라져갔다. 내가 속한 제2소대는 중대지휘부와 함께 그자리에 남고 200미터가량 떨어진 다음 봉우리로는 1소대가 떠나갔다. 다른 한개 소대는 길 건너 맞은편 봉우리를 차지하였다.

전투는 전호굴설도 채 끝내기전에, 새벽빛이 푸름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군주력의 공격앞에 퇴각해오는 적들을 상대로 우리 소대와 길 건너편 소대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얼마를 못가서부터는 1소대마저 남쪽으로부터 투입되는 적의 증원력량을 상대로 힘겨운 전투에 휘말려들었다.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였지만 이날처럼 엄청난 적을 상대로, 이날처럼 치열하게 겪은 전투는 기억되지 않는다. 어쩌면 이날의 전투가 나로서는 두개의 《전선》에서, 하나는 눈앞의 적과 다른 하나는 내 육체속의 나약성과 피어린 결투를 벌려야 했던 첫 전투인 까닭에 그렇게 생각되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적들은 넓은 도로와 산기슭을 시체로 덮으면서도 악착스럽게 달려들었다. 앞뒤로 달려드는 적들로 하여 중대는 사실상 포위속에 든것이나 다름없었다.

전우들이 쓰러져갔다. 전호들이 무너져내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적은 불어만나는데 중대는 줄어만 갔다. 중대의 운명은 시시각각으로 험악한 상태에 빠져들어가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나는 조이철이와 함께 중대장의 다급한 호출을 받았다. 중대장은 피가 랑자한 팔에 봉대를 싸맬 겨를도 없이 전투를 지휘하면서 우리 두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연락임무를 주었다.

《1소대장에게 전할것, 소대우익으로 적이 우회하지 못하도록 화력봉쇄를 강화할것, 차지한 계

선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말것, 탄약을 아끼것. 복창하오!》

명령을 복창시킨 중대장은 가는 길에 탄약을 한상자씩 메고 갈것을 지시하였다.

곧추 가면 10분? 5분? 아니, 그보다도 더 빨리 가달을 거리였으나 적을 피하느라 고지후면으로 에돌아야 하였다.

있는 힘껏 달렸다. 산비탈을 구울듯 달려내려가던 조이철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아바이, 빨리!》

산길에 익숙되지 못하는데가 탄약상자까지 메고 쫓아가느라 덤벼치다니니 나는 연방 넘어졌다. 무르락이 깨져나가는것 같았다. 싸리며 분지며 소나무가지들이 얼굴을 때리고 갈퀴였다. 볼따귀에서 피가 줄줄 흐른다.

입술을 사러물고 달렸다.

그래도 내리막에서는 괜찮았다. 울리막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단박에 목에서 쇠비린내가 풍겼다. 땀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숨이 막혀 걸을수가 없었다.

저만치에 앞서오르던 조이철이가 쭈르르 미끄럼을 타며 되돌아왔다.

《아바이, 빨리! 조금만... 오르면 됩니다.》

그 역시 세차게 숨을 쉴면서도 나에게 손을 내민다.

사양했다. 다시 걸었다. 걷는다가보다는 기어오른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잠깐만! 잠깐만이라도 숨을 돌렸으면!... 더는 못걸겠다.

《야 참, 빨리요!》

오히려 제편에서 울상이 된 조이철이가 어찌나 안타까왔던지 발을 동동 구른다.

안긴힘을 쓰며 걸었다. 야단났구나! 못가겠다! 심장이 터질것만 같다. 어쩌면 좋을가?...

섰다. 눈을 감았다. 칼로 찌르는듯싶은 심장의 아픔에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새어나간다. 《빨리요, 빨리!》라는 판에 박은 조이철의 채촉소리가 꿈결처럼 아득하게 들려온다. 저벅저벅 다가오는 발자국소리... 발자국소리가 멎었다.

눈을 떴다. 나의 눈앞에는 이 며칠어간에는 보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낯선 얼굴이 마주서있었다.

《감시다.》

나는 다시 눈을 감으며 절레절레 도리머리를 저었다.

《정... 이럴내깁니까?》

쌀쌀한 목소리!

다시 눈을 떴다. 쪼프린채 나를 쏘아보는 두눈에서는 서늘한 랭기가 풍긴다. 저 표표한 얼굴을 내 손으로 만져볼수만 있다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질것만 같았다.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발을 내짚었다. 다

리가 후들거린다. 무수한 벌찌들이 좁파리마냥 눈앞에서 아물거린다. 또 어푸러졌다. 아!... 얼굴을 땅에 박은채 어머니를 불렀다.

《일어-셋!》

칼날같은 구령소리... 고개를 쳐들었다. 놓쳐버린 나의 탄약상자까지 두어개에 올려놓은 조이철이가 두다리를 번디딘채 나를 내려다보고있다.

웬일인가?... 잘못보았는가?... 나를 내려다보고있는 그 눈동자에서 물기가 번들거리고있다! 아니, 정말이다. 가랑가랑 차오르는 그 눈물은 금방 넘쳐날판이다. 왜 저런가? 이 박형근이가 불쌍해서일가?...

《아바인... 다 아실텐데... 여기서 이러시면 전 어찌랍니까. 고지에선 전우들이... 피를 흘리고있는데...》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는것은 내가 아니라 조이철이었다. 그 몸부림, 그 안타까움에 의지하여 일어서고싶었지만 온몸은 땅에 들어붙기라도 한듯 떨어지지 않는다.

《먼저... 가지지요. 내 인춤...》

나의 목소리도 물기에 젖어있었다.

조이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파르르 떨고있는 입술, 처녀애들마냥 빨간 그 입술에서 《전사 박형근!》 하는 나직한 구령소리가 흘러나왔다.

《일어-셋!》

속삭이는듯싶은 그 구령에서는 섬찍한 그 무엇이 풍기고있었다.

나는 그 어떤 알수 없는 서러움에 왈작 눈앞이 흐려왔다. 아마도 그것은 방금전까지 불러주던 《아바이》라는 친근한 부름대신에 박형근이라고 불러준, 뜻밖의 하대를 당한때문인지도 몰랐다. 그 설음이 땅에 들어붙은 나의 육체를 일으켜세웠다.

《앞으랏!》

걸었다.

《빨리!》

달렸다. 내가 달리는것이 아니라 그의 구령, 그의 의지에 나의 육체, 나의 넓이 실려가고있었다. 가파로운 바위, 우거진 나무숲을 헤가르며 허둥지둥 달렸다.

무서운 사람! 무정한 사람!... 뭐? 자기한테 제발 엮을 쓰지 말아달라구?! ... 흥! 입에 침바른 소리지! ... 허겁지겁 달리면서 내 무슨 생각인들 안했으랴.

바짝 나를 따라서는 조이철의 발자국소리, 거친 숨소리가 나의 잔등에 채찍질이라도 해대는 듯싶다.

마침내 가파로운 비탈길이 끝이 났다. 가슴이 확 트이는것만 같았다.

바로 그 순간에 조이철이가 나의 어깨를 잡아

당겼다!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어느결에 탄약상자들을 집어던진 조이철이가 보충을 벗겨들며 나의 어깨너머 어딘가를 쏘아보고있었다.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된 얼굴에서는 두눈동자가 숏덩이처럼 황황 불타고있었다.

《아바이, 빨리! 목표 적화염방사수!》

나는 그가 무엇을 어찌라는것인지 미처 깨닫지도 못한채 본능적으로 총을 벗겨들었다. 뒤미처 서야 산릉선 저 앞쪽에서 얼른거리는 한무리의 적들을 보았다. 그리고 좌지를 잡고 사격태세를 취하는 화염방사수들의 잔등도 보았다.

조이철의 보충이 불을 뿜었다. 가운데놈이 피상한 비명소리를 지르며 나뒹군다. 나도 성급히 총을 겨누었다.

우리를 발견한 적들속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적탄이 비발치듯 날아왔다. 화염방사수들이 이쪽을 향해 돌아선다.

팔이 후들거렸다. 가슴은 터질듯 쿵당거린다. 도저히 겨눌수가 없다.

나와 조이철은 거의 한순간에 방아쇠를 당겼다. 따당! 하는 야무진 총성과 함께 나는 어마어마한 불타래가 나의 눈앞으로 덮쳐드는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불타래보다 먼저 몽클하고 텅텅한 그 무엇인가가 사정없이 나를 쓰러뜨리며 덮쳤다. 나는 젖먹는 힘까지 다내어 나를 덮친놈을 (나는 분명 그렇게 생각했다.) 힘껏 떠밀쳤다.

아, 나에게 떠밀리워 나뒹군것은 적이 아니라 조이철이었다! 온몸이 까맣게 불에 그슬린 조이철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다시 엎드리며 땅바닥을 손더듬질한다. 총을 찾고있었다.

나는 총을 들었다. 방아쇠를 당겼다. 헛방이라도 쏘았다. 또 헛방이다. 그다음엔 뒤미처 총을 찾아든 조이철이가 거의 동시에 방아쇠를 당겼다.

놈이 쓰러졌다. 어느 총에 맞았는지는 알수가 없다. 어찌된 일인지 나머지 적병들은 갑작스럽게 줄행랑을 놓기 시작하였다.

나는 의식을 잃은채 쓰러져있는 조이철을 돌쳐 업었다. 그리고는 모지름을 써가며 탄약상자 두개를 한쪽어깨에 올려놓았다.

일어섰다. 비칠거리며 걸었다. 내 육체의 어느 구석에 이렇게도 무서운 힘이 스며있었는지 나로서도 알수 없었다.

조이철이가 정신이 드는지 뭐라뭐라 중얼거리며 나의 잔등을 떠박질렀다. 아마도 자기를 내려놓고 가라는 뜻인 모양이다. 어찌나 세게 떠박지르는지 당장 떨어질것만 같았다. 위태롭게 비칠거리면서도 나는 그를 놓지 않았다.

이철이!... 네가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어?!... 네가 아니었더라면... 난

벌써 불에 타죽었을거야. 자넨 정말 훌륭한 젊은  
이야. 이제 전쟁이 끝나면 대단한 사람이 될거야.  
두고보라니, 틀림없다니까.

이젠 나도 알것 같구만. 너와 나는, 아니, 우리  
모두는 혼자서는 살수 없어! 그러니 나도 너를  
버릴수 없는거지. 알겠어?... 그만 떠밀라구. 힘들  
어 죽을 지경이라니까!... 암만 그대봐야 소용없  
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를 버리지는 않을테니  
까!...

눈물이 앞을 가려 걸을수가 없었다.

하늘이 기울떡거렸다. 땅이 흔들거렸다. 그대도  
조이철을 놓지 않았다. 단 며칠전까지만 하여도  
오로지 《나》하나만을 생각하던 이 박형근이가  
남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나니?!... 하지만 나는  
자신의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 느끼지조차 못하  
고 있었다.

나의 이러한 변화를 두고 누구보다도 기뻐하였  
을 조이철!... 그러나 그는 제1소대의 진지에 채  
가닿기도전에 나의 잔등에서 영원히 잠들고있었  
다.

×

그날밤, 중대는 새로운 전투마당을 향하여 또  
다시 길을 떠났다. 험격한 전과를 거두고 떠나는  
길이였지만 사랑하는 전우들의 봉분을 뒤에 남  
기고 떠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  
만 하였다.

이밤에는 입과 입을 건너뛰며 파도쳐가고 파도  
쳐오던 구령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새벽녘에 속  
영지에 도착하여 모닥불에 밥을 지으면서도 누구  
하나 웃고 떠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 다음날 저  
녁, 새로 입대한 여덟명의 전사들이 도착한 그때  
부터야 중대는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형군동무!》

분대장이 나를 부른다. 달려가니 사과알같은  
두볼이 툭 튀어나온, 인형처럼 귀엽성스럽게 생  
긴 전사 한명을 내앞에 세워준다.

《자, 이제부터 어디를 가든 함께 데리고 다니  
오. 잘못되는날엔 책임질줄 아오. 알겠소?》

《알았습니다.》

나의 가슴은 갈가리 찢기는듯싶었다. 전사를  
뒤에 단채 묵묵히 모닥불가로 갔다. 그리고 잘  
익은 밥통 하나를 골라 말없이 내밀었다.

《아바이두 같이 잡습시다.》

전사는 방그레 웃으며 나를 쳐다본다. 아, 드뭇

은 눈동자!...그 눈을 마주보기조차 두려웠다. 울  
컹 치미는 눈물을 삼키며 나는 절레절레 도리머  
리를 저었다. 그랬더니 전사는 밥통뚜껑을 훌 닫  
아버리는것이였다.

《왜? ... 식기전에 먹지 았구...》

《아바이가 안잡수면 저두 안먹겠습니다. 밥이  
야... 같이 먹어야 맛있지요워. 그렇지요?》

나는 전기에라도 닿은듯 저도 모르게 흠칫 몸  
을 떨었다. 전사의 얼굴을 다시한번 찬찬히 바라  
보았다.

《고향이 어디요?》

《대동군입니다. 대동군 서포리.》

《!...》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꺼내몰았  
다. 그리고 아직도 그물그물 타고있는 모닥불무  
지에서 꼬챙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담배대에 미쳐 가져다대기도전에 팔팔 타오르  
던 불길은 스르르 꺼졌다. 그대신 꼬챙이끝에는  
빨간 불찌만 남았다. 담배불을 붙일 생각마저 잊  
은채 나는 서서히 죽어가는 불찌를 정신없이 바  
라보았다.

《불이란것두 동무가 많아야 잘 핀다구요. 알겠  
습니까?》

불을 피우는 묘리를 가르쳐주느라 무심히 하였  
을 조이철의 그 정다운 목소리가 나의 가슴속에  
크나큰 메아리로 울려온다. 마치도 이 박형근에  
게 복讎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되어있는 고귀  
하고도 위대한 그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려고 깊이  
깊이 새겨두었던 그런 말처럼 생각되였다.

《왜 그러니까? 어디 아픈니까?》

전사의 놀라운 눈이 나를 지켜보았다.

《아... 아니.》

나는 젖어든 눈굽을 황황히 씻어버렸다. 그리  
고는 애써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동문 군대생활  
이 참이어서 모를수 있는데...》 하고 입을 열었  
다.

《?》

《군대란건 구대원이 밥을 먹으라면 먹어야 하  
오. 알만하오?》

《예...》

영문을 알수 없어 겁먹은 낮빛으로 나를 바라  
보던 전사는 고개를 수그렸다.

그제서야 나는 들고있던 꼬챙이로 담배불을 붙  
인 다음 모닥불속에 던져버렸다. 던져넣기가 바  
쁘게 꼬챙이끝에서는 확 불길이 살아올랐다.

# 승리의 메아리

강길남

우러르면 금시  
저기 주석단 중심 높은 단상우에  
**김정일**장군님 서계시는듯  
그러면 금시 심장을 치며  
태양의 음성 찌렁하니 울릴듯싶어  
내 지금 광장에 섰노라

그 음성의 무게 다 담기엔  
우리 딛고선 이 행성이 너무도 작고  
그 음성의 장쾌함 다 비끼기엔  
구만리 펼쳐진 봄하늘도 비좁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음성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그 순간 우리 보았어라  
백두의 메부리들을 흔들고  
일제의 백만대적을 전률케 하던  
백두산의 장군 천하제일명장  
**김일성**장군님의 그 기상을

그 순간 우리 들었어라  
오만한 미제의 등허리를 찍어버리고  
전승의 광장에 장엄히 올리던  
아버이수령님의 그 음성은

정녕  
백두산 장군의 슬기와

가사

천품을 안으시고  
문무충효 겸비하시고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 천하제일명장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의 음성이어

만약 조국앞에 준엄한 날이 오면  
원썬들에게 철추를 내리시고  
통일의 대환호성을 불러올  
승리의 그 음성

내 소리높이 웨치노라  
오직 하나의 신념에 넘쳐  
하늘땅 열백번 무너지고 깨진다 해도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하늘도 열리고 땅도 솟아나라라는것을

오, 력사여 년대여  
너는 세기와 더불어 길이 빛나라라  
강철의 령장  
백두의 장군을 모시여

내 따르리라 영원히  
내 걸으리라 곧바로  
모진 격랑이 일고 광풍이 불어도  
장군님의 그 음성을 안고  
필승의 신심을 주는 그 음성을 안고

## 그 별에서 내가 사네

황윤의

창밖에 눈비와도 들을 생각하시고  
정원길에 꽃이 퍼도 농장별 그리셨네  
이 땅우에 철따라 계절은 오고가도  
수령님 사계절 마음두신 별이라네  
아 그 별에서 내가 사네

먼길을 가시여도 들길 먼저 가시고  
그 길에 피로도 별에서 다 푸셨네  
공장과 건설장 가실곳 많으셔도

수령님 언제나 먼저 오신 별이라네  
아 그 별에서 내가 사네

인민의 행복 위해 한평생 바쳐오신  
수령님의 유훈을 풍년으로 꽃피가리  
자랑 많은 내 나라에 기쁜 일 많으셔도  
풍년기쁨 제일 먼저 찾으시던 별이라네  
아 그 별에서 내가 사네

## 백두산 풍경

전계승

### 해돋이

끝없는 랑만을 안고  
백두산정 딛고서니  
천리가 불타는가  
만리가 물들었는가

노을이 비껴가는 그 끝은 어디나  
이 세상 제일 높은 산상에 서니  
큰 숨을 들이쉬고 소리치면  
온 세상이 찢렁 울릴듯

내 들고 오른 붉은기  
산정의 바위우에 우뚝 세우니

기발마저 노을을 뿌리는듯  
해돋이때 백두산은 온통 붉은 천지

해돋이  
백두산의 해돋이여  
력사에 아로새긴 위엄이 높아  
천만리로 비껴가는 해돋이

조선의 녀이 있고  
혁명의 어제와 오늘  
래일의 숨결을 안고있는 봉우리  
백두산의 해돋이는 희망의 해돋이

### 천 지

구름우의 전설깊은 호수여서  
그 이름 하늘꽃인가  
비껴선 령봉이 성벽같아  
깨끗한 정기만 넘치는가  
  
이 땅에 넘치는 기상  
이 땅에 부어주는 정기를 안고  
하늘가에 자리잡은 천지

투쟁과 삶의 젖줄기  
  
아, 천지!  
여기 올라 두손 모아 이 물을 떠마신 사람이면  
혁명의 먼길에  
누구나 갈증을 모르리라  
혁명의 만리길에  
지치지 않으리라

### 만병초

흰눈속에 싱싱 푸른 잎사귀에  
선렬들의 불굴의 기개 생각나  
  
태양을 우러러 핀 금빛꽃송이에

일편단심 충성다한 투사들 모습 떠올라  
  
내 위훈 안고 백두산에 오른 그 누구에게나  
영웅메달처럼 달아주고싶은 꽃송이로다

## 폭 포

천지물속에 잠들었던 흰구름이  
높은 벼랑 박차고 하늘의 번개를 부르는가  
계곡의 만년설도 폭포수되어  
물보라를 휘뿌리며 깊은 정적 깨치는가  
  
귀기울이면 항일의 총포성 울려와서  
붉은기의 세찬 퍼덕임이 끌려와서

그 소리에 심장의 박동 합치며  
내 마음 씻는 백두의 폭포  
  
아 나도 너처럼  
한결음에도 뜻이 있게  
온몸을 다 바쳐  
영원한 백두의 기상 온 누리에 떨치리라

## 당위원회의 문

김기철

어느 집 추녀아래서나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문이여도  
마주서면 승엄해지는  
문이여라

창가에 허영게 성에 불린 아침도  
잡으면 느낄듯  
언손 품어 녹여주신  
어머니의 따스한 온기를

삶의 굵이에 곡절이 있을세라  
마음쓰며 보살피는 손길  
좋은 날보다  
어려움이 생길 때 찾군하는  
자신의 불효함을  
내 아노라

알면서도  
죄스러운줄 알면서도  
행복에 겨운 그런 순간엔  
감감 잊었다가  
피로워야 찾아쥐노라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선  
누구나 친구로 될수 있고  
기쁨은 누구하고나 즐길수 있어도  
슬픔과 피로움은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것 아니기에  
어려움없이 그대만을 찾는것이여라

과오와 실책으로 뼈가 저릴 때  
동정으로 위로한이 있어도  
아픈매를 서슴없이 든것은  
오직 그대의 손길이여라  
매를 들어 자식을 꾸짖을수 있는건  
어머니만이 할수 있는 권리이기에

어머니의 꾸지람은 서럽지 않고  
어머니의 호된 때는 아프지 않아  
때로는 응석도 부리였으니  
진정 당위원회의 문을 열면  
마음의 문도 여는것이여라

생활의 먼길에 더없이 귀중해  
때없이 찾다가도  
발걸음 돌린적 없지 않아라  
키도 미음도 다 자란 오늘엔  
위훈없이 그앞에 서기가 땃땃치 않아라

식은적 없어라  
바뀌는 사계절 그 언제나  
따스해라  
베푸는 은정으로 바치는 효성으로  
사랑과 보답의 오가는 정으로  
아 문손잡이마저 뜨거워라

자식 위해 머리회는  
다심한 어머니의 손길처럼  
천만전사모두의 마음속에  
언제나 뜨거워라

## 조국애 불타오른 기슭에서

-삼지연에서-

최성진

1939년! 이해의 겨울은 준엄했다. 강도일제는 우리 인민의 높아가는 반일기세에 겁을 먹고 최후발악을 했다. 놈들은 조선북부국경일대의 경비진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였다.

하지만 얼음장속에서도 강물은 흐르기 마련이다.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밑에 장성강화되어온 조선인민혁명군은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력사에 류례없이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끝마치고 또 다시 조국진군의 길에 올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들은 동기<도벌>작전에서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당하고 사방에 분산된채 제 소굴에 처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넘어가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타격을 가하고 조국으로 또다시 진군하여야 합니다.》**

나는 무산지구진공작전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취를 따라 이미 5호물동, 청봉속영지와 건창, 배개봉 속영지들을 편담하였으며 삼지연을 찾았다.

5월이라고 하지만 고원의 날씨는 한낮에도 산산했다. 하지만 계절은 어김없는 봄이라 물이 오르기 시작한 봇나무며 이팝, 분비나무들이 밀림을 이룬 삼지연입구의 숲속에는 벌써 진달래가 피어났다.

참관자들은 환성을 지르며 진달래를 찾아 뛰어 들었다. 삼지연의 진달래를 보니 더더욱 반가움이 앞선것이였다.

진달래!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진달래를 사랑한다. 봄이면 조국의 산들을 붉게 물들이며 어디에나 진달래가 피어나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여러가지 추억과 함께 환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때문이라.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인민이 진달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데는 류다른 사연이 있다. 만리타향에서 조국을 그리며 싸워온 항일선렬들이 추억속에 안아보던 진달래이다.

삼지연어귀에 피여있는 진달래를 보니 5호물동가에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선인민혁명군대오가 조국에 진출하였던 그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5호물동가에 피어난 진달래를 정히 꺾어다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었는데 수령님께서는 진달래향기를 맡아보시며 조선의 진달래는 볼수록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그 순간 조국땅에 들어섰다는 감격에 목메여 진달래속에 얼굴을 묻던 대원들의 심정이 어땠으랴.

나는 그날의 투사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대기념비가 보이는 삼지연기슭으로 향했다.

백두산이 바라보이는곳에 자리잡은 삼지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9년 5월 21일 조선인민혁명군대오를 이끄시고 무산지구로 나오시던 길에 잠시 휴식하시면서 대원들로 하여금 만단의 전투준비와 행군준비를 갖추도록 하신곳이다.

나는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먼저 찾았다. 답사자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드는 삼지연못가! 우리 인민은 유서깊은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군복차림으로 쌍안경을 잡으시고 천리수해너머 아득히 뻗어간 조국땅을 굽어보고계신다. 광복의 봄빛을 안으시고 무산지구로 나오시여 혁명의 총성 높이 울리시던 그날의 숭엄하신 모습 그대로였다.

백두의 장군봉을 형상한 대돌을 디디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니 그이께서 항일전에 나서시던 그날로부터 걸어오신 험난하고 먼 길의 눈앞에 어려왔다.

우리 인민은 오늘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혁명의 붉은기를 지켜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모진 추위와 눈보라, 하루에도 수십차례 달려드는 왜놈들과의 격전... 그 모든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시며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도 승리로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날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시는것이 아닌가.

삼지연못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중심

으로 랑열에 대기념비가 서있다. 대조각군상은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그리운 조국땅으로 나온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모습과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형상하였다.

나는 대조각군상의 《숙영》편에 이르러 그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숙영》편은 조국의 품에 안겨 항일의 투사들이 감격에 목메여 잠 못드는 숙영의 밤을 형상하고 있었다. 반세기가 넘는 그날의 밤장면이 여기에 펼쳐졌는가, 우등불가에 나왔어 **《조국광복회 10 대강령》**을 한자한자 학습하는 대원, 두고온 고향을 그리듯 깊은 생각에 잠기어 바느질하는 녀대원의 모습, 다가오는 전투를 위해 기관총을 닦는 대원, 한 어린 대원은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는데 또 한 대원은 배낭속의 피리를 꺼내불고있다.

나의 귀전에는 녀대원들이 부르는 **《사향가》** 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

하여 조각군상은 발길을 멈추고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있다.

조국의 흠을 두손에 움켜쥔 유격대원의 모습과 조국의 흠냄새를 맡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대원들의 모습을 형상한 《조국》편도 또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조각군상 《흠모》편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한 우리 인민들의 끝없는 환희와 위대한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려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굳은 의지를 형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다는 꿈같은 소식을 전해들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로인의 모습에서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운명이며 조국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그런가하면 화강석상으로 된 진격의 나팔수의 형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진군》편은 사랑하는 조국땅을 한시바삐 해방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싸우는 투사들의 모습을 형상하였다.

나는 수많은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고있는 조각군상 《조국의 물》앞에서 오래도록 발길을 땀수

없었다.

삼지연못가운데 있는 조각군상은 조국진군의 그날 사령관동지의 휴식명령이 내리자 못가로 달려온 대원들의 환희에 찬 모습을 펼쳐보이고있었다. 금시 그날의 투사들의 환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조국땅의 모습이 비친 삼지연의 맑은 물을 들여다보는 녀대원, 삼지연의 물을 두손에 담아보는 유격대원...

잊지 못할 조국진군의 그날 사령관동지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정히 떠드리는 삼지연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물을 받아드시고 삼지연은 풍치도 좋고 물맛도 좋다고 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고 힘껏 싸워 조국을 해방하자고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삼지연못가에는 그날의 사연을 전하는 비문이 세워져있다.

나는 뚫어오르는 흥분을 안고 비문을 한자한자 읽어나갔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우러르며  
태고연한 밀림속에 출렁이는 삼지연!  
천만년 전하여도 못다전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역사를 담아실고  
끝없이 설레이는 유서깊은 삼지연!

말하라 삼지연 푸른 물결이어  
검은 구름 드리웠던 암담한 그 세월  
이 기슭에 영광의 새 아침 펼쳐주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하여  
얼마나 크나큰 감격에 설레었던가  
...

삼지연! 삼지연! 항일혁명투사들 위대한 조국애로 가슴불태우던 역사의 기슭!

나는 끝없는 생각에 잠겨 삼지연기슭을 오래도록 뜨지 못하였다.

풍치 아름다운 천리수해속의 자연호는 입김을 날리고있다. 아득한 옛 시대에 백두의 불산이 뿔어오를 때 부석이 내려쌓여 이루어졌다는 신비의 호수! 주위를 병풍처럼 둘러선 뽕나무며 이팝나무며 백두고원의 일만정치를 다 담아안고 호수는 고요히 굶니인다.

잊지 못할 그날의 이야기 전설로 담아실고 삼지연물결은 저기 백두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에 더욱 설레였다.



《수령과 전사, 당과 인민이 일심단결되고 사람들이 친혈육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정신도덕분야에서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를 보여 주는것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는것입니다.》

김정일

실화문학

## 내 나라의 모습

변월녀

1

나는 취재의 첫 대상으로 토산군 인민병원 원장 류경애와 마주앉았다.

그는 첫눈에 지성이 느껴지는 50대의 녀인이었다. 그는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검푸른 5월의 하늘에 보석같은 별이 포ť포ť한 새벽 3시에 군병원으로 구급환자가 실려들어왔다. 화상환자는 송천리의 13살난 소년이었다.

혼수상태의 화상환자를 진찰하는 류경애의 입술은 바르르 떨렸다. 현대의학계의 림상경험으로는 도저히 살려낼 가망이 없는 상태이기때문이었다. 그는 각일각 회박해지는 심장의 박동소리를 더 들을수 없어 청진기를 거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장선생, 우리 병원의 힘으로는...》

경애와 함께 환자의 상태를 진찰한 기술부원장이 말끝을 얼버무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곳회곳한 머리칼이 드리운 그의 이마에는 붉은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잠시후 원장실에서는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긴급의사협의회가 열리었다.

경애는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대책적의견을 물었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하였다. 납덩이같은 침묵이 무겁게 드리웠다.

경애는 눈길을 들어 외과과장 원의정을 바라보았다. 술질은 눈섭아래서 언제나 지혜가 빛을 뿌리는듯싶던 그의 두눈은 무겁게 감겨져있었다. 한손으로 위생복의 앞자락을 틀어잡은것은 자기 힘에 부친 일에 당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취하는 그의 습관이었다. 그는 경애의 묻는듯한 눈길을 느낀듯 얼굴을 들었으나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경애는 심신이 하사분해지고 맥이 풀리는것을 겨우 다잡으며 곁에 앉은 외과 의사 김용진에게로 눈길을 돌리었다. 그는 언제 봐야

열정이 불꽃처럼 뛰는 30대의 청년의사였다. 아버지가 고등학교교장인 그에게는 남다른 탐구욕이 있었다. 평소애 그의 탐구욕과 열정을 귀중히 여겨온 경애는 용진에게 은연중 기대를 걸어보았다. 그러나 용진도 입을 열지 못하였다.

도병원으로 후송하는것만이 옳은 대책이 아니겠는가?

경애는 초조감을 이기지 못하여 두손을 마주 잡으며 침착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길은 방안가득 모여앉은 수십명의 눈길과 허공에서 부딪쳤다. 부딪치는 눈길마다에서는 원장의 결심을 기다리는 빛이 번뜩였다. 그것은 80여년간 정확한 진단과 대책으로 환자들을 수없이 소생시킨 원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이었다.

평양에서 나서자란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다운 부모형제들과 수도를 멀리 떠나 토산으로 왔다. 청년들이 탄광과 광산, 바다와 농촌으로 진출할때 대한 당의 부름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경애였다.

소박한 이곳 사람들은 처녀의사를 친혈육처럼 대해주었고 그들의 인정이 따듯할수록 바치는 그의 사랑 또한 배가로 커갔다. 하여 군안의 수십리 산골길과 마을길에서 문득 마주서는 사람도 우리 원장선생이라고 반겨 인사를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도 친혈육처럼 반겨맞는곳에서 그의 생은 흘러갔다. 높은 의술과 지극한 정성으로 군내 인민들을 위하는 원장이기에 지금 의사들은 그의 결심과 지시를 기다리었다.

이때 가벼운 전화종소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운 공기를 헤가르며 울리었다. 수화기에서는 귀익은 음성이 울려나왔다.

《원장선생입니다? 리정원이 전화합니다.》

《예?!...》

《송천리에서 들어 온 구급환자때문에 수고가 많겠습니다.》

뜻밖에도 어제 도당전원회의

에 참가하러 사리원으로 떠난 군당책임비서 리정원이 전화를 걸어온것이였다.

《원장선생! 도병원에서 도움 받을 일이 없겠습니까? 여기서 가져가야 할 필요되는 약재나 약품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조직비서동무와도 토의하고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 리용하십시오. 나도 회의가 끝나면 인차 내려가겠습니다.》

책임비서는 할말을 다한후에도 인차 전화를 놓지 못하고 그의 시원한 대답을 기다리는듯 잠시 말이 없었다. 다만 수화기를 통해 그의 숨소리만이 고즈넉히 들려왔다. 토산에서 수백리 떨어진 도소재지에서 환자의 생사운명을 놓고 걱정애 잡긴 책임비서의 모습을 그려보며 경애는 결심을 가다듬었다. 경애는 왜서인지 답답하던 가슴 한구석이 저으기 트이는듯한 감을 느꼈다. 그는 새 힘이 솟구침을 의식하며 협의를 계속하였다.

원장과 군당책임비서와의 전화내용을 알게 된 회의장에는 새로운 활력이 부여진듯하였다.

《원장선생! 환자의 오염된 피를 깨끗한 피로 전부 수혈하는것이 급선무입니다.》

원 위생모를 고쳐쓰며 기술부원장이 말하였다.

《우선 우리 병원직원들의 피를 수혈하여줍시다.》

머리를 짓수곳하고 앉았던 김용진이 부리부리한 눈을 빛내며 당장이라도 주사침을 꽂을듯 팔을 걸어올리었다. 현재 병원에 보유하고있는 피의 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기때문이었다.

《피가 적으면 우리들이 더 많이 바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가름한 내과 간호원처녀와 여러 청년들이 목소리를 합쳤다.

회의는 우선 담당의사와 담당간호원 등 치료성원을 임명하고 중태에 빠진 환자를 소생시키는 문제, 화상으로 오염된 피를 바뀌넣는 문

제, 부족되는 약품명세서, 화상부위에서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문제 등 비상조치를 취하고 끝났다.

약품창고에 내려갔던 류경애원장은 또다시 라선형계단을 밟아 3층 한끝에 위치하고있는 수술장으로 향했다. 한시가 급했다. 중태에 빠진 환자의 의식을 되돌려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는 수술장문을 당기었다.

《??...》

문은 안으로 잠겨져있었다. 그는 조금해진 마음으로 푸른 라크칠을 한 문에 귀를 강구었다. 수술장안에서는 종잡을수 없는 말마디들이 엇섞여 들려왔다. 입원실환자들의 새벽잠을 깨울세라 바재이며 거둬 손기척을 해서야 문은 열리었다. 눈이 시린 고추 전등을 켜놓은 수술장안을 둘러보았다. 수술탁 한가운데는 키가 늘씬한 40대의 외과녀의사 김일순이 흰 마스크를 끼고 서있었다. 그가 들고선 수술기앞에는 동그란 두볼이 익은 사과알처럼 상기된 간호원 성은실이 흰모자를 쓴 기술부원장의 건어울린 팔을 내리우고 있었다. 병원에서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선참으로 피를 바치는 그였다.

《부원장선생》

경애는 예순이 가까와오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부원장은 눈가에 미소를 띄우고 머리를 끄덕여보이면서 피하듯 밖으로 나갔다. 그의 뒤를 이어 김용진이 건어울린 팔을 내리우고있었다. 용진은 경애와 시선이 마주치자 천진한 소년처럼 얼굴을 붉히었다.

《아니 용진선생!...》

경애는 본의아니게 그를 탓하려고 엄하게 불렀으나 일이 막혔다.

용진의 얼굴을 한참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용진은 방금전의 의사협의회에서 담당의사로 지명되었다. 피부의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치료전투를 벌리며 낮에 밤을 이어갈 그였다. 자신의 정신과 육체에 얼마나 많은 짐이 실리겠는가를 의사인 그는 잘 알고있을것이다. 그런데 피를 뽑으면...

경애의 착잡한 얼굴표정에서 그의 마음을 읽은듯 용진은 웃기를 어미며 말했다.

《원장선생님, 젊은 나이에 피가 한동이씩 끓고있는데 걱정마십시오.》

환자와 같은 피형인 직원들이 피를 바치겠다고 팔을 내대고있었다. 경애는 량심이 꺼리끼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잠시나마 도병원에 후송할 생각을 했던 자신이었었다.

붉은 기복을 펼친듯 동건 하늘에 떠오른 아침노을속으로 등근해가 깃을 펴무렵이었다. 담당의사인 용진과 마주앉아 수혈후 환자의 체온, 혈압치수와 몸의 전반상태를 기록한 병력서를 보며 치료대책을 토의하던 경애원장은 귀를 강구었다. 잔잔하던 호수에 큰 돌멩이가 던져진듯 복도에서 갑자기 소리가 일어났던것이다. 뒤이어 놀라움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류경애원장은 다급히 일어서문을 열어보았다.

복도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차 붐비고있었다.

《무슨 일이예요?》

그들쪽으로 다가간 그는 조용히 누구에게라 없이 물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총알같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원장선생님, 화상당한 소년의 몸에 피가 요구된다지요. 우린 청년들입니다.》

수술실앞에 서있던 키가 후리후리한 청년이 경애앞으로 나섰다. 그는 군의 청년일군인 리철호였다. 그의 말처럼 복도에는 러행떠나던 길인듯 묵직한 멜가방을 멘 청년도, 손에 책을 든 처녀도, 뿔을 넣은 구력을 들고선 청년도 있었다. 그들모두가 토산군의 청년들이었다.

뜨거운것이 찌르르 가슴속에 흘러들면서 목소리가 자꾸만 젖어들었다.

《고맙습니다. 동무들!》

이때 머리에 함박꽃무늬가 돋친 하늘색수건을 쓴 낮익은 얼굴이 경애의 팔을 잡아끌었다. 그 녀인은 경애네와 이웃해서 살고있는 쌍둥이 엄마였다. (구급환자가 또...)

얼굴이 불그레 상기된 경애는 어째서인지 이런 생각이 들며 그의 뒤를 따라 2층구석으로 다가갔다.

《원장선생, 안면으로 좀 합시다.》

《안면이라니요?!》

경애는 그 말의 의미를 대뜸 알수없어 어정쩡해 물었다.

용기종기 모여섰던 여러명의 녀인들이 갑자기 중구난방으로 말을 받았다.

《원장선생, 우리도 좀 안면으로 사정을 봐주시우. 우리야 원장선생과 한동네에서 살지 않나요. 이럴 때 우리가 먼저 피를 바쳐야지요.》

그들은 사정하듯 말하였다. 요즘 이른새벽에 모내기지원을 나갔다가 별을 이고야 돌아오는 그들 입을 경애는 알고있었다.

《아주머니들, 이리저 말아요.》  
경애는 목메이는 음성으로 그들을 달래었다.

류경애는 흰 봉대천에 갇싸안은 광철이를 이윽히 내려다보았다.

굽실굽실한 머리칼을 하얀 수건으로 잡아 동인 담당한호원 정은실은 원장으로 손을 내밀었다. 환자를 받아안으려는 것이었다. 경애는 은실에게 괜찮다고 눈짓을 하고 저물어가는 5월의 창밖을 바라보았다.

소문높은 고령의술과 발전된 현대의학기술을 습득하고 탐구와 실천으로 쌓아온 림상경험을 동원하고있지만 환자는 아직도 기척이 없었다. 환자가 실려들어온지 열다섯시간이 지났지만 치료반응이 없는 환자를 놓고 갖가지 우려와 불안, 희망과 기대가 총횡무진 머리속에서 배회하고있었다.

《좀 어떻습니까?》

나들문이 방실히 열리며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에 경애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군당책임비서 리정원이었다. 그는 강렬한 기대가 담긴 어글어글한 눈으로 광철이에게로 다가오며 물었다. 모내기장에서 들어오는듯 다림발을 끈계 세운 바지가랭이에는 젖은 흙이 묻어있었다. 그에게서는 신선한 봄향기가 풍기었다.

경애는 책임비서의 시선을 쫓아 환자를 바라보았다. 금방 기지개를 켜며 일어설듯있는 소년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에게는 오늘의 하루일이 한달이나 1년따잡이로 흘러간듯싶게 느껴졌다. 책임비서와 마주앉고보니 어쩐지 목이 메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앞에 앉은 심정이었다.

군당책임비서는 그러는 그에게 힘을 주고 군당집행위원회에 상정할 의약품명세서와 치료에 필요되는 대책적문제를 적어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고개를 짓수긋하고 밖에 나선 책임비서는 걸음을 멈추며 원장을 돌아보았다.

《원장선생.》

그리고 뒤따르는 경애를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원장선생,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건강을 동무들에게 전적으로 맡기시였습니다.》

경애는 불시에 가슴속으로 뜨거운것이 치밀어오름을 느끼었다. 그는 병원의 중앙현관지방우에 금박으로 크게 새겨놓

은 《토산군인민병원》 명판을 오래도록 올려다보았다.

리정원은 불행에 처한 친자식을 말기고 먼길 떠나는 어머니처럼 선뜻 발을 떼지 못하였다.

《원장선생, 수고하십시오.》

그는 재삼 부탁의 말을 했다. 군병원은 요즘 군사업의 중심지처럼 되어 뚫어번졌다. 화상환자의 치료결과를 물어오기도 하고 병원에서 밤을 새우는 군당책임비서에 각 농장들의 모내기진척정형과 당창건 50돐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기 위해 들끓는 공장기업소들의 생산실적, 새기술창조사업결과며 정부전화까지 걸여왔다. 또한 수시로 찾아오는 손님들, 이름도 모르는 농장원들과 남녀청년들, 군인들, 출장온 손님들까지 병원을 나들었다.

화상환자 광철소년이 입원한 지 3일이 지났다. 광철은 아직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였다.

칠혹같은 어둠이 누리를 덮고있는 밖에 눈길을 던지고 속을 태우던 류경애원장은 전화종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책임비서를 찾는 전화였다.

《책임비서동지는 아까 군당으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글을 읽는듯 포박포박 짝어 말하는 젊은 조직비서의 목소리였다.

《그렇습니까?》

그는 전화를 끊어 내려놓고 급히 3층으로 향하였다. 계단을 건너뛰며 급히 올라가던 원장은 3층에서 내려오는 처녀와 마주쳤다.

《원장어머니.》

진달래꽃색갈의 셔츠를 입은 중발머리처녀가 옆으로 비켜서서 다소곳이 머리를 숙였다.

《옥향이 아니냐?》

20여년전 경애의 손에서 고고성을 터뜨린 처녀였다. 갓 피어나려는 꽃망울처럼 예쁜 처녀를 보며 경애는 반색을 하였다. 처녀의 어머니는 병원의 의사였다.

《어떻게... 집에 일이 생겼니?》

경애는 이때 병원에 온 그가 심상치 않게 여겨져 물었다.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앞코가 뻐죽한 구두로 반들거리는 복도바닥을 호비작이며 말하기를 주저하였다.

《원장어머니, 실은 그때 청년들이 이리로 달려왔을 때 전 감감모르고있었어요. 할머니가 동무들이 찾아온것을 돌려보냈거든요. 어머니님 며칠째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오늘 저녁 영화관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인 제가

이런 때 외면한다면 토산땅에서 하늘에 머리를 들고 다닐수 있겠습니까?》

경애는 바른손으로 한쪽 팔을 잡고있는 그를 보고 대뜸 생각했다.

(살을 뺐구나.)

경애는 기록한 처녀의 동실한 어깨를 가볍게 어루쓸었다.  
《어머니는 알고있니.》

《예.》

《!...》

처녀는 도톰한 입술에 방긋이 웃음을 띄우며 층계를 내려갔다. 위면 꺼질가 불면 날아갈가 애지중지 키우는 외동딸이었다.

경애는 피곤이 사라지고 머리가 거뜬해짐을 느끼며 층계를 오르는데 복도 모퉁이에 키가 후리후리한 녀인이 서있었다. 옥향이 어머니 일순의사였다. 그리니 어머니가 딸의 살을 떼낸것이였다.

《일순이!》

일순은 무렵없이 부르는 경애원장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다.

《지금 애들은 모르겠어요. 철부지같았는데... 다 자랐어요!》

쌍겹진 두눈은 딸애의 뒤를 지켜보고있었는데 가름한 얼굴에는 딸애를 끝없이 애무하고싶어하는 모성애가 넘치고있었다.

《!...》

입원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서던 경애는 가슴이 후둑후둑 뛰었다. 방안의 류다은 분위기에 온몸이 서늘해졌다.

입원실에는 군당책임비서와 여러 사람들이 묵묵히 앉아있었는데 침대머리를 부여잡은 광철의 어머니가 두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먹이고있었다.

《세상에 그 누가 이해보다 더 만사람의 보살핌을 받을수가 있겠습니까. 이젠 우리 집의 3대독자이지만 어머니인 전체 피와 살로 이해를 살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뜨거운것이 목안가득 흘러들어 그는 겨우 말을 번저놓았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한 집 아들딸들이 앞을 다투어 피를 뽑고 살을 떼내고... 그래도 이해는, 우리 광철이는...》

흐느끼는 그의 목소리는 입원실에 갇힌 고요를 더욱 숨막히게 하였다.

광철은 숨결도 없이 누워있었다. 온군의 애바른 시선들이 모아지는 입원실 한가운데 잠든듯이 누워있었다. 전신 70프로의 3도화상, 뒤잔

등의 화상은 수술칼이 뜯골까지 닿았다. 현대의학은 이미 그에게 죽음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애를 소생시키기 위한 눈물겨운 치료전이 벌어지고있는것이다.

녀인의 눈물이 광철의 얼굴에 후두둑 뿌려졌다.

《책임비서동지, 부탁입니다. 이젠 돌아가주십시오. 우리 애들은 열백번 죽어도 행복한 아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까지 이해의 몫까지 합쳐서 농사를 잘 지어서 이 은혜에...》

녀인의 두볼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군당책임비서는 타드는 입술을 추기며 창밖 멀리를 바라보았다. 입원실에서 며칠밤을 꼬박 새운 그였다.

《광철이 어머니, 그러지 마십시오. 광철이는 꼭 소생될겁니다. 의사선생님들과 전체 군사인들이 힘을 합치고 밤낮을 이어나가며 치료전투를 벌리고있지 않습니까?》

리정원은 울고있는 녀인을 위로할 말이 더는 없는듯이 한마디를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학과학앞에서는 그도 어쩔수 없는것이였다.

그처럼 애간장을 태우던 광철은 5일후에야 정신을 차렸다.

## 2

간호원 성은실의 일기를 그대로 적는다.

(1995년 5월 17일 날씨 맑음)

날씨가 무더워진다.

나는 애가 일어나면 목을 추기게 하라고 여기저기서 들어온 음료와 과일들을 창문턱의 서늘한곳에 옮겨놓았다.

이때 손기척소리가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아니? ... 동무가...》

문밖에 서있는 청년은 나와 고등중학교를 함께 졸업한 동창생 현명호였다.

그는 얼굴에 흐르는 땀을 씻으며 반가운 웃음을 담았다.

그를 보는 순간 올해봄 어느날에 받아안았던 감정이 느닷없이 불쑥 떠올랐다. 나는 과장선생님과 제지공장으로 간 일이 있었다. 그때 과장선생은 나를 밖에 세워놓고 공장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인차 어떤 청년과 함께 나왔다. 나는 먼발치에서도 현명호동무를 알아볼수 있었다. 우린 서로 눈웃음을 지으면서 인사를 주고받았다.

나는 (명호동문 생산지도원이면 서도 나에겐 그저 제지공장에 다닌다고 말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를 뒤따라 창고안으로 들어간 나는 《아이 많구나.》 하면서 산갈이 쌓여진 종이더미를 올려다보았다.

《우리 공장이 당창건 5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기 위해 강냉이 오사리를 수집하여 기술혁신한거요. 계획을 몇배나 초과수행했소.》

그는 우리를 보며 웃음을 머금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그는 전표를 받아들고 종이 무지우에서 통구리를 갈라내어 저울에 달구어 내놓았다.

파장선생은 회고 결이 고운 종이를 끌어보면서 제지공장에서 큰일을 했다고 못내 감탄을 하였다.

그는 명호동무에게 종이를 좀 더 줄수 없는가고 물었다.

병원에서 종이를 많이 쓴다는것은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었다. 큰것은 내놓고라도 약봉투, 진단서, 개인병력서...

서글서글 웃으며 장부책을 들여다보던 명호는 종이를 더 달라는 소리에 정색하면서 전표를 더 떼어야겠는데 취급하는 지도원이 출장중이라고 하였다.

파장선생은 알겠으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의 심사는 편안치 않았다. 산더미같은 종이무지에서 다문 몇장쯤이라도 더 줄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파장선생은 종이무지를 아쉽게 올려다보면서 밖으로 나갔다.

《몇장만이라도 더 주세요. 예.》 나는 동창생이라는 우정을 결코 응석비슷이 말했다. 그러자 눈살이 쏘아져서 《안되요. 규정대로 전표를 더 떼가지고 와야 하요.》 하고 한마디로 잘라버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났다.

《동문 정말... 규정밖에 몰라요?》 나는 그를 고깝게 마주보며 그의 비위를 건드릴 말을 골랐으나 머리속에서만 뱅뱅 돌뿐 아무 말도 나가지 않았다.

《은실동무, 종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것이 모두 내것이 아니지 않소. 아는 사이라고 규정을 위반할수야 없지. 난 설사 동생이라도 주지 못하오.》

그는 창고문에 큼직한 자물쇠를 채우며 덧붙여 말했다.

《법이야 우리모두가 자각적으로 지켜야 되는게 아니요?》

나는 아연해졌다. 종이가 귀하다 해도 생면부지를 대하듯 야박하게 자르는 그는 어제날

내가 생각했던 명호동무가 아닌듯싶었다.

파장선생은 전표를 떼가지고 다시 오겠다면서 친근하게 인사를 하였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다음부터 나는 남자가 체통에 비해 쪼쪼하다고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런 그가 나를 찾아온것이다.

《왜 왔어요?》

나의 물음은 첫마디부터 꽃꽃하였다.

《은실동무, 수술장이 어디요?》

(이 동무도 그래서...)

왜 그런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러면서도 지난 그 감정이 뵈조록이 또 머리를 들었다.

《저기 쓴것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수술장을 가리켰다.

그는 쌍가풀진 눈으로 의미심장하게 나를 보며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말고 돌아섰다. 무표정한 나의 얼굴이 그의 말을 막아놓은듯싶었다.

그는 수술실문을 두드렸다.

얼마후 내가 주사기를 소독해가지고 오니 일순선생이 나의 팔을 가볍게 건드리며 물었다.

《저 청년을 모르니?》

계단을 내려다보니 명호가 란간을 짚고 계단을 내려가고있었다.

나는 불쾌한 심중의 생각을 떠올리고싶지 않아 도리질을 하였다.

《안되겠다. 병원에서 일등 멧쟁이인 우리 은실이... 저렇게 점잖고 미끈한 총각을 모르다니.》

《...》

《글쎄 자기는 피가 너무 많아 혈압이 높아 야단이라고 하면서 남보다 세배쯤 뿜으라면서 팔을 거두지 않더구나. 거둬 만류했으나 막무가내더러. 그의 요구가 하도 간절하여 채혈을 하고 어디에 있는가고 물었더니 <이름을 알려자고 피를 바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 하더니 공손히 인사를 하고 떠나가더구나?》

(한장의 종이를 가지고도 법을 따지더니 자기의 피를 서슴없이 바치다니!...)

순간 나는 자신의 웅졸한 마음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 언뜻 떠올랐다. 국가규정을 지키는것은 크건작건 공민이 스스로 준수해야 할 의무이다. 형태가 어떻든간에 자기 목전의 이해관계를 코에 걸고 규정위반을 요구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편협한 인간인가. 동시대청년으로서... 그가 나를 어떻게 볼것인가. 나는 달아오른 얼굴을 깊이 숙이고 호실로 돌아왔다. 광철이가 회복되면 그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리라.

(1995년 5월 18일 날씨 흐림)  
밤은 깊어가고있었다. 나는 습도높은 대기에 가슴이 답답해움을 이기지 못하여 열어놓은 창문앞에 서있었다.

군당책임비서동지는 벌써 몇시간동안 환자의 머리맡에 굳어진듯 앉아있었다. 담배 한대 태우지 않고 꼬박 밤을 밝히고 있는 책임비서동지였다.

이때 나들문이 소리없이 열렸다. 얼핏 보기에도 칠십을 훨씬 넘긴듯한 고령의 할아버지가 들어섰다. 키가 무척 큰 할아버지여서 그의 등근데 농립모가 입원실출입문에 거의 닿을듯했다. 몇오리 남지 않은 머리칼이며 술질은 눈섭이 온통 하얗다.

《책임비서어른을 만나려고 군당에까지 찾아갔다가 여기로 왔네.》

그는 들관에서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놀랄정도로 목소리를 높였다.

《로인님! 밤에 웬일이십니까?》

책임비서는 얼른 일어서서 로인의 손을 잡고 의자를 권하였다.

《뭘라구...》

로인은 귀에 손을 오그리고 책임비서곁에 바짝 다가앉았다. 가는 귀를 먹는듯했다.

《비서어른도 알겠지만 난 구<한국>시대에도 살아보았고 일제통치때에도 살아보았고 해방도 이곳에서 맞았네. 오래오래 살았지. 내 나이 이제 구십이 넘었네. 무슨 일인데 못보았고 무슨 일인데 겪지 않았겠나. 헌데 저 볼데 없는 농민의 아들을 위해 온 군내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뿜고 살점을 떼내고 큰 어른들이 뱀똥을 하여 아이를 살리려고 애를 쓴다니 내 생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라네. 어- 고마운 일이요!》

로인은 허공높이 쳐든 손을 감동으로 후들후들 떨었다. 그의 주름진 볼로 맑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나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이 순간 나의 뇌리속깊이 노래의 한구절이 떠올랐다.

더울세라 추울세라 이몸을 살려주셨네  
힘들세라 아플세라 안아주셨네  
어머니 어머니 인자하신 어머니...

노래의 가사를 음미하노라니 나는 어제와 오늘 병원에서 여러 사실을 체험하며 자신의 정신력이 한걸음 성장한것 같은 생각이 든다.

《비서어른이 우리 마을 아이때

문에 수줍 하는데 인사가 뒤편이  
지. 그래, 왔네. 고마워, 책임비서  
어른은 일 잘해》

소박한 로인은 책임비서의  
손을 잡고 자기의 진심을 가식  
없이 말하였다.

《아바이, 고맙습니다. 우린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뜻대  
로 일할뿐입니다. 우린 모두 장  
군님의 한식술입니다.》

《그렇겠지. 장군님이야 우리  
수령님과 꼭 같으신분이지. 아  
무쪼록 그분을 잘 받들어주게.  
책임비서어른...》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로인은 할 말을 다하고 자리  
에서 일어서며 무릎우에 놓았  
던 농립모를 머리에 얹었다.

《왜 일어서십니까?》  
《난 이제 마음놓고 가보려네.》  
《아버님, 이 밤길에 어떻게  
가실려구... 쉬고가십시오.》

책임비서는 아바이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말하였다.

《날 말리지 말아주게. 새벽이  
면 눈에 나간다네. 일을 해야지.  
내 힘껏 농사일을 도와야지.  
헌데 생각뿐이지 일자리는 크  
게 내지 못한다네. 허허.》

책임비서는 아바이를 더 만  
류할 수 없었던지 기다리라고  
하고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가  
인차 돌아왔다. 잠시후에 부르  
릉거리는 승용차의 발동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치었다.  
책임비서는 할아버지를 승용  
차에 태워보낸 것이다.

(1995년 5월 24일 날씨 맑음)

나는 요즘 눈곱을 적시곤할 때  
가 많다. 우리 할머니와 부모들이  
이런 나를 본다면 철들었다고 할  
는지. 나는 텔레비죤앞에 앉았다가  
도 웃고 심지어 밥상앞에서도 깔  
깔거리 부모들의 청원을 듣곤하였  
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할머니  
는 《처녀때는 가랑잎이 굴러가는  
것을 보고도 웃는다더라.》고 말하  
곤하였다. 그럴 때면 한술 더 떠서  
나는 할머니의 어깨에 매달려 어  
리광을 부리었다.

《할머니, 생활이 온통 기쁨으로  
차있는 우리 세상에서 그럼 울겠어  
요. 그리고 가랑잎 굴러가는것을 자  
세히 보면 정말로 재미나서 웃음이  
나요. 할머니, 노래속의 처녀는 총  
각을 위해서 웃음을 아끼라지만 난  
애인이 없지 않아요.》

어머나는 그럴 때마다 처녀  
가 얹전치 못하다고 힐난을 했  
지만 나는 꾸지람을 들으면서  
도 호들갑스럽게 웃어댔다.

어제날의 나는 그러하였다.  
오늘 아침이었다. 광철의 얼굴  
을 깨끗이 닦아주던 나는 문두드  
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갔다. 키가  
후리후리한 3명의 군인들이 거  
수경례를 하였다.

나는 당황하여 고개를 숙이  
며 얼굴을 붉혔다. 정식으로  
군인들에게 거수경례를 받은것  
은 난생 처음인 것이었다.

나의 손우로는 군사복무를 하는  
두 오빠가 있다. 그래서선 군복입은  
군인들을 보면 혈육과도 같은 친  
근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다. 우리  
들이 마음놓고 행복하게 배우며 일  
할수 있고 편히 잠들수 있는것은  
조국의 초소를 철벽으로 지켜선 그  
들이 있기때문이다.

제일 앞에 선 군인이 한발 나서  
며 말하였다. 그도 우리 한오빠처  
럼 상사견장을 달고있었다.

《광철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나는 군복우에 흰 위생복을 걸  
친 그들을 입원실로 안내하였다.

그들은 광철이 누워있는 침상결  
으로 다가가 동생을 찾아온 친형님  
들처럼 그를 안아들었다. 광철은 소  
리내어 웃으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  
하였다. 그는 군인들의 가슴에 안겨  
어깨의 견장을 쓸어보기도 하고  
모자의 별을 만져보기도 하였다.

《광철아, 너를 위해 우리 중대  
군인들이 피와 살을 바치려고 했  
지만 병원선생님들은 허락을 않는  
구나. 나라를 철벽으로 지켜선 군  
인들의 몸은 리수복영웅처럼 최고  
사령관동지를 위해 한목숨바칠 귀  
중한 몸이라는 것이다. 광철아, 빨  
리 나서 일어서거라.》

얼굴이 동그스름한 빨간 령장의  
전사는 광철의 볼을 다독여주었다.  
이때 뒤에 서있던 상등병이 열심  
히 주머니를 뒤지더니 동구란 손거  
울을 광철의 손에 쥐여주었다.

《광철아, 이건 우리 사관장동지  
가 체대되어 탄광으로 떠나면서  
나에게 준 거울이다. 아침 저녁  
최고사령관동지를 무장으로 지키  
는 전사의 량심을 비추어보라는  
거울이었다. 너는 이 거울을 매일  
보면서 튼튼한 몸이 되어 아버지  
장군님을 받드는 훌륭한 학생이  
되여라. 이 거울을 너에게 준것을  
알면 사관장동지도 기뻐할것이다.  
빨리 나아가서 마음껏 뛰어나니  
씩씩하게 자라야 한다. 알겠지...》

광철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자  
고 하였다. 나는 노래를 부를수  
가 없었다. 눈물이 불쑥 솟구쳤  
기때문이었다.

노래를 듣고있던 광철이도

거울을 가슴에 품고 소리내어  
흐느꼈다. 그의 두볼로 맑은 눈  
물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 3

금성정치대학을 졸업하고 6년  
간 군청년일군으로 사업한 리철호  
는 첫 인상이 아련한 청년이었다.

나는 이미 취재과정을 통하여  
달신하고 호리호리한 이 청년에  
대하여 어느정도 알고있었다. 화상  
당한 소년에게 먼저 제 피를 넣어  
주겠다고 승벽을 부리는 청년들을  
달라며 질서를 세우고 선참으로  
자기의 팔을 들이었던 청년일군!

그는 아련한 생김새처럼 조  
용조용히 말을 이어나갔다.

《...이른새벽에 음동장으로 지  
원을 나갔던 너동생이 갑자기 뛰  
어들어오며 저를 찾았습니다. 동  
생은 사람들이 급하게 밀려가는데  
상서롭지 못한 일이 일어난것은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때면 출근  
전이여서 거리는 조용할 때였습니  
다. 그날 아침에는 읍거리의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서로 부르고 찾  
으며 사람들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이 달리는곳은 한방향이였  
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위치  
하고있는 우리 기관에 먼저 들려  
보려던 나는 저도 모르게 그들의  
흐름에 합세하여 무작정 군민다리  
우로 올라섰습니다. 벌써 병원으  
로 들어가는 골목길엔 달려가는  
수많은 청년들의 모습이 새벽빛속  
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을 따라 병원으로 달려들어  
가던 나는 토막토막 끊어진 말마  
디를 얻어들이며 어떤 일이 벌어  
졌는가를 알수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험  
한데 피와 살이 요구된다는것을  
어떻게 벌써 알고 언제 그 많은  
청년들이 모여왔겠습니까. 청년들  
은 병원복도를 꼭 채우고 3층라  
선형 계단층계에까지 들어차있었  
습니다. 그속에서 어떻게 하나 앞  
으로 빠져나가려고 해보았지만 생  
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여기에 군청년일군들이 없습니까?〉  
누군가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나의 귀전을 울렸습니다. 그때까  
지 나는 거센 파도속에 물힌 물방  
울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자신이 청년일군이라는것을 잊  
고있었드렸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청년들앞을 막아 세명의 의  
사와 간호원처녀가 서있었는데  
그들의 힘으로 질서를 잡을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나서자 청년들은 앞다툼내기를 일순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름을 적자고 하니 다시 서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수합리로 모내기지원 떠나는데 자동차가 기다리고있습니다. 이름적기는 그만두고 나에게 우선권을 주시오.> 또는 <아침부터 회의를 합니다. 회의에 늦지 않게 나먼저 줍...> 가지각색의 이유를 들며 앞을 다투었습니다. 다시 질서는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정 좀 보아주세요.>

맑고 차랑차랑한 목소리였습니다. 발돋움을 하고 앞을 바라보니 몸이 우람지고 키 큰 청년들사이로 하늘색옷을 벌땃주어 입은 처녀가 빠져나오고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처녀의 약간 흠여져내린 앞마마의 머리칼을 바라보던 나는 처녀를 앞에 세우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곧 금천역으로 나가 차표를 사야 함흥으로 떠나는 차를 제시간에 탈수 있습니다.>

그는 매칠한 흰팔을 벌쳐부터 들이대었습니다.

<동문 어느 조금만체요?>

<전 함흥에서 삽니다. 화학연구소 연구사입니다.>

<동문 안되오. 차를 타고 멀리 가야 하지 않소. 자, 보오. 수많은 우리 군의 청년들이 있지 않소. 동무의 마음만은 고맙소.>

<부위원장동지, 함흥처녀는 뭐 조선의 처녀가 아닌가요.>

지성과 순박함이 사려깊게 내비치는 처녀는 톡톡치 않았습니

다.

<동무같이면 그냥 발걸음이 떨어질것 같은가요?>

처녀는 자기의 목소리가 턱없이 높아진데 스스로 놀란듯 얼굴을 붉히었습니다. 그는 타는듯 빨갛게 익은 얼굴에 초조한 빛을 띠우며 안간힘을 써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수술실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를 보는 저의 가슴속에는 격동의 파도가 세차게 물밀기 치고있었습니다.

얼마후 되돌아나온 그 처녀는 <고맙습니다.> 하고 나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누구에게 해야 할 인사말입니까. 처녀는 얼굴도 모르는 평범한 소녀의 생명을 위해 피를 바치고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것이었습니다. 나의 앞에 놓인 종이우에는 함흥화학연구소 연구사라고 적혀있

을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 석자도 남겨놓지 않았습니

다.

그때 성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피형이 바뀔수가 있소? 난 환자의 피형과 같단 말이요. 동문 앞에 유치원철부지를 세워 놓았는가 하오?>

몸매가 호리호리한 청년이 간호원에게 소리치고있었습니다. 성미가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청년은 성이 나서 펄펄 뛰고있었습니다. 피형이 맞지 않는다는데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얼핏 보매 키가 호리호리한 청년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피형이 맞지 않는다고 한것이 그의 노여움을 크게 산것이었습니다. 그를 설복시키려고 다가간 나는 그의 어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동무!!>

작가선생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자기의 희곡에서 황금의 노예인 수전노에게 진 천우의 빛을 갚기 위해 육체의 살 한근을 저당잡힌 진실한 벼를 이상적인 인간으로 형상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이름도 모르는 소년의 생명을 위해 서슴없이 자기 몸을 바치고있으니 무슨 말은 다 할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당은 얼마나 훌륭한 청년들을 키웠습니까.

그날 피를 뽑은 청년들은 수십명에 가까웠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토산에 실습나왔던 대학학생들과 출장왔던 청년들, 리에서 들어온 청년들까지 합치면 백여명의 사람들이 피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600여명의 사람들이 광철에게 자기의 살을 바쳤습니다.

나는 청년일군으로 임명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청년들속에 살며 일해왔습니다. 공장 기업소의 청년들속에서, 농촌청년들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봄이면 배낭을 메고 들판으로 나갔고 공장의 선반기 앞에서 제품도 함께 깎았습니다. 우등불을 피워놓고 노래도 함께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한 나더러 아직 청년들을 잘 모른다고 말한다면 밤을 낮이라고 우기는것처럼 어처구니없이 생각할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와 같은 동시대인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탁아소, 유치원을 거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희망과 소질에 따라 공장과 농촌에서 학교에서 들끓는 대건설장에서 위훈을 꽃피워가는 청년들에 대해서 다는 알지 못하고있었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요하고 맑은 그의 눈길이 때로 이글이글 타오르는것을 보면서 그의 이야기를 머리속에 소중하게 새겨넣었다.

...군병원의 청년의사인 김용진은 의학과학기술이 안받침된 정성의 의사의 인간애라고 하면서 병원의 의료집단과 힘을 합쳐 연구하여오던 새로운 치료법을 광철에게 도입하고 쇼크기와 독열중기, 폐열중기를 무사히 넘기게 하였습니다.

광철이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살같이 날아퍼졌습니다. 이름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새살이 돌아나는데 효력이 좋다는 토끼곰, 닭곰, 소고기와 양고기며 6월초에 희귀한 사과며 배, 감, 대추와 밤까지 들고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생각다 못하여 순번을 짜달라고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하여 우리는 없는 법을 만들어 순번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광철의 입원실에서 담당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있는데 집에 갔던 광철의 어머니가 들어오는것이었습니다.

광철의 아버지, 어머니는 광철이가 의식을 회복한후에 집에 돌아가 농사일을 하였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날 광철은 움푹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랑 집에 가세요. 농사를 잘 지어 경애하는 아버지장군님께...》

어린 그의 마음에도 받아안은 사랑이 가슴에 사무쳐 그런 어른스런 당부를 한것이었습니다.

광철의 어머니는 우리와 이사를 나눈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른 아들을 안고 있던 그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알뜰알뜰하게 담아놓은 그릇들속에는 닭알찬과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소복히 담겨져있었습니다. 주부처럼 알뜰한 손길이 집안에 미쳐있다는것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었습니다.

방안에서는 한작업반처녀들이 두 어린 딸애를 병아리처럼 품고 군잠에 들어있었습니다. 눈물이 콧 쏟아졌습니

다. 단잠 든 그들을 깨울가 녀려되어 마루에 나가니 김 한대없이 말끔히 매어진 러발의 강냉이잎들이 봄바람에 흔들거리는것이 대낮같이 환한 달빛에 보이더랍니다. 뒤뜰안의 돼지우리에서는 갓 낳은 새끼돼지들이 반가웁다 끌끌거렸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도 지루하지 않았다.

×

나는 지금 깊은 생각에 잠겨 송천리의 논두렁길을 걷고있다. 갖가지 아름다운 색깔을 끌라 채색한듯 단풍이 화려한 산과 들... 이랑이 메이게 잘 자란 누런 벼포기들은 옷자락을 스치며 어리광치고 있다. 풍만한 가을날에 우리 나라 어디에 가나 볼수 있는 풍경이나 평범한 산천,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있는 이곳에서 보는 감흥은 또 새로웠다.

문득 송천리 로인의 이야기가 다시금 떠오른다.

《옛날 우리 나라에서는 생명이 경각에 이른 부모와 자식, 남편을 살리기 위해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어 소생시킨 단지지성, 단지지요가 효자전으로 전하여왔다. 이젠 제 생명을 바쳐 부모나 자식 남편의 생명을 다시 이으려는 혈육만이 할수 있는 일이었소. 현대

많고많은 사람들이 피와 살을 떼여 이름 석자도 모르던 평범한 농장원의 자식인 광철이를 살려냈다고 하니 참 좋은 세월이요, 이게 다 위대한 장군님의 덕이지, 우리 장군님께서 온 나라를 한가정으로 꾸려주신 은덕이요!》

그렇다! 토산땅에 피어난 이 사랑의 이야기는 하늘땅에 비기지 못할 위대한 장군님의 인덕정치의 해발이 꽃피워준 사랑의 전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범한 소년을 소생시킨 토산군의 인민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끝없는 감격에 젖어 평양하늘을 우러러 만세를 부르는 토산군 인민들의 생각은 깊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살아갈것을 목마르게 갈구했지만 지구상의 어느곳에서도 실현될수 없었

다. 인류가 기원하여 대대손손 살아오면서 바라온 상상속의 락원 행복의 요람은 오직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친아버지로 모신 화목한 대가정, 한 혈육으로 이어진 나의 조국에서만 현실로 꽃피여났다.

꽃같은 처녀들이 앞다투어 영예군인의 안해가 되고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세월! 자식없는 로인들과 한 식술이 되어 여생을 행복으로 꽃피워주는 사람들... 자연재해로 굴러내리는 바위아래 한몸을 내대여 주저없이 동지들을 구원한 청년들의 미거 등 전하여지는 이야기 모두가 인민의 심장을 들어쥐는 서사시이며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흘러넘치는 이 땅!

아아, 이것이 자랑많은 내 나라의 모습이다.

## 영랑호 기슭에서

송재하

즐거운 금강의 휴양길에  
에서 끝나야 하는가  
북남의 푸른 산발들이 비끼  
영랑호, 너의 기슭에  
나는 지금 서있다

호수너머 분계선의 철조망은  
나의 몸으로 지나간듯  
쓰리게 쓰리게 뻗어있고  
기슭을 날아에는 물새들은  
피울음 뱉으며 가슴을 허비고...

아, 구룡연으로 오르던 등산길  
삼일포의 배놀이로 이으며  
흥겨웁기만하던 그 휴양길이  
영랑호, 너의 기슭에서  
이처럼 끝나야 한단 말인가

아프다 마음대로 오가야 할  
제나라 제 땅이면서도  
이렇게 돌아서야 하는것이  
해빛 부서지는 저 물결우에  
한점 웃음도 실을수 없는것이

타는듯한 가슴으로  
호반의 물을 한웅큼 쥐여드니  
장장 50여년 긴긴세월

아프게 아프게 뿌려온  
눈물인가 피인가

아 하늘나라 신신들은  
저 금강의 일만경에 취해  
바위가 되었다지만  
나는 바위가 된대도  
날개를 달고  
통일의 그길로만 날아가려니

저 호반우에 서로서로 어우러진  
북남의 푸른 산발들처럼  
아, 사랑하는 내 나라, 내 조국은  
어제도 하나  
오늘도 하나

해빛 쏟아지는 북녘에서  
즐겁게 시작된 휴양길  
저 구름길은 남해기슭까지 이어놓을  
시대의 엄숙한 사명감으로  
젊은 이 심장은 뜨겁게 고동치나니

아, 즐거운 휴양길은 끝났어도  
멈추어서는 안될 통일의 큰걸음  
타오르는 마음속에 찍으며  
영랑호, 너의 기슭에  
나는 지금 서있다

# 잘 있었나 비행사친구들! 외 1 편

-인민군비행대를 방문하여-

박 영

그대들을 이렇게 만나니  
내 룡전병시절에 사귀었던  
정깊은 비행대 그 친구들을 만난것만 같아서  
입에 올랐던 그날의 말투가 절로 튀어나오오  
- 잘 있었나 비행사친구들

감회도 새롭소  
하늘의 친구들 이렇게 만나니  
어제일처럼 선히 떠오르오  
내 비행기에 몸을 실어  
푸른 대공에 첫 락하산을 펼치던 그날이

유별난것이였소  
우리 룡전병들  
비행대친구들과의 그 우정은  
봉봉- 탈출신호와 함께  
조국의 만리창공에 몸을 던져  
락하산 구름처럼 펼칠 때 그 멋은

한해 또 한해...  
우리 룡전병들  
비행대친구들과 우정은 두리위쳐  
전화의 그날 용맹한 싸움군들처럼  
서로 하는 인사도 화선식으로  
- 잘 있었나 비행사친구들!  
- 어서 오르게 룡전병친구들!

한번 써보지요  
그대들의 비행모자  
어제날 내 쓰던

룡전병 그 모자를  
기쁨의 추억속에 불러주는구만

어떻소 내 모습  
오늘은 총을 펜으로 바꾸어잡은 몸이건만  
결전의 그날이 오면  
나도 룡전병!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위하여  
이 한몸 통채로 원쑤의 아성에 터져내릴  
원한과 증오로 해를 이어 다져진 폭탄!

찾아오겠소  
끝내 원쑤들이  
침략의 무모한 불구름 몰아온다면  
- 잘 있었나 비행사친구들!  
병사시절 앞에 오른  
뜻깊은 이 인사를 하며

그땐 알아주오 그 인사  
결전의 하늘가로 함께 오를  
어제날 룡전병의 이 마음인줄  
락하산 걸머진 이 잔등 톡 쳐주며  
그땐 대답해주오  
- 어서 오르게 룡전병친구! 하고

아, 얼마나 좋소  
승리로 펼쳐질  
전투적량만과 우정으로 가득찬  
우리의 이 인사가!  
군민의 이 인사가!

## 달 비

달비  
달비  
신천의 녀인들이 남긴  
피문은 달비

아니구나  
먼길 떠나가는  
자식들 신발에 깔아주려  
어머니가 남긴  
탐스런 사랑의 달비가

아니구나  
한생을 다 살아서  
세월의 흐름속에  
절로 남겨진  
흙문은 백발의 달비가

승냥이 미제에게 생매장 당하면서도  
천백배 복수를 부탁하며  
저 푸른 조국의 하늘을 두눈에 담고간



신천의 너인들 마지막 혼인가  
아, 우린 떠나가도  
이 원쑤를 갇아달라!  
목터지게 부르짖으며  
신천의 어머니들 남겨두고갔구나

싸움터로 나설 때  
병사의 군화에 깔아주던 그 달비처럼  
신천의 너인들 오리오리에 부락을 담아  
생명은 꺼졌어도 저 달비  
복수전에 나선 병사의 길에 깔아주고갔구나!

## 처녀와 총 외 1편

림성희

분결같은 손으로 꽃수이 놓아가는  
그 모습이 처녀의 이름엔 더 어울릴걸  
화려한 무대의 박수갈채속에  
묻히어 어여쁜 그 모습이  
아마도 처녀의 이름엔 더 어울릴걸

웃음꽃 피운다면  
바람결 살랑 날리는 잎새우에도  
호하하 온종일 웃음꽃 실을 우리  
허나 우리는  
봄같은 시절에 군복을 입고  
처녀의 이 손에  
총을 잡았어요

말쑥한 이 얼굴에  
연약한 이 몸집에  
서슬푸른 총창은  
어울리지 않건만

한평생 우리 수령님 가꾸어오신  
이 땅을 노리는 원쑤가 있어  
그것이 꿈많은 가슴에 증오를 불러  
꽃에만 비기는 우리의 처녀시절  
바람세찬 해변가에 병사로 세웠어라

아프게 갈라진 이 땅에  
분노한 사나이들이 더 많은 이 땅에  
우리 아니래도

총창은 억세련만

장군님 위해 바치는 삶의 행복이  
총대와 같이하는 운명에 있음을  
준절히 깨우치는 시대의 웨침에  
우리도 외면할수 없는 이 땅의 청춘이기에  
래일을 위한 우리의 오늘을  
그 누가 지켜주는것 아니기에

내 나라 내 조국의 운명을  
사나이들에게만 맡길수 없으라  
이 땅우의 신성한 녀성의 이름으로  
우린 총을 잡았어라

꽃시절과 인연맺은 우리의 총  
세상풍파 다 변해도 변함이 없을  
우리의 총을 쥐고  
장군님 입혀주신 군복이던  
더 바랄것 없으라  
다정히 웃으시며 기념사진 찍어주신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람의 품에  
영생의 닻을 내린 우리여라

혁명의 수뇌부 보위해  
조국과 총과 처녀를 하나의 운명으로 이은  
**김정일** 장군님의 녀병사들에게  
더 묻지 마시라  
행복!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고

## 별들은 사라져도

달빛은 안개를 풀며  
소나무 숲너머 사라지고  
밤지켜 은모래 뿌렸던 하늘가 별들도  
하나둘 서둘러 사라지는데

한밤을 지키고도 사라지지 않는 별들이  
다박솔 전호가에 빛납니다  
려명을 앞두고 더더욱 빛을 뿌리며  
높이 든 포신아래 반짝이는 저 별이

첫눈에도 귀엽스러운 처녀의 눈빛이여라  
소년궁전 설맞이무대에서 민요를 잘 넘겨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렸던...

전차타고 궁전에 오고갈 때면  
누구나 앵두불 다독여 노래를 청했다던  
저 처녀가  
군복입은 병사가 될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노래밖에 몰랐던 처녀여서  
소꿉나이 시절부터 가슴에 안은 꿈은  
명가수로 이름떨칠 소원이였어라  
하여 언제나 노래속에  
고운 웃음 찰랑이던 눈빛이였어라

허나  
해마다 설이면 소년궁전에 오시던 수령님  
한평생 념원하신 조국통일이어서  
눈물도 많이 흘린 7월의 그날에  
처녀는 총을 잡았어라

울어울어 꺾꺾 메이는 슬픔에

어느 해인가  
목놓아 땅을 적시던 눈물이  
다시는 영영 마를것 같지 않던 눈가에  
그렇게도 비장한 각오가 어릴줄은...

너무도 연약했던 처녀여서  
해마다 수령님 몸가까이 모셨던 처녀여서  
그날의 슬픔 어떻게 이겼는가 물으니  
다름아닌 수령님의 딸이여서  
강하게 일어선 처녀

아버이수령님 그 유혼은  
아들만이 지켜야 하는것 아니였기에  
공상이 하늘을 꼭 메웠던 가슴에  
총을 쏜 병사가 되었어요

하늘가 별들은 밤지켜 빛나도  
밤없이 낮없이 빛나는 별은  
병사의 눈동자여라  
그 별은 하늘을 지키고 땅도 바다도 지켜  
사라질줄 몰라라  
저 하늘가 별들이 대신 못하는  
청춘의 열정으로 내 조국에 빛나라

## 병사의 마음에도 샘물이

한국부

야간훈련 실참에  
샘물터 찾아 허리굽히니  
쟁반같이 둥근달  
물우에 떴네

물우에서 마주 웃네  
아름다운 그 모양  
가슴가득 안겨드니  
문득 뜨거워지는 이 가슴에  
고향의 모습이 떠올라  
선뜻 입을 못대는 병사의 이 마음

어리어오네  
고향의 정든 박우물가

달이 뜬 샘물을  
꿀처럼 달게 마시던 어제날의 그 모습이...

물우의 둥근달 이즈러지면  
추억의 둥근달 깨어질것만 같아  
목은 말라도 목은 말라도  
차마 입을 못대고 물과 달을 안아보는  
병사의 이 마음에도 샘물이 솟구치네

아름다운 이 달빛 지켜  
끝없이 소중한 고향을 지켜  
**김정일**장군님의 총폭탄이 될  
맹세의 불같은 샘물이  
맹세의 끝없는 샘물이

# 나는 늙음을 모른다

신형길

색은 바래고  
불에 탄 흔적도 있어라  
50년 그해 여름  
군복을 입고 달았던 이 견장

세월은 흘러  
어느덧 머리에 흰서리 내렸어도  
오늘도 너를 보며  
그 시절의 마음을 되찾나니

내 두어깨에 조용히 올려놓으라면  
그날의 총대의 무게도 느낄수 있어라  
침략자를 무찌르며  
결사의 고지를 내달던  
그날의 웨침소리도 들을수 있어라

나와 함께  
전화의 불길속을 헤쳐온 증견자  
너를 바라보노라면  
최후의 결사전을 앞두고  
수령님께 맹세를 올리던  
그 순간에도 서보노라

그 얼마더냐  
어깨우에 중기를 메고  
넘고넘은 강하는

그 얼마더냐  
네우에 배낭을 지고  
넘고넘은 결전의 고비는

땀에 젖고  
눈비에 젖으며  
포화에 끄슬리고  
총탄에 귀떨어지고

허나  
너를 단 군복을 입어  
나는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한  
정의의 총을 쥐고  
용맹하던 이 나라의 아들

원썩가 이 땅에 불질했을 때  
조국 위해 선뜻 나섰던  
그 시절에 받은 훈장처럼  
내 삶을 비쳐보는 네가 있어

나는 늙음을 모르는  
영원한 병사  
오늘도 이 땅을 넘보는 원썩가 있어  
내 다시 너를 어깨에 다는 날엔  
이 세상의 침략자들을  
한놈도 남기지 않으리라!

# 병기창의 정적을 두고

홍문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안은 조용하다

등불에 끄슬린 키낮은 천정아래  
귀틀벽 더듬으며 한참을 섰으나  
서있을수록 깊어지는  
밀림속 병기창의 숨엄한 이 정적!

흥겨이 바람 뿜던 풀무소리로  
꼭약을 다지던 뜨거운 숨소리로  
밤낮을 가림없이 들썩이던 이 집이  
언제부터 조용해졌단말인가

상기도 저 줄칼엔  
뿔바늘 갈아돌린 그 재봉기소리 깃들어있는듯  
저 모루 후더운 땀으로 적시며  
원썩칠 불덩어리 마련하던 메아리에  
화답하며 모여들던 새무리  
지금도 해종일 처마끝에서 우짖는데

그처럼 소중히 아끼던 공구들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면서도  
이 집에 차흐르던 그 음향만은  
광복의 날 투사들이 모두 안고갔구나

들려온다 푸르른 수림넘어  
 겹쌓인 난관을 박차며 울리는  
 렬차의 기적소리, 철마의 발동소리  
 어디서나 울리는 이 집이 그 음향이...

포연가신 하늘가에  
 붉게 피어오른 강선의 노을도  
 이 집의 저 숯불이 피어올린것 아니던가  
 누구의 도움도 바람이 없이  
 사회주의를 펼쳐가는 발구름소리도  
 그날의 그 음향에서 이어진 노래 아니던가

아 둘러보면 밀림뿐인 이곳에서  
 백만 원쑤와의 결전을 위해

포도 총도 만들어낸 그 음향은  
 제 손으로 락원의 초석을 다지며  
 영원히 자력갱생할  
 조선의 발걸음을 키우는 소리였구나!

안은 조용하고  
 서있을수록 정적은 깊어가도  
 이 집은 정녕 조용치 않구나  
 위대한 장군님의 높이신 뜻대로  
 온 조국땅에 울리는 오늘의 음향을  
 여기서 다 들을수 있기에!  
 세월과 함께 더욱 커질 래일의 음향은  
 여기서 다 새길수 있기에!

## 빼꼭새 울면

전영식

온 들판을 울리며  
 구성진 목소리로 울어예누나  
 빼꼭새 빼꼭  
 봄이 왔다고

내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는  
 구성진 봄노래  
 반가워라 땀흘리는 벌에서 듣는 너의 노래  
 빼꼭 빼꼭  
 내 마음에도 가득차오르는 봄노래

김오르는 두엄더미 훌훌 헤치며  
 네 노래에 귀기울이노라면  
 뜨거움에 땀을 젖는 이 마음  
 그날의 논머리에 다시 서보노라

이른새벽  
 두령길로 걸어오시던 수령님의 환한 미소  
 오늘도 저기 저 붉은 노을속에  
 환히 어려울듯  
 자꾸만 달려가는 그날의 논머리

아, 이제라도 오실것만 같아라  
 온 세상의 봄빛을 다 안은 그 미소 지으시고  
 농사차비 잘했다고 기뻐하시며  
 이 거치른 손도 따뜻이 잡아주실듯  
 오시면 우리와 무릎을 마주하시고  
 허물없이 담배도 권하시며  
 만풍년의 열쇠도 안겨주실듯

시는 시대의 얼굴입니다.  
 하기에 우리는 훌륭한 시작품 한편을 보고서도

빼꼭새 울면  
 그날이 생각나  
 수령님 뵈옵던 그날  
 논갈이며 물대기  
 농사문제 하나하나 일깨워주시며  
 바치시던 그 로고 가슴에 맺혀와라

다시는 걱정마시라고  
 이제는 이런 험한 길 걷지 마시라고  
 우리 진정으로 아뢰었던  
 우리의 사회주의가 강하자면  
 쌀이 있어야 한다고  
 쌀로써 장군님을 잘 받들라고  
 하시던 그 말씀 쟁쟁해라

빼꼭새 울면  
 수령님 오시였던 그 봄날  
 그 새벽에 세워보는 이 마음  
 정당 10톤을 내자 하시던  
 그 유훈 이 심장 불태워  
 위훈을 부르나니

아, 빼꼭새 빼꼭  
 너는 들판에 구성진 노래로 봄을 부르고  
 그날을 못잊어  
 그날에 사는 나의 마음엔  
 봄들판에 바쳐갈 위훈을 부르누나

그 시대를 알수 있고 그 시대의 사상감정을 알  
 수 있는것입니다.

시초 《강철로는 무엇을 끓이는가》는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있는 강선로동계급의 생활을 높은 시대정신으로 감수하고 절절하게 노래하고있습니다.

전승일동무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직접 땀을 흘리면서 느낀 우리 강철로동계급의 정신세계를 《지구의 조종간을 틀어잡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이 영원한 청춘의 박동으로 높이 뛰라고, 우리의 붉은기를 더 높이 펴력이라고 사회주의 붉은피를 끓이고있다》는 주정을 전형적인 시대감정으로 강렬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투철한 당정책적안목과 진지한 탐구정신은 늘 체험하고있는 평범한 생활도 새롭게 감수하고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노래할수 있다는것을 이 시초에서도 엿볼수 있습니다.

시초의 모든 시들이 강철로동계급의 생활을 자질구레하게 그리지 않고도 주정화된 감정으로 시

적정서, 시대적정서를 뜨겁게 느낄수 있게 한것은 바로 생활에 대한 시적체험이 깊고 시대정신이 강렬하기때문입니다.

범상한 소재라고 생각할수 있는 보안경을 두고도 새로운 시적탐구, 시대정신의 호흡으로 하여 보안경만 끼면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도 천리경처럼 비울수 있고 사색의 바다를 헤쳐가시는 장군님의 영상도 비울수 있다고 노래한것은 전승일동무의 예리한 시적감각과 창작적재능을 가늠할수 있게 합니다.

시초 《강철로는 무엇을 끓이는가》는 늘 체험하고있는 생활을 시대적안목으로 새롭게 투시하고 절절하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조선문학》에 추천합니다.

시인 주광남

시초

## 강철로는 무엇을 끓이는가

전승일

### 강철로는 무엇을 끓이는가

구리빛 팔뚝을 란간에 얹고  
불덩어리 강철로를  
지그시 바라보는 이런 때면  
불쑥 마음속 어디에선가  
불기둥처럼 일어서는 말이 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끓이고있는가

내 조국의 만아들아  
더욱 거세차게 끓여내라!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이 번뜩이는  
당의 부름이  
새해 첫아침 찡찡 로정에 메아리쳐올 때  
소리치며 이 아들은 출강구앞으로 내달렸나니  
그날엔 목숨보다 귀중한 맹세가 펄펄 끓었다

장군님이시여  
만대를 가도 쇠물은 식지 않으리다...  
한해 쇠물량 다 끓여놓고  
진정의 말 아뢰이고싶은 이 저녁

어쩌면 네 품에서는  
맹세보다 값높은 행복이 한껏 일렁이는것만  
갈구나

강철로여  
내가 너를 닮았더냐  
내가 나를 닮았더냐  
가식과 거짓을 모르고  
오직 순결한 쇠물 하나만을 위해  
지동치며 끓여번지는 너는 정녕  
이 용해공의 불덩어리 심장이 아니더냐

그렇더라  
지구의 조종간을 틀어잡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이  
영원한 청춘의 박동으로 높이 뛰라고  
우리의 붉은기를 더 높이 펴력이라고  
오 나의 심장 강철로는  
뜨거운 사회주의 붉은피를 끓여내고있다

## 다만 한줄뿐

보물진 용해일지우에  
오늘도 나는 적는다  
끓여낸 쇠물수자  
다만 한줄뿐

이 가슴에 격랑치는  
사랑을 증오를 환희를  
쏟아놓는다면  
광막한 대지우에 바다로 넘치리...  
그렇건만 네우엔  
다만 쇠물수자 한줄뿐

오 짙막한 이 한줄을 만들기 위해  
쇠장대는 그 몇번이나 갈아댔던가  
짧아지면 바뀌들고  
바뀌들면 또 짧아지는

이 쇠물수자 한줄을 새겨놓자고  
나의 방열복은 마를새가 없었다

나의 숨결은 잦아질새 없었고  
평범했던 내 목소리는  
우렁찬 거성이 되었다

무슨 긴 글이 필요하랴  
나의 사상이 비끼고  
나의 녀이 끓여지고  
나의 맘이 함께 불탄  
쇠물톤수 이 짙막한 글줄이  
조국의 운명을 떠메신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힘이 되나니

이 가슴에 불덩이처럼 고평치는  
사랑도  
증오도  
환희도  
오직 너를 위해 끓노라  
쇠물수자 다만 한줄뿐

## 쇠장대보다 무겁습니다

웃으라고  
웃으며 잡으라고  
내앞에 놓아준  
꽃손잡이 조작변앞에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 우주가 흘린 눈물을  
다 새겨안으신 장군님  
어쩌면 쇠장대로 해 굳어질  
용해공의 이 작은 손까지  
그리도 마음쓰셨단 말입니까

할아버지 손에서  
아버지가 바뀌워졌고  
오늘은 또 내가 넘겨받아

장발 쇠장대를 휘두르며  
땀흘리는것을 더없는 공지로 생각했거니

아 인간만세의 조종간같은  
이 조작변을 받아안은 용해공은  
쇠물바다 그 일마를 펼쳐야  
장군님의 아들로 떳떳이 불리울수 있습니까

진한 땀 한번 흘려보지 못한 나를 아껴  
이 손에 쥐여준 작은 조작변이  
위대한 장군님앞에서는  
천근 쇠장대보다 더 무거워  
언제나 두손만으로는  
칠수가 없습니다

## 나의 보안경

떨결한 방열복자락으로 닦은  
이 보안경만 끼면  
나의 눈엔  
조국이 다 보이더라

은은한 달빛을 밟으며  
거리를 거닐 때에도  
극장으로 백사장으로 내달릴 때에도  
보이지 않던

조국애의 사명감이  
떨떨 끓는 쇠물앞에서 이 보안경만 끼면  
몇백배 투시경처럼 확대되어오나니

저 높이 금수산기념궁전에 길이 계시는  
우리 어버이께서  
장하다고  
쇠물의 바다를 펼쳐  
우리 장군님을 잘 받들라고 보내주시는

태양의 미소가  
나의 눈에 천리경처럼 비쳐온다

세계의 정상우에  
또 한걸음 나의 조국을 올려세우려  
위대한 사색의 바다를 헤쳐가시는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도  
이 보안경만 끼면  
심장에 뜨거이 새겨지나니

눈부신 백광의 쇠물앞에서  
이 푸른 보안경을 벗으면  
아 나에겐  
오히려 한치앞도 보일것 같지 않아

조국과 세계를 내다봐야 할  
용해공 나의 눈이  
한시라도 흐려질가봐  
밤이나 낮이나 뚫어번지는 쇠물앞에서  
나는 이 보안경을 벗지 않노라

## 나는 좋더라 이 옷이

남원철

군복을 입던 습관인지  
나는 좋더라 이 옷이  
한껏 로동에 땀을 바치며 입는  
이 수수한 작업복이

이 옷을 입고  
창조의 낮과 밤을 눈비속에 지새도  
코노래는 저절로 흥에 겹고  
내 로동의 자욱이 습밴  
이 옷만 입으면 땀땀하더라

기름내 오르고  
땀내 배여도  
실참에 앞섶을 헤치면서도  
처녀들 달아주던 축하의 꽃송이  
그 향기도 풍길듯 다시 만져보게 되더라

내 어릴적 장난도 세차  
때없이 옷을 바리면  
지청구 많던 어머니도  
이 옷만은 웃으며 그 무슨 보물인듯  
깨끗이 빨아 다림발도 세워주는  
나의 신성한 작업복

새침때기 작업반 그 처녀도  
기대에 굶힌 자리도 누벼주고

떨어진 단추도 달아주며  
정을 다해 손질도 해준다네  
아마도 나보다 위훈이 습밴  
이 옷에 사랑이 가는지

내 아침마다  
이 옷을 입고 거울앞에 잠시 서볼 때면  
그 모든 사연만이 아닌  
크나큰 믿음의 정이 다시금 마음을 덥혀  
혁신의 하루를 기억해주더라

아 우리 장군님  
일터에 오셨던 그날  
땀내 배인 작업복차림이라 주저할 때  
로동의 신성한 수고가 어리어 좋다고  
허물없이 한품에 안아주실 때  
그 사랑에 젖어내리던 눈물이  
아지도 마르지 아니한 옷이어서

나는 좋더라 이 옷이  
조국 위해 바치는 나의 성실성이  
한생 뜨겁게 배여  
우리 장군님 그 언제나  
일터에서 땀흘리는 우리 로동계급을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 기다리는 안해

정성우

잠간사이에 개찰구는 텅 비었다.

환한 무리등 불빛에 번들거리는 구내의 대리석 포석우를 안타깝게 방황하며 렬차의 승강구들을 두리번거리는 철송의 눈에 차랑차랑 물기가 고여 오르기 시작했다. 찬혁은 아들애의 손목을 꼭 잡아 쥐었다. 그의 마음속에도 허전한 생각이 밀물처럼 차들어왔다.

《그만 집으로 가자-》

철송은 그자리에 굳어져버린듯 움직이지 않았다.

《씨- ○- | - ○-》

하더니 잡아채듯 손목을 뺐다. 손에 쥐었던 빨간 사과를 내동댕이치는 철송의 불을 타고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앞으로 굴러가는 사과알에 찬혁의 눈길의 미처 갔다. 어머니가 오면 주겠다고 들고왔던 사과였다.

《홍, 아버지 거짓말쟁이. 줄장부! 우리 선생님 이 거짓말 하면 줄장부라구 했어-》

철송은 도톰한 입술을 빼죽이 내밀고 찬혁의 앞을 막아서며 받는 소 모양으로 노려보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생산실습을 지도하기 위해 지방으로 나간 공장대학 교원인 안해는 열흘간의 실습지도 과정을 마치고 밤차로 돌아오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일에 퍼그나 습관된 찬혁이었으나 오늘은 어떤 일인지 돌아오지 않는 안해가 야속했다.

그도 그럴것이 오늘은 하나뿐인 아들애의 생일이였다.

(당신은 알고 떠나지 않았소?)

늘 무언속에서 눈으로 많은 말을 하군하는 안해의 유순하고 큰 눈동자가 점점 앞으로 다가들어온다.

그 눈에는 간곡한 부탁과 믿음이 함뿍 담겨져 있었다.

(당신은 역에 나와계시겠지요. 미안해요. 전 언제나 당신이 절 이해하여주시는데 습관되었는걸요. 이번에도 이해해주세요.)

눈으로 하는 안해의 말이 공명관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찬혁은 머리를 들어 눈발이 날리는 멀리 하늘

공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몇해전 그날은 춘풍에 꽃향기가 실려오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다.

무릇 안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남편들은 자기집의 식탁으로 친지들을 즐겨 초대한다. 이럴 때면 정도이상으로 너그러워지는 법이다. 찬혁이 역시 그런 남편들중의 한사람이었다. 동무들을 자기집의 저녁식탁으로 청하여오는 찬혁의 마음은 발걸음을 앞섰다.

활짝 핀 나리꽃으로 노란 용단을 이룬 도로옆을 띄어보며 조차장 다리위로 들어선 찬혁의 옷자락을 누구인가 슬며시 잡아당겼다. 키가 꺾두록해서 군대때부터 안테나로 통하던 철송이었다.

《철송이녀석을 데리구 가자구.》

《그냥 가도 되네. 토요일엔 제 어머니의 교수가 없지 않나. 지금쯤 어머니와 함께 받들어총련습에 정신이 없을거네.》

《군대식인데...》

《제대군인들이 군대식으로 살아야지. 우린 아들애도 그렇게 키우지...》

찬혁은 입술이 벗겨지도록 웃었으나 동무들의 얼굴은 약속이나 한듯이 엄숙해졌다. 얼굴들에는 마음속의 불안들이 즉시 무언극처럼 반영되었다.

《선생님이 집에 계신단 말이요?》

《참 별일이군. 스승은 제자들의 식탁을 차려놓구 기다리구, 제자들은 그리루 빈손으로 가고...》

《군복들을 벗더니 눈물덩어리 감상주의자로 둔갑했구만. 제자이기전에 남편의 전우라는 생각을 하는게 훨씬 장부다울텐데...》

굳어졌던 얼굴들이 유연하게 풀리기 시작했다.

어느덧 그들은 보통강의 수양버들을 허리에 끼고 우뚝 솟은 탑식아빠트 현관앞에 이르렀다. 층계를 오르는 활기에 찬 걸음들이 점차 더디여지기 시작했다. 하나둘 찬혁의 뒤로 종대로 늘어섬여 얼음판우에 올라선 사람들처럼 주춤거렸다.

《서철송!》

찬혁은 문앞에서 굵은 저음으로 아들애를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문도 열리지 않았다. 찬혁의 얼굴우로 옅은 웃음발이 잔줄거렸다.

(요 감쪽한게...)

《서철송!》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불렀다.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불시에 발바닥이 저려났다. 따져



운것이 잔등을 지지며 숨결이 더워난다.

찬혁은 급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후더운 집안공기로 부엌으로 들어서서 찬혁의 숨길이 막혔다.

부엌도 방안도 아침 그대로이다.

찬혁은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다.

이제 안해를 기다리기엔 저녁이 너무 늦어질것이었다.

《사관장, 내 제격 우리 집 사람을 데려오겠네. 선생님에게 갑자기 일이 제기된것 같구만.》

따라내려선 철훈의 소리였다.

《필요없어...》

찬혁은 돌아서는 철훈의 옷자락을 거머쥐었다.

《병사식으로 해야지. 언제 너인들을 불러다가 차리겠나. 맥주야 아무려면 어땀가. 상에 고뿌!》

찬혁은 앉은 밥상위에 고뿌를 받쳐가지고 방으로 올라갔다.

병사시절 친구들은 흰거품이 기세 좋게 부풀어 오르는 맥주잔들을 받거나 권하거나 하며 웃고 떠들었으나 그들의 기분은 찬혁의 마음을 감염시키지 못했다.

퍼그나 시간이 흘러 동무들은 이미 돌아갔다.

수양버들 그늘에 한층 더 컴컴해보이는 보통강 물위에 평롱한 별들이 떨어져내려 반짝거렸다.

활짝 열어놓은 창밖에서 미풍에 물비린내가 흘러들어오며 비취색 창가림이 하르르 날렸다.

안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방안은 고요에 잠기였다.

벽시계가 열한시를 가리키며 종을 울리었다. 강건너 큰길에서 이따금씩 들려오던 자동차의 고르로운 발동소리도 더는 들려오지 않는다.

문득 복도쪽에 서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안해에 대한 불만으로 굳어졌던 마음이 봄눈 녹듯 스르르 풀린다.

찬혁은 덮치듯 안겨드는 반가움에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행차뒤 나발이요, 다들 가버렸소. 유정씨!》

그는 달려나가며 문을 열어제겼다.

몸매 풍성한 보육원이 문 열리는바람에 숙였던 머리를 들고 찬혁을 마주보았다. 굳어진 두 눈길이 허공에서 딱 부딪혔다.

보육원의 품에 안겨 잠든 철송이가 가시처럼 눈을 찌른것은 다음순간이었다.

《아니- 집에 아버지가 계셨군요.》

《...》

《토요일이면 매번 어머니가 데리려 오시더니... 어머니를 기다리던 애가 방금 잠에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애때문에...》

지친 빛이 얹게 어려있는 보육원의 얼굴이 밝아졌다.

《유정선생에게 급한 일이 생겼겠지요.》

너인은 조용히 눈길을 내리깔았다.

불시에 손맥이 풀렸다. 허탈감이 회오리바람처럼 온몸을 휘감았다. 철송이를 방안에 눕힌 너인이 어떻게 돌아섰는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결혼후 이때까지 저녁이면 매일 밥도 짓고 철송이를 탁아소에서 찾아오던 일이 영화의 화면처럼 눈앞을 어리쳤다.

찬혁은 어지럽게 떠오르는 환영을 쫓아버리고 싶어 두눈을 꼭 감았다.

너무하다. 모든것을 웅당한 일로 여기다니...

다급하게 다가드는 발자국소리가 귀전을 따갑게 울렸다.

거의 뛰다싶이 다가드는 소리에 이어 벌컥 문이 열렸다.

찬혁은 벌렁 침대우에 누우며 요포를 머리꼭대기까지 꼭 뒤집어썼다. 급히 방으로 올라선 안해가 머리맡으로 다가섰다. 몰아쉬는 더운 숨결이 얼굴을 간지럽힌다.

《여보, 성났어요? 미안해요. 당신 친구들에게는 후날 꼭 사과하겠어요. 글썄 래일 아침 첫시간에 우리 학생의 론문을 올려보내라는 연락이 갑자기...》

《그래, 그게 원인이요?》

찬혁은 요포를 휙 밀어던지며 일어나앉았다. 눈과 눈이 부딪쳐 한동안 그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안해의 눈가에 점차 이름할수 없는 야속하고 절절한것이 눈물로 차올랐다.

(아니, 어쩔 당신도 이러실 때가 있는가요?)

그 눈물에는 가슴을 치는 그 무엇이 깔려있었다. 눈물이 실린 안해의 눈빛에서 찬혁은 마지막 숨을 힘겹게 모두어쉬던 병사시절 옛 중대장의 눈에서 본것과 꼭 같은것이 번뜩이는것을 보는것만 같았다.

찬혁은 오한을 만났을 때처럼 부르르 몸을 떨었다.

《자기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것은 속물이요, 속물이요...》

산울림처럼 고막을 때리는것은 분명 중대장의 목소리였다.

찬혁은 두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심장이 후둑거린다.

안해는 아무일도 없었던듯 부엌으로 내려갔다.

달그락달그락 그릇부시는 소리가 찬혁을 질책하는 절규처럼 심장깊이 들이박혔다.

...

찬바람이 얼굴을 침질했다.

찬혁은 아들을 들어올려 품안에 끌어안았다.

흑포도처럼 까만눈으로 마주보는 철송의 눈에 불만의 어두운 그림자가 가셔지지 않는듯했다. 아들이 애가 측은했다.

《철송아, 어머니 밭지. 철송이와 한 약속도 지키지 않구.》

《피-》

철송은 입술을 삐죽이 내밀었다.

《난 엄마가 좋아. 씨- 엄마는 눈이 오는데 어디서 잘가?》

무엇을 생각하듯 두눈을 깜박거린다.

티 한점 없이 맑고 깨끗한 아들의 눈은 자기와 어린것에게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사람, 안해에 대한 생각을 부지중 불러일으켰다.

...렬차는 《봉-》 하고 경쾌한 소리를 뿜으며 출발을 재촉했다. 사람들이 렬차에 오르기 시작했다. 찬혁은 작업반원들이 렬차에 다 오르자 천천히 승강구문으로 들어섰다,

《아- 철송이 아버지.》

숨가쁘게 웨치는 안해의 목소리에 찬혁은 렬차에서 내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유정이가 큰 가방의 힘에 쏠린 몸을 한옆으로 기울이고 달려온다.

《유정이!》

찬혁은 마주 달려나가며 쓰러질듯 다가드는 안해의 목직한 가방을 받아들었다. 숨가쁘게 모두 숨을 내쉬는 안해의 붉게 상기된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무슨 일이요? 수업이 있겠는데...》

《야참, 못보는가 했어요.》

유정은 《호-》 하고 안도의 긴숨을 내그었다.

《교수가 없어요. 두번째 강의예요. 그래서 빨리 온다는것이... 여보, 날씨가 차지는데 거의 한달 동안이나 이동작업 나가계실 당신의 그 가랑이에 불달린것 같은 성격이 마음을 놓을수 없게 해요.》

《뭘-요? 장마철 강쪽에 철송이를 내놓은것 같지는 않고?...》

유정은 갑자기 입술을 찌쥐고 숨넘어가는 소리로 웃어댔다.

《작업에서 땀을 많이 흘렸어도 휴식시간에 꼭 더운물을 잡수세요. 음식도 꼭 더운 음식만 드세요.

담배도 하루 다섯대이상은 안돼요.》

《처가 교원이니 이걸 늘 학생취급을 당하는구

만. 여보, 내가 당신네 학생같지는 않소?》

유정은 찬혁의 얼굴우에 간절한 눈그루를 박았다.

《약속하지요?》

《누구의 령이라구 여기겠소!》

뜨거운것이 찬혁의 가슴에 울컥 치밀어올랐다.

《정말이지요?》

유정의 눈이 불타는 사랑으로 이글거렸다.

《명령으로 접수하오.》

찬혁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유정의 얼굴이 방그레 피어나며 배속같이 하얀 이발들이 반쯤 드러났다.

《아침에 잊은것이 있기에 더 가져왔어요. 가방안에 옷을 더 넣었어요. 단지는 보약단지예요. 공복에 잡수세요. 그리고 또 있어요. 가방안에 편지가 있는데 렬차에 올라 읽어보시고 꼭 그대로 하세요.》

렬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찬혁은 렬차에 올랐다. 유정은 렬차를 따라오며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다. 안해의 모습이 점차 반점으로 사라지며 차거운 바람이 승강구로 밀려들어오자 찬혁은 객차안으로 들어왔다. 자리에 앉으며 목직한 가방을 무릎우에 올려놓고 열었다. 차곡차곡 포개여놓은 겨울내의, 배가 볼록한 비닐자루들, 흰단지, 그옆에 모로 서있는 편지.

찬혁은 편지봉투를 꺼내들고 속지를 뽑았다.

《여보!

아침에도 점심에도 철송이와 제가 언제나 당신 옆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찬바람부는 로천의 높은곳에서 작업을 할 때면 옆에는 언제나 제가 있어요.

어려하시겠지만 사업에서 성과가 크면 클수록 언제나 그 원인을 동지들의 사랑속에서 찾으시고 영광앞에는 동지들을 내세워주세요.

부디 반장사업에서 침착하세요.

다음은 안해의 <명령>이에요.

첫째. 담배를 하루 다섯대이상 피우시지 말것.

둘째. 공복에 보약을 꼭 잡수시며 쉬실 때면 모내의를 갈아입고 취침하십시오.

셋째. 3일에 한번씩 소식을 알릴것.

한조항이라도 여기는 경우 다시 만나는 그날 당신의 그 어떤 요구도 <접수>할수 없음.

이상이에요.

여보, 몸성히 돌아오세요. 안녕히.

유정》

가슴이 후터워났다.

몸은 안해를 뒤에 두고 멀리 앞으로 달리고있

었으나 마음은 안해의 후더운 곁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찬혁은 안해가 차창밖에 있기라도 하듯 성급히 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렬차는 시내를 벗어나 산허리를 끼고 기세 좋게 달리고있었다.

아- 유정이, 난 이 세상 모든 너인들의 사랑을 합하여 나에게 준대도 당신의 그 사랑보다 소중치 않소. 내 사랑하는 유정이...

...

찬혁은 자기를 뵈히 바라보는 아들애의 야들거리는 볼에 까칠한 구레나룻을 가져갔다.

《아가...가》

철송은 캐득거리며 어깨속으로 머리를 깊숙이 틀어박았다.

갓가지 장식등 불빛으로 명멸하는 평양역사의 뽕죽지붕은 평평 쏘아져내리는 눈송이들을 끌어안고 흐뭇하게 서있었다.

지하건능길을 빠져 빠스정류소로 뛰어가던 찬혁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돌아섰다.

《여- 연공반장동무!》

얼굴을 후려치는 뽕안 눈발속에서 언뜻언뜻 뛰여오는 발이 보였다. 흠뻑 눈을 뒤집어쓴 철송이가 큰 키가 들썩거리게 몸을 흔들며 꿈길에서처럼 나타났다.

《어떻게?》

멀리 타향에서 고향지기를 만났을 때처럼 반가웠다.

《선생님이 자네가 역에 나왔을게라구 해서 차에서 내리며 두루 찾는다는데가 이렇게 뒤에 떨어졌구만.

내가 한발 먼저 오네. 우리가 떠날 때 시운전이 끝났으니 선생님이 래일엔 도착해!》

《?!》

찬혁은 그때에야 철송이가 이번 생산실습에 선생인 안해와 함께 갔었다는 생각에 미쳤다. 긴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철송의 말은 호기심을 부쩍 끌어당겼다.

《우리 기계과에서 창안한 원통식 기증기는 말이야. 유정선생의 착상이구 설계 역시 선생님이 했소. 선생님 수고가 정말 많았소.

오래전부터 끌어오던것을 이번 생산실습기간에 완성했거든. 수도의 주택건설장에 지원하자구 모두가 달라붙어 완성했지.》

마른땅이 물을 삼키듯 철송의 말은 찬혁의 귀에 토 하나 빠치지 않고 스며들어왔다.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가슴이 후련해왔다. 철송은 계속 많은 말을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눈내리는 밤거리가 아니라 파릇한 산기슭을 안해와 나란히 거니는 심정에 잠겨들고있었다.

빠스에 오르자마자 철송이는 한열으로 머리를 떨구고 곤한 잠에 빠져버렸다. 누구도 말없이 차창밖으로 눈길을 보내고있었다.

빠스의 가벼운 동음이 자장가처럼 들린다.

《난 눈내리는 날이면 늘 군사복무시절의 그 마지막 초소근무가 생각나군하오. 그날도 지금처럼 눈이 많이 내렸지...》

철송의 시름겨운 말에 찬혁은 차창밖으로 눈길을 보냈다. 눈내리는 버드나무거리는 고요했다. 온통 소복단장을 했다.

잊을수 없는 그날이 다시금 눈앞에 밝혀왔다.

《우린 그날 중대장동지를 잃었지...》

조용히 되뇌이는 찬혁의 머리에 추억의 물결이 거침없이 흘러와 차남치고있었다.

...밤새껏 퍼부어대던 눈이 멎은 새벽, 뜻밖에 정황이 발생하였다. 깊은 바다속갈던 검푸른 하늘이 연기색으로 희미하게 트이기 시작할무렵 근무조가 철수하여 귀로에 오른 때였다.

눈우에 희미하게 찍힌 흔적을 발견한것은 유철 중대장이었다.

허리부러진 속새풀들이 바르르 떠는데 그우의 눈판이 깊숙이 패어들었다. 바람은 부드러운 눈가루를 쓸어 몰아가며 흔적을 덮고있었다.

근무조는 흔적을 추적하여 곧 수색으로 넘어갔다.

작은 산고지를 넘고 그아래 눈덮인 진펄을 지나던 흔적은 형제봉돌출부밑에서 갑자기 없어졌다. 근무조는 돌출부를 삼면으로 포위했다. 포위를 점점 좁혀들어가는 사이에 휘뿜히 새날이 밝았다.

밤새껏 퍼부어댄 흰눈을 아지마다 무겁게 떠이고 초대처럼 일어난 침엽수림으로 고지는 한결 음산하고 피피한 느낌을 주었다. 눈속을 덩굴며 고지에 오르던 근무조는 정점에 서있는 독립수림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쳤다.

(새였구나!)

허탈감으로 탄식의 긴숨이 숨새여나올 때 머리부에서 푸드득 새벽병이 날았다. 보드라운 눈가루가 얼굴을 산뜻하게 후려치며 뒤등이 오싹해왔다. 머리칼이 곤두선다. 이상한 예감으로 서로 마주보고있는데 《딱》 하며 검은 철덩이가 그들의 가운데 떨어졌다.

찰나 《독립수 우!》 하는 야무진 소리라 함께 옆구리로 날아들어오는 발길에 찬혁은 눈무지속

에 구겨박혔다. 철훈도 그 모양으로 나자빠졌다. 유철중대장이 랑다리로 그들을 차던지며 눈속에 구겨박힌 수류탄을 산아래로 집어던지는 것이었다.

산밑으로 날아가던 수류탄이 《뽕》 하고 채 땅에 닿기전에 허공에서 터지며 검은 연기가 퍼져올랐다. 목표를 발견한 유철이 민첩하게 충구를 돌리는 순간 《따-다당!》 하고 아침대기를 깨치며 아츠러운 총성이 울렸다. 유철은 흠칫 놀라며 천천히 몸을 바로 세우려다가 폭 하고 눈우에 쓰러졌다.

땅…따다당. 그들의 주위에도 탄알이 날아와 박혔다.

찬혁은 독립수의 나무가지를 부여잡고 몸을 돌리며 총질하는 목표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따다당-

철훈의 편발사격도 뒤따랐다.

따다당, 땅-

귀따가운 총성이 울리는속에 《킵》 하며 검은 물체가 눈속에 구겨박히는 것이었다. 뒤따라 눈물치들이 후두둑 떨어졌다.

눈깜박할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찬혁은 몸을 일으키며 한치앞에 쓰러진 중대장을 덮쳐안았다. 이어 철훈의 손이 중대장의 가슴을 성급히 움켜잡았다.

심장부위를 뚫고 들어간 두개의 탄알자욱에서 붉은피가 방울방울 떨어져 눈우에 퍼지고있었다.

《아-중대장동지!》, 《아! 중…》

찬혁은 너무나 억이 막혀 굳어진채 어쩔줄 몰랐다.

중대장의 더운 피는 눈덮인 조국의 고지를 붉게 물들이고있었다.

《중대장동지!》, 《중대장동지!》

찬혁도 철훈도 넋잃은 사람처럼 유철을 서로 품에 끌어안으며 부르짖었다.

한참만에 살쾅이 눈을 뜨고 바르르 턱을 떠는 유철의 입술은 새까맣게 죽어갔다. 얼굴이 밀랍처럼 새하얘졌다.

안타깝게 입술이 떨렸으나 무슨 말인지 가려들을수 없었다. 까만 동공이 까딱하지 않고 찬혁을 지켜보았다. 점차적으로 동공이 흰자위에 풀려가며 눈시울이 스르르 내리덮였다.

《아- 중대장동지, 날이 밝았습니다. 군사대학으로 떠나야 할 중대장동지가 여기 누워있으면…아-아-!》

그들의 애절한 웨침은 노을이 피어오르는 분계선초소의 하늘을 짝 메우며 멀리메로 메아리되어갔다.

찬혁은 점차 싸늘하게 굳어지는 전우의 시신을 철훈에게 넘겨주며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피의 분수가 가슴속 깊이에서 길길이 솟구쳐올랐다.

《아-! 모조리, 모조리- 아-싸 갈길테다-아-나서라!》

찬혁은 자동보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몸을 떨고있었다.

《사관장!》

철훈이가 중대장을 부여안은 손을 뻗쳐 무릎걸음으로 찬혁의 군복바지를 움켜잡았다.

《놓으라!》

철훈에게 잡힌 발을 뺏으며 불달린 범처럼 눈발을 차고 길길이 뛰는 찬혁의 앞을 우뚝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다. 초소에서 전우들과 함께 달려온 중대정치지도원이었다.

《특무상사 서찬혁 돌아설것!》

찬혁의 불꽃이 튀는 사나운 눈이 항변하듯 정치지도원의 얼굴을 찌른다.

《못돌아섭니다. 비켜서십시오.》

《명령이요!》

《…》

정치지도원의 물기 번뜩이는 눈과 마주친 찬혁은 몸부림치며 불로 지지듯 타들어오는 분노의 충동으로 자동보총의 충구를 높이 쳐들었다.

《중대장동지, 아- 중대장동지-》

따따다당… 따따당-

야무진 총성은 연연 뻗어나간 산발들과 산봉우리들을 타고넘으며 멀리 조국산악에 울려갔다.

유철을 분계선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무명고지에 안장한 그들은 전우들의 말없는 배웅을 받으며 초소를 떠나왔다. 초소를 떠난 그들의 마음은 돌덩이가 매여달린듯 항상 가슴이 묵직했다.

눈만 감으면 유철의 모습이 삼삼히 떠올랐고 그의 마지막부탁도 귀전에 쟁쟁했다.

그토록 그림던 평양에 와닿았건만 렬차의 승강구에서 내려 대리석포석우에 첫발을 들여놓는 순간 또다시 유철의 모습이 눈앞을 막아섰다. 평양역사의 무리등 불빛속에서 언제나 자기를 어엿한 만능병사로 이끌어주던 중대장의 눈빛도 함께 빛나고있는것만 같았다.

멀리 화약내가 서려도는 분계연선의 무명고지에 누워있는 사람.

(아-동지를 뒤에 두고 저희들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묵직한 연덩이가 발목에 매여달린듯하다.

동생에 대해 깊은 정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곤하던 동지, 다시는 돌아올길 없는 유철에 대

한 사무처오는 그리움으로 하여 뜨거운것이 두볼을 적셨다.

그 눈물은 전우가 것처럼 소중하게 그리던, 아직은 한번도 보지 못한 유정을 친동생처럼 사랑해주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이로 이끌어주리라는 드높지 않는 결심이 섞인 눈물이었다.

중대장의 집부터 먼저 찾아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린 찬혁은 철훈을 집으로 떠밀어보내고 자신은 유철의 집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았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층계를 오르면서도 누구도 말이 없었다. 잊을수 없는 그날의 회오에 잠겨있었다는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깨버린것은 철훈이었다.

《오늘은 어떤 일인지 자꾸만 중대장동지가 눈앞에서 사물거리네. 눈이 이처럼 많이 내려서인지 아니, 유정선생에게서 받은 충격때문일게야...》

안해에 대한 친구의 칭찬이 싫지는 않았으나 찬혁은 말꼬리를 돌렸다.

《이제 들어가면 딸애랑 무척 기뻐하겠구만.》

철훈의 길숨한 얼굴우로 열적은 미소가 피었다.

술진 눈섭밑의 큰눈에는 러로의 피로가 무겁게 매여달려있었다.

《부끄럽네. 이제 꼭 자네 가정처럼 전우의 령전에서 조총을 울리며 다지던 맹세 헛되이 하지 않으려네...》

문을 열고 자기 집으로 들어서려던 철훈은 돌아섰다. 그리고는 옷주머니에서 네모나게 접은 봉투를 내밀었다.

《선생님이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야. 잊을번 했군.》

찬혁은 심장이 찌르르해왔다. 그것을 받아들자 수집계 웃으며 감빳거리곤하던 안해의 크고 검은 눈동자가 나타나 얼른거리는데것 같았다.

편지에서 풍겨오는 안해의 다정하고 따뜻한 체취가 얼어들었던 몸을 스르르 풀어주었다.

집안으로 들어선 찬혁은 우선 철송이부터 자리에 눕혔다.

네활개를 쭉 펴고 고르롭게 숨쉬는 어린것을 한동안 들여다보던 찬혁은 책상앞에 마주앉아 침착하게 편지를 뜯었다.

《철송이 아버지, 당신과 헤어져있는 열흘간이 몇달 맞잡는것 같아요. 당신도 그렇고 철송이도 무척 보고싶어요. 역홈에까지 나와 기다리고계실 당신과 철송이에게 또다시 약속을 어기게 되는군요. 당신은 저를 언제나 리해하여주시었고 제

가 이런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저의 귀중한 동지예요. 남편이기에 앞서 소중한 스승이라고 부르고싶어요. 늘 집안일에 무관심한것만 같아 미안해하는 저에게 당신은 이런 말로 저를 울리곤 했지요.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데서 참된 가정의 행복을 찾읍시다.>

당신의 그 말이 오늘도 저를 이길로 주저없이 떠밀었기에 이번에도 제가 하는 일을 끝내고서야 돌아가리라 결심했던것이예요. 다만 오늘이 철송이의 생일인데 그애의 마음에 순간이나마 그들이 비낄가 두렵군요.

여보,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래일을 위한 오늘을 빛나게 살기 위해 온 나라가 들끓고있는 이때 우리들이 어떻게 책상앞에서 리론만을 배우고있겠어요. 그래서 이미전부터 만들어오던 새형의 원통식 기증기를 이번 실습기간에 꼭 완성해가지고 수도의 살림집건설장에 지원하자고 결의해나섰어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이곳로동계급의 방조를 받으며 완성했습니다. 리론과 실천이 결부된 공장대학생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른답니다. 전 이번에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우월성을 다시금 느꼈어요. 당신이 편지를 받을 때면 시운전도 끝날테니 기계를 신고 떠나겠어요.

제가 평양을 떠나올 때 철송이 생일에 함께 가려고 일요일저녁 대극장표를 부탁해놓았어요.

저녁 다섯시까지지는 제가 도착하겠으니 당신은 철송이와 함께 그때까지 오세요.

그리고 오늘밤에 철송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그애를 기쁘게 해주세요. 래일의 반가운 상봉을 기다리며 당신의 유정.》

유정이라고 쓴 두글자가 점차 크게 확대되며 편지가 그대로 안해의 얼굴로 변해 그윽한 미소를 보낸다.

찬혁은 그리움에 젖은 마음으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해의 부드럽고 뜨거운 숨결이 온 몸을 어루만져주는듯 했다. 찬혁은 하르르한 창가림을 한옆으로 밀었다. 어두운 하늘의 품에서는 함박눈이 쉬임없이 쏟아져내렸다. 평평 쏟아지는 눈송이를 보느라니 생각은 흘러온 그날에도 또다시 하염없이 달려갔다.

...

류별난 초소근무조였다.

날이 밝으면 군사대학으로 떠나게 되는 중대장 유철의 제의에 의해 그가 책임진 근무조에는 제대명령을 받은 특무상사 서찬혁이와 상사 김철훈이 포함되어있었다.

눈은 많이도 내렸다.

근무준비를 끝마치고 교대시간을 기다리던 찬혁은 옆으로 다가드는 인기척에 얼굴을 돌렸다.

《무슨 생각을 하오?》

철훈이와 함께 다가온 유철의 이글거리는 눈이 유심히 뜯어보고있었다.

《첫 근무의 밤을 생각합니다. 그때도 소대장이였던 중대장동지와 함께 갓 초소에 배치되어온 저와 철훈동무가 첫 근무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랬던가 ?》

유철은 빙그레 웃었다.

《병사생활이 끝났다고 생각지 마오. 언제인가는 우리 셋이 또 한전호숙에서 싸우게 될테니까.

아직까지 우린 미국놈들과 결산을 못했거든!》

유철은 립름하게 자란 제대병사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자네들에게 이 초소에서의 마지막밤에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병사시절처럼 부디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라는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데 습관된 병사시절을 잊지 말라는것ियो. 이걸 잊으면 리기적이구 저속한 속물이 되고말지.》

유철의 말은 어쩐지 자기들 세사람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어놓은듯한 예감이 들었다.

《평양에 가거든 우리 집에들 자주 다니오. 사람이 몹시 그리운 집안ियो. 집에는 부모님들과 대학교원인 내 동생 유정이가 있소. 하나뿐인 동생이지. 유정이에게도 오빠라곤 나뿐ियो...》

찬혁은 중대장의 입에서 늘 나오군하는 유정이가 그에게 하나뿐인 동생일뿐더러 남매간에 자별한 정을 간직하고있는 오누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뭉클해왔다.

그 유정이가 어떤 처녀인지 보고도 싶었다. 중대장과 헤어져 보고싶을 때마다 그 동생이라도 전우로 생각하고 자주 만나보았으면 얼마나 좋으랴.

《동무들이 자주 다니면서 오빠를 대신하여 군인정신으로 일생을 살아가도록 잘 이끌어주오...》

유철의 말에 찬혁은 범 본 토끼처럼 대변에 굳어졌다.

《어떻게 대학교원앞에 감히 혼시를...》

그 말에 유철은 머리를 뒤로 젖히고 호탕하게 웃었다.

《이제 보니 줄장부였군. 대학교원이기전에 처녀란말이야. 우리가 언땅에 배를 대고 조국을 지켰기에 공부한 처녀...

왜 말을 못하겠소. 생활도 병사식으로 대답하

게 하란 말이요. 그래서 처녀들이 제대군인들을 좋아하는거요.》

...

똑...똑 하고 조심스럽게 울리는 손기척소리는 잔잔한 추억의 호수가로 헤엄쳐가던 찬혁의 상념을 휘저어놓았다. 찬혁은 불의에 침습해들어오는 불청객에게 항변하듯 벌떡 문을 열었다.

철훈이었다. 길쭉한 얼굴에 열적은 미소를 띄우고 방으로 올라온 그는 잠든 철송이를 한동안 바라보고만 있었다.

《무슨 일인가?》

《래일 口동 기초작업장으로 기중기가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소.》

뜨직이 하는 철훈의 말에 그는 탄산수를 마신 것처럼 정신이 들었다.

(이자 뭐라고 했던가? 응, 그렇지.)

그곳엔 아직도 기대정리가 되어있지 않은곳인데...

찬혁은 밖으로 얼굴을 돌렸다.

어두운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들은 지상의 모든 것을 흰눈으로 만들려는듯 지꽃게도 퍼부어댔다.

찬혁은 말없이 옷장문을 열었다.

《철송일. 좀 말아주게. 하긴 동무야. 군대때부터 언제나 나의 일대리인이었지...》

철훈은 찬혁의 앞을 막아나섰다.

《래일아침에 함께 가자구.》

《고통스러운대로 열성보육원이 되어주게나.》

찬혁은 철훈의 어깨를 눌러앉히며 밖으로 나왔다.

버스에서 내려 건설장 입구로 들어설무렵에는 쏟아지던 눈꽃이 진눈까비로 변하며 사정없이 얼굴을 후려갈겼다.

뽕안 눈가루가 날리는 진회색 공간에서 안해의 얼굴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아물아물 눈앞으로 다가왔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세요. 철송이를 혼자 두고...)

안해의 눈은 의혹을 가득담고 불만으로 굳어져 버린다.

(당신을 마중가오. 우리의 결혼약속을 지켜 당신이 있는곳으로.)

안해의 얼굴이 확 붉어진다.

(빨리 오세요.)

안해는 손저어 부르며 자꾸만 멀리로 사라져간다.

(저녁 다섯시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는 아침이슬을 머금은듯 포랑포랑한 목소리로 귀전을 간지럽히던 안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눈앞에는 대낮처럼 환한 살림집건설장이 여기 저기서 충성의 지원돌격대로 나온 청춘남녀들의 일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혼합기 돌아가는 소리, 기중기 운전공이 부른 길고 짧은 호각소리, 여기저기서 산발하는 용접 불꽃... 대번에 정신이 필쩍 들었다.

찬혁은 휴게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큼직한 삼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자동차길우의 눈부터 푹푹 떠옴기는 그의 얼굴로 비오듯 땀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동쪽하늘에 피어오르는 노을을 뒤쫓아 아침해살이 눈부시게 비치기 시작했다. 간밤에 언제 눈 내리고 바람이 불었던가싶게 투명한 하늘은 밝고 깨끗한 얼굴로 대지를 굽어보고있었다.

안해의 밧그스레 상기된 얼굴이 번개처럼 눈앞을 차지했다.

(아니예요. 당신은 지금 약속을 지키고있어요. 우리가 한 그 약속, 일생을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자던 그 약속을.)

점점 크게 확대되는 안해의 잔줄거리는 웃음이 스치는 눈길은 마치도 자석처럼 찬혁을 이끌고 흘러온 그날에도 줄달음쳤다. 행복한 추억이 펼쳐진다.

...교수를 끝마친 유정을 나란히 하고 늦게야 대동강변을 거니는 찬혁의 마음은 비둘기가 들어온 것처럼 푸들푸들 뛰었다.

벼르고 벼려오던 비상한 고백을 하고야말리라고 굳게 결심하고 나온 결음이었던것이다.

얼마후에 있게 될 운명의 신고를 전혀 예견하지 못한듯 유정은 철부지 소녀처럼 깔깔 웃고 떠들며 줄줄 따라오기만 했다. 대학교원이라기보다 철부지소녀티를 갖 벗어난 처녀애같다. 말없이 씨엉씨엉 걸어가던 찬혁은 터져오를듯한 심장의 분출을 이기지 못하고 불쑥 돌아서며 거칠게 부르짖었다.

《유정이, 난 말ियो. 동무를, 동무를...》

뜨거운것이 목구멍에 콕 잠기며 말이 나가지 않았다. 이글이글 타는 눈길이 유정을 태워버릴듯 쏘아보았다.

《아니-오빠, 왜 갑자기 그러세요.》

유정은 영문을 모르고 뒤걸음치며 찬혁의 눈을 겁먹은 눈길로 훑쳐보았다. 유정의 맑고 깨끗한 눈길과 마주친 찬혁은 정신이 아찔해움을 어렵קות이 느끼며 이왕 꼭지를 따버린 말끝을 용감하게 풀어놓았다.

《사랑할테요, 유정이를 일생 사랑하...》

하나 채 쏘지도 못한 말주머니였다.

《네-에?》

겁에 걸린 유정의 눈빛에 찬혁은 심장이 멎는것 같았다.

유정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타격을 받은것처럼 주춤 몸을 떨었다. 얼굴이 해쓱하게 질려갔다. 그러나 도고한 이 처녀지성인은 인차 리성을 가다듬고 감성의 포로가 된 찬혁을 달래듯 차갑게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그랬됐군요. 참 유별난 청혼이군요.》

찬혁오빠, 난 동지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존경과 사랑은 혹 병립될수는 있어도 아직까지 결합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할수 있는 여유를 주는것이 공정하지 않을까요?》

고상한 거절이었다. 뜨거운것이 명치를 울리밀었다.

《병립이니 여유니 공정이니 하는 그런 모가 난 말을 난 내식으로 해석할테요. 그 해석이란 동무가 싫든좋든 유정이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 일생을 중대장동지의 유언대로 살겠다는것이요.》

《네에?!》

처녀는 타협을 모르는 열정의 공격앞에 연한 턱을 바르르 떨며 초점없는 눈으로 멍청히 찬혁을 쳐다보았다.

처녀는 그자리에 스프르 주저앉아버렸다. 《유정이!》

찬혁은 유정을 덩석 안아일으켰다.

연한 향수내가 물씬 코를 찌르며 몽클한것이 가슴에 닿았다...

시간을 알리는 현지방송원의 목소리에 찬혁은 현실로 돌아왔다

(지금쯤 유정도 이 건설장으로 떠나오고있을텐데...)

《기중기가 온다-》

환성을 지르듯 웨쳐대는 소리에 찬혁은 도로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밝아오는 아침해빛은 물기를 말끔히 삼켜버린 도로에 명랑한 빛을 뿌렸다. 그속으로 련결차들이 팡크처럼 우람차게 달려오고있었다. 련결차들은 기초작업장까지 와서 하얀 배기가스를 뿜으며 서서히 멎었다.

연공들이 분담된 자동차 적재함들에 뛰어올랐다.

맨 앞차의 적재함으로 오르던 찬혁은 운전칸문이 열리는바람에 그리로 무심중 눈길을 돌렸다.

곤친색 작업복을 가끈히 입은 중기의 녀인이 운전칸 발디디개로 내려섰다. 짜릿한 예감으로 발이 시렸다. 다음은 심장이 폭풍을 만난 바다처럼 기쁨으로 설레었다.

(아-!)

젊음의 생기가 넘쳐나는 탄력있는 몸매, 얼굴 위로 떠오르는 불타는 홍조, 유정이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안해였다.

《여보!》

흠칫 놀란 녀인의 눈이 화등잔처럼 커지더니 까만 눈동자에서 열광적인 빛이 발산했다.

《아니... 철송이 아버지!》

유정은 발을 구르며 부풀어오른 가슴우로 두손을 모두어 잡았다. 적재함에서 뛰어내린 찬혁은 안해의 손을 그러잡았다.

《학생들이 보고있어요.》

황급히 속삭이는 유정의 눈동자가 재빨리 주위를 방황했다.

《보라지... 정말 수고했소!》

유정은 천진한 소녀처럼 기쁨으로 어쩔줄 몰라했다.

기중기 부리우기 작업이 시작되자 찬혁의 눈길은 자꾸만 안해쪽으로 돌려졌다. 두눈길은 허공에서 자주 부딪쳤다.

무언속에 수많은 말들이 눈빛으로 오고갔다.

이따금 가벼운 바람이 땅바닥을 핏으며 지날 때 지척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일손을 멈추고 약속이나 한듯이 눈길을 돌렸다.

건설장으로 철혼의 부부가 철송이를 앞세우고 다가오고있었다.

기중기설치작업장의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는 철송은 마치도 군사놀이를 할 때처럼 활기에 넘쳐있었다.

반가움을 안고 아들에게로 달려가던 유정은 무춤 그자리에 멎었다. 뛰어오는 철혼을 보았던 것이다.

《선생님, 수고많았습니다. 철송이는 별일없이 잘 놀았습니다.》

《고마워요.》

인사를 하는 철혼의 목소리도 인사를 받는 유정의 목소리도 물기에 축축히 젖어있었다.

철혼의 안해가 유정의 손에서 삼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목에 걸고 나왔던 수건을 풀어 유정의 어깨에 얹어주었다.

그러는 안해를 바라보며 철혼이 찬혁에게 웃음을 짓고 유쾌하게 말했다.

《친구, 좋은 아침이구만!》

《그래, 좋구만. 이런 날이면 난 중대장동지의 령전에서 조총을 울리던 그날이 생각나군 하누만.》

《우리 시대 인간들의 행복관에 대해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 날이지.》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있었다.

찬혁은 물기가 그러한 철혼의 눈을 보았다. 자기의 눈곱도 화끈 달아올라왔다.

이 순간 그들은 분계선조소가 바라보이는 무명고지에 누워있는 유철이, 포성이 우짚지 않는 땅에서 조국을 지키는 싸움에 자기를 바친 전우를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그들의 가슴에선 전우들의 념원대로, 병사시절의 그날처럼 일생을 살아갈 결심이 다시금 굳어지고있었다.

## 숲속으로 사라진 병사

김 연

그는 지금 보이지 않아라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원한 병사는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아라  
안개처럼 숲속으로 사라진 그 병사는

이름은 무엇이며 초소는 어디인지  
어이 알라  
병사를 품에 안은 깊은 수림은  
울창한 나무일만 흔들고있는데...

하여도 그 모습만은 눈에 생생해  
온 마을이 부르며 찾아도  
메아리만 되돌아올뿐

고요한 숲속엔 새들의 노래만 유정할뿐

오, 잃을번한 생명들 강녕에 다시 피고  
고마움에 울먹이는 마음들  
뜨거운 이슬로 강기슭을 적시는데  
어디로 갔는가 그 병사는  
그는 끝내 보이지 않았어라

허나 만약 준엄한 날이 와  
원췌의 총구 인민의 생명 겨누다면  
스스로 숲을 헤치고 그대는 나서리  
- 병사가 여기 있다!...